

문화비전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 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문화원 임직원 일동

웅진문화원 비전

비 전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창조적 문화 실현



목 표

지역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



핵심과제 및 주요사업

자체역점사업

- 웅진군 신년인사회
- 《웅진문화》 발간
- 정서·소양 함양양서 보급
- 문화가족 문화유적 탐방
- 웅진문화예술인의 밤

문화예술진흥사업

- 찾아가는 예절교실
- 웅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 찾아가는 문화활동
- 생활예절UCC공모
- 명사초청강좌

문화예술활성화사업

- 심청효학생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 웅진문화학교
- 찾아가는 생활문화 강좌
- 섬마을 문화강사양성
-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관
- 우리 섬애(愛) 버스킹
- 슬기로운 문화생활 강좌

특성화사업

- 웅진 섬 민요집 발간
- 지오갯잇길 여행 발간
- 향토유적지 보존 홍보
- 웅진섬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CONTENTS

웅진문화 제8호

문화 비전 선언문.....	1
웅진문화원 비전.....	3
발간사.....	7
축사.....	9

웅진브리핑

웅진문화원 소식.....	14
웅진군 소식.....	16
웅진군의회 소식.....	18

[특집] 피플 인사이트 웅진문화원 초대·2대 원장, 태동철

태동철 수필 그것이 행복이라면 나, 행복했다.....	20
이광일 - 내가 아는 태동철(太東喆) 원장.....	23

태동철 감상문 1.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몬테크리스토 백작』.....	28
2. 『상도(商道)』.....	33

웅진RE·VIEW

장봉도 구황시혜불망비.....	38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 전시회를 가다.....	42
바닷길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인천 섬.....	49

웅진문예마당

시	
강명한 - 착한암.....	56
김수원 - 콩 이후의 이름.....	57
문신진 - 어머니 전상서.....	58
송성춘 - 웅진군.....	59
안송환 - 먼저 걷는 사람의 이야기.....	60
유희숙 - 사랑아.....	61
이서연 - 어부의 배가 아침을 열 때.....	62
이서연 - 바다여.....	63
이영노 - 푸른 최면(부제 : 제7정복호).....	64

이종근 - 섬과 섬 속으로.....	65
임경남 - 사바나식 옥상들.....	67
정철진 - 愛妓峯에서.....	68

수필

강도영 - 중환자실의 깨달음.....	69
강도영 - 독서 나의 스승님.....	72
곽인화 - 웅진문화원과 함께 한 8년.....	74
김근종 - 낚시.....	76
김근종 - 공공근로.....	77
김미현 - 새로운 취미.....	78
김용덕 - 바위에 묻은 달빛 『분바위』.....	79

김용준 - 덕적의 외각도를 운항하던 배들을 떠올리며.....	82
--------------------------------------	----

김은희 - 반려자.....	83
류인채 - 내 마음에도 창터를 내고.....	85
신명연 - 고향 작은 섬 추억 이야기.....	89
심상선 - 아름다운 마음의 여유.....	91

이문주 - 사랑.....	92
이서연 - 골목 작은 화단엔 '함께'라는 꽃이 핀다.....	93
이순애 - 공포의 암.....	95

이순자 - 막걸리 체험(1차, 2차).....	97
이원환 - 흔들림과 비움.....	98
이임선 - 파도가 손짓하는 장봉도.....	101
이지영 - 나는 한마디도 못 했다.....	103

임경남 - 이름은 그 사람이 입은 영혼이다.....	106
임병구 - 강화 붕어찜 : 흠에 맛이 있다면 시간이 댐 이 맛이겠구나!.....	108

정영민 - 영흥도가 좋대! 십리포가 좋대! 문화원이 좋다!!!.....	112
최병암 - 어머니의 사부곡(思夫曲).....	114

자유기고문

장종철 - 기독교인 됨의 길.....	116
장종철 - 존 번연의 문학과 비전.....	124

감상문

김국회 - 삶이란 곁에 누가 있는가에 달렸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131
--	-----

차윤옥 -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여행 - 단테 《신곡》 다시 읽기	135
---	-----

기행문

곽인화 - 1박 2일 백령도, 대청도를 다녀와서	147
박용만 - 자유총연맹웅진군지회, 호찌민시(市)를 가다	150

작품

박용만 - 서각	158
서치현 - 그림	159
신영희 - 그림	160
전미선 - 그림	161
길정연 - 캘리그래피	163
김진경 - 캘리그래피	164
신미현 - 캘리그래피	165
양도선 - 캘리그래피	166
육광자 - 캘리그래피	167

문화원 책갈피

올해의 프로그램 - 상담상담 목요일방	170
<부록> 권경화 - 발가락이 닳았을 뿐이었어 김신원 -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꿈 김수원 - 어머니와 회화나무 서형원 - 다시 만난 생활 세계 신명언 - 유년의 훈장 이길현 -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이순애 - 길 잃은 쪽파 이해순 - 나의 아름다운 시절 임해경 - 내 인생의 굿 샐 최금화 - 조각반 친구 M	

사업참여소감	202
찾아가는 예절교실 [강사 - 백주원, 조숙희]	

직원공감

사무국장 윤삼용 - 우리 문화원은 초등학교 1학년	206
대리 서혜인 - 배움이 피워낸 작은 꽃, 웅진문화학교와 함께한 시간	210

아름다운 웅진

[화보] 아름다운 웅진	213
--------------	-----

2025년 문화원 주요 사업

문화원 자체역점사업	222
신년인사회 《웅진문화》제8호 발간 문화가족 문화유적 탐방 정서·소양 함양 양서 보급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문화예술진흥사업	227
웅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찾아가는 예절교실	
문화예술활성화사업	229
제26회 심청 '효' 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웅진문화학교 찾아가는 생활 문화 강좌 섬마을 문화강사 양성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관 우리 섬애(愛) 버스킹 제52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 문화 행사	
특성화사업	236
2025 웅진섬(연평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제26회 심청 '효' 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글짓기 부문	238
박소원, 여인서, 엄상윤, 여윤슬, 김서윤 노윤서, 박시은, 한서현, 조윤희, 김예지 김재윤, 김륜아, 최건우	
그리기 부문	251
이진우, 맹혜진, 김리혜, 박시완, 김시현 이서형, 어예은, 한자임, 최세은, 황금물결 김도윤, 장여은, 조수빈, 김교빈, 정예준	

웅진문화 제8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웅진문화 제8호 발간사를 쓰며 8년 전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8년 전 웅진문화원의 첫 부임 시절을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추대로 웅진문화원장으로 임명될 때는 앞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웅진군민들 가슴에 문화를 심어주고 예술을 꽃피우게 해서 좀 더 나은 행복한 섬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농촌과 어촌으로 이루어진 서해 5도 섬, 육지에서 배를 타고 5시간을 가야 하는 백령도, 대청도 군민들에게 내가 문화원장으로 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염려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제일 처음 한 일이 《웅진문화》를 발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글로라도 소통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웅진군민들이 단합할 수 있는 건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했고, 문화의 힘이 군민들의 삶에 행복을 꽃피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웅진문화》가 제8호를 맞이합니다. 회원도 350여 명이 되었고 이젠 많이 알려져서 서로 회원이 되려고 연락합니다. 《웅진문화》로도 소통하고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개설하여 현지에서 문화 예술을 홍보한 덕분에 회원들의 미술 공예 작품도 대단한 기량을 발휘해서 저도 깜짝 놀라는 작품을 많이 봤습니다. 웅진문화학교를 개설해 글쓰기, 도자기 만들기,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 향수 만들기, 유리공예, 캘리그라피 등을 공부해서 전시도 하고 회원들에게 희망과 보람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직도 못다 한 일에 아쉬움이 남아서 가슴이 옥죄어옵니다. 하지만 2017년 부임 후 매년 알찬 내용을 담아 《웅진문화》를 발행하였고, 이제 《웅진문화》 제8호 발간사를 쓰다보니 못다 한 일에 대한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어머니의 손길인 듯 따듯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문화 창달의 디딤돌이라 생각됩니다. 한발 한발 내딛는 글쓰기의 효용성은 회원들의 문화생활에 마중물이 되어, 등불 같은 존재감을 가졌으리라 믿은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져 봅니다.

웅진문화원의 문화 사업의 기본 틀은 인문 독서의 장려로 1년에 두 권의 양서를 보급하

고, 그 독후감을 《웅진문화》에 게재했습니다. 전국 명소 문화 탐방으로 회원들의 단합을 다지고, 역사 문화 의식을 글로 써 자신의 존재감을 표현하는 문화 체험이 《웅진문화》 발행의 가치며 의미며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호에서도 회원님들의 다양한 독후감, 기행문, 수필, 시 등 자기표현의 발현에서 삶의 전성기를 세상과 공유함은 크나큰 보람입니다. 글 한 편 쓰자면 이런저런 공부도 전제됩니다. 사람은 스스로 공부한 만큼 자존감이 높아지고 세상을 높고 넓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공부는 곧 성공을 낳고 성공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이뤄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행복은 우리 삶에 생기와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원동력이 되기에 저는 항상 회원들을 만나면 농사짓고 어업 하면서도 짬을 내어 책을 읽고 공부하라고 설득합니다. 부모가 책을 읽어야 자식도 본을 받아 책을 읽습니다.

앞으로 AI 시대에는 융합형 인간만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부응하여 융합형 문화인을 양성하고자 웅진문화학교를 개교하여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의 공부 열기를 응원, 격려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웅진문화》 제8호에는 본교 수강생들의 글 모음도 있어 의미 있는 문화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며 문화생활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님! 《웅진문화》 8호는 문화생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문화의 힘은 행복입니다. 문화생활에 풍요를 느끼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진문화원장 

문화로 미래를 여는 《옹진문화》 제8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옹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 다채로운 삶의 숨결을 담아내는 《옹진문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옹진군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군민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의 장입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섬과 섬을 잇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체이자 미래 옹진의 문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군민이 행복한 옹진군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군정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객선 운항 체계와 섬 내 교통 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육·해상 교통망을 확충하고,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해 정주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또 인천 i-바다패스를 시행하여 섬 교통비 부담을 완화함에 따라 차세대 문화관광 중심지로서 옹진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섬마다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교육·복지 분야의 지원 확대와 시설 확충을 통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옹진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해양 문화를 품고 있는 보물섬입니다. 옹진문화원과 『옹진문화』가 이러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기록하고 발전시키는 선봉장이 되어 문화적 자긍심을 더욱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옹진군에서도 군민의 일상에 문화가 스며들고,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을 만들기 위해 옹진문화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옹진문화》 제8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우리 옹진의 문화적 삶을 지키고 기록해 주신 옹진문화원 태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옹진 군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옹진의 문화가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옹진군수 **본 경 복**

문화로 하나 되는 웅진, 《웅진문화》 제8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웅진군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는 《웅진문화》는 우리 고장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소중한 기록의 공간입니다. 이러한 《웅진문화》가 묵묵히 군민의 삶과 웅진의 아름다움을 글과 사진, 그림으로 담아내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지도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섬마다 지닌 역사와 문화, 주민의 삶이 오롯이 저장된 웅진의 문화 자산이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웅진군의회는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소통하고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쳐왔습니다. 섬 곳곳을 누비며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공항소음 대책에 관한 지원', '섬 주민 전용 배표 확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한 문화, 복지, 환경, 관광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문화는 지역 사회를 결속하고 공동체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번에 발간된 《웅진문화》 제8호가 군민의 삶 속에서 문화에너지를 깨우고 섬과 섬을 잇는 마음의 다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웅진군의회도 웅진의 문화적 자긍심으로 드높이고, 군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 예술 활동과 인프라 확충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웅진문화원 태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웅진문화》 제8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웅진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웅진 군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웅진군의회회장 이 시영

《옹진문화》 제8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서해의 섬마다 고유한 이야기와 숨결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옹진의 섬들은 바다의 품 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며, 세월을 건디며 쌓아온 문화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옹진문화』는 그러한 옹진의 삶과 예술, 그리고 마음의 기록을 한데 엮은 귀중한 결실입니다.



태동철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관계자와 회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이처럼 풍요로운 문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섬에서 나고 자란 이들의 손끝과 마음이 만들어낸 시와 수필, 그림과 사진은 그 자체로 옹진군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습니다.

옹진문화원은 여러 해 동안 지역문화의 뿌리를 지켜온 든든한 토대이자, 군민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온 배움의 터전입니다. 특히,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 속에서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표현하며 '문화로 이어지는 공동체'를 만들어 온 노력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문화지가 단지 한 해의 기록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잇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옹진군이 지역구인 시의원으로서, 옹진군의 문화와 예술이 더욱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신 태동철 원장님과 모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옹진의 문화가 바다처럼 넓고 깊게 퍼져나가며, 섬마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의원


신영희





용진브리핑

용진문화원 소식
용진군 소식
용진군의회 소식



영진문화원
소식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2025. 1. 8.)



2025년 제1차 이사회 개최 (2025. 1. 21.)



2025년 제8차 정기총회 개최 (2025. 2. 27.)



2025년 제2차 이사회 개최 (2025. 8. 29.)



제52회 용진군민의 날 문화행사 개최 (2025. 9. 12.)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 아름다운 동행 전시회 (2025. 9. 19. ~ 30.)





용진군 소식

용진군 새롭게
군민을 신나게

**용진아~ 1,500원으로
백령도 여행 가자!**

전국최초 인천 i-바다패스 시행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천 시민이라면 1,500원으로
다른 지역 시민은 70% 할인 받아 용진군 섬을 갈 수 있습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3월 1일 덕적초중고등학교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기고, 3·1만세운동 재현행사를 진행하였다.

인천i-바다패스 시행

대중교통요금으로 섬관광을 할 수 있는 인천i-바다패스가 시행되었다.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용진군 관내섬을 편도 1,500원에, 타사·도민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덕적자연휴양림 개장

3월 1일 덕적자연휴양림 개장식이 개최되었다.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덕적면 진리 일원에 약 12만 3,718㎡의 규모로 조성된 자연 속 휴식 공간으로, 산림휴양관(숙박시설) 4개실, 숲속의 집 5개실, 데크 야영장 6개소가 마련되어 있다.



제9회 주섬주섬 음악회

8월 16일 덕적도 서포리해수욕장에서 '제9회 주섬주섬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덕적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하였다.



웅진군민의 집 개관

9월 5일 웅진군민의 집 개관식이 개최되었다.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된 군민의 집은 객실 28실, 휴게실, 옥상 쉼터,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어 군민의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소

인천 중구 연안부도로 43번 길 8



2025 선재도 풀딩 예술제 개최

9월 13일 선재도와 바다에서 동고동락하며 삶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예술로 만나는 '2025 선재도 풀딩 예술제'가 영흥면 선재도 풀딩 일대에서 개최되었다.

제52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

9월 12일 남동체육관에서 2,600여 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제52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기념식을 비롯한 군민 한마당 체육대회, 군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25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 개최

9월 20일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섬마을밴드 음악축제'가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특별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용진군의의회 소식



2025 을사년 새해맞이 영흥 해군전적비 참배

1월 2일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영흥도 해군전적비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



2025년 을사년 신년맞이 7개면 방문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1월 6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13일 연평면, 16일 덕적면, 17일 자월면, 20일 대청면, 21일 백령면, 24일 영흥면까지 7개 면을 방문하여 신년인사회 등에 참석하였다.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협약 체결식

3월 12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진행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체결식에 참석하였다.



각 면 현장 방문 및 주민 간담회 등 실시

3월 24일 자월면을 시작으로 3월 27일 영흥면, 6월 11일~12일 덕적면, 6월 12일~13일 연평면 등 각 면을 방문하여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및 건의사항 수렴, 주요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다.

[특집] 피플 인사이트

웅진문화원 초대·2대 원장, 태동철

그것이 행복이라면 나, 행복했다.

내가 아는 태동철

태동철 감상문 1.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 [몬테크리스토 백작]

태동철 감상문 2.

[상도(商道)]

그것이 행복이라면 나, 행복했다.



태동철(웅진문화원장)

시간으로 75년이 지났어도 내 가슴에, '그래. 그것이 행복이었어'라고 말하고 싶은 한 장면을 여기에 풀어서 독자와 공감, 공유하고자 한다. 행복의 실체를!

민족사적으로 볼 때, 비극, 처절한 비애가 1950년 6·25전쟁이다.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내주고 남하 피란한 것을, 일명 1·4후퇴라 한다. 당시 정부는 국민방위병 동원령을 내려 17세 남아에서부터 40세 장년까지 모두 징결시켜서 정부 따라 남하하도록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에 아버지는 당시 31세로 국민방위군에 소집되어 1950년 12월부터 집을 떠나 있었다.

나는 큰어머니를 따라 어청도로 피난 갔다가 2개월 만인 1951년 2월에 집에 왔다. 국민방위군에 나간 아버지는 1951년 4월이 다 가도록 소식이 없었다. 당시 국민방위군에 나간 사람 대다수가 한겨울에 동사했거나, 굶어 죽었거나, 병사했다는 소문에 귀가하지 않은 집에서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

1951년 4월 중순까지도 아버지 소식이 없어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집에서 기르던 황송아지(3살배기)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그 어린 송아지 등에 길마를 얹어놓고 그 길마에 퇴비 내는 두엄걸채를 걸어 그 걸채에 퇴비를 한 짐씩 싣고 눈에 다 풀어놓고, 또 풀어놓으니, 날이 갈수록 눈바닥에는 퇴비 뭉치가 쌓였다. 쌓여가는 그 퇴비 두엄은 나를 기쁘게 하였다. 가슴 뿌듯하게 하였다.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는 햇봄에 나는 실파로 실파무침에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셨다. 참으로 밥을 맛있게 먹었다. 또한 소죽을 정성스럽게 썰어서 주면, 소도 내 눈을 마주 보며 그것을 맛있게 먹었다. 점심 먹고 또 퇴비를 나르고, 퇴비는 눈에 쌓이고, 그 쌓이는 퇴비는 나를 어른으로 키워주는 듯했다. 나는

농군이 다 된 듯 가슴 뿌듯했다.

일한 만큼의 성과가 논바닥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어린 나이지만 쌓이는 퇴비 두엄이 일의 맛을 알게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학교에서는 수업을 정상으로 하였다. 친구들은 학교에 나갔다. 시끌시끌 때 지어 다니면서 그들끼리 어우러져 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학교 갈 채비 없이 그날도 퇴비 나르기에 전심으로 힘쓰고 있었다. 1951년 4월 말경 해 질 무렵에 먼발치에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듯 했다. 등짐에 무얼 지고 꾸벅꾸벅 걸어 오시는 어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었다. 소일을 잠시 멈추고 마중 나갔다.



아- 아버지였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돌아오셨다. 기쁘고, 참으로 기뻐다.

눈에 쌓인 퇴비 두엄 앞에서 아버지와 상면하는 이 순간에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기뻐다. 이것이 행복이라면 나는 참 행복을 맛보았다. 이때 내 나이 12살이었다. 소와도 호흡이 척척 맞았다. 일머리도 알아갔다.

아버지께서는 국민방위군 소집에 응하여 수원쯤 갔을 때, 정부 방위군들에게 숙식 제공 자체를 감당 못 하는 무질서, 무정부 상태였다고 한다. 이 때를 틈타 무조건 군부대를 찾아가서 노역해 줄 테니 재워주고 밥만 먹여 달라고 하였더니 부대에서 승낙하였다고 한다. 군부대에서 한겨울 나고 봄이 되어 풀려나면서 여비와 의류도 받아서 오셨다. 아버지는 당시 시국을 제대로 보시고 정면 돌파 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1951년 5월에는 아버지는 농사일에 전념하시고 나는 학교에 갔다. 소는 논갈이에 바쁘고, 어머니는 밭일에 들어 집안이 화기에애 하였다.

1952년 3월에 나는 중학교에 가서 학교생활에 열중했다. 소는 내 중학교 학자금으로 팔려 갔고 이 때부터 나는 우골탑으로 살아왔다.

아버지는 당시에 현명한 선택으로 국민방위군에서 살아오셨고, 나는 아버지 잘 만난 덕분에 농군 후보에서 학생 신분으로 변하여 오늘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때도 행복했고 지금도 나는 행복하다.

논바닥에 쌓인 퇴비 두엄은 내 인생 향로의 밑거름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리운 아버지의 그 건장하신 모습, 호천망극(昊天罔極)이어라! 싱그럽고 따뜻했던 어머니의 그 실파무침의 밥상, 보고 싶은 어머니!

그래, 황소야! 나와 함께 일 배우며 아장아장 논길 걷던 황소야, 네 덕분에 나는 공부했다. 인연이 되면 내가 너를 공부시켜 주고 싶다.

내 행복은 이렇게 짜여져서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행복이라면 나는 늘 행복 속에 살고 있다. 지금은 문장 하나가, 글 한 편이 그 눈에 쌓아가던 퇴비 두엄일 것이다.

이제 국민방위군 나가셨던 아버지 만나듯 나를 여기까지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신 신령님을 뵙는 날, 논바닥 퇴비 두엄과 아버지와 상면에서 충만했던 내 삶의 여정이 글쓰기의 보람으로 충만할 것을 믿는다.

이것이 행복의 실체인 것을 믿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른 봄빛에 아지랑이 꿈틀대는 논바닥 위에 퇴비 두엄 쌓이듯 내 삶의 여정에 행복의 사연들이 쌓여갈 것을 믿은 마음으로 이 글을 맺는다.



프랑스 니스 마세나광장 태양의 분수대 태양신 아폴로 동상 앞에서

내가 아는 태동철(太東喆) 원장

이광일(전 인천우체국장)

태동철 원장, 그와 가깝게 지나게 된 것은 인천고등학교 제57회 재경 동창 모임 때부터였다. 사실 한 학년이 7개 학급이니까 재학 중에는 같은 반이 아닌 이상 서로 살갑게 지낼 기회가 별로 없었다. 더구나 사회에 진출하여 직장 따라 좌충우돌 헤매다 보니 연말에 한 번 개최되는 동창회 모임에서나 서로 얼굴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마다 그에 대한 소감은 항상 명랑하고 직선적이며 꾸밈이 없어 누구나 반기는 인물,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인물,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태동철 원장이다.

1997년 말 재경 인천고 57회 동문회 정기총회가 세종호텔에서 부부 동반으로 개최된 바 있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태동철 원장이 졸업 40주년(1998년)을 자축하는 기념문집을 발간하자는 안건을 제의하였고 이 안건이 통과되어 곧바로 기념문집 발간을 위한 설문지를 배포한 바 있었다. 그만큼 그는 적극적이며 발상의 전환이 남다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로부터 1년 후에 내가 재경 동창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그를 총무로 지명하여 함께 동창회 일을 보게 되었다. 그의 열정과 깊은 안목이라면 함께 일함으로써 동창들 간의 깊은 우정을 다지면서 모교 발전을 위한 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길 것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에서 그가 제안했던 졸업 40주년 기념문집을 그와 함께 힘을 모아 원고를 수집하고 편집하여 "남기고 싶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문집을 발간하였으며 그 후 동창회 때 은사님들을 모시고 발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개최한 바 있다. 그때 안 사실이지만 그는 문학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폭넓은 지식은 물론 이에 더하여 열정과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가 쓴 글을 읽어보면 가난 속에서도 바르게 굳건히 살아오신 아버님의 강한 정신력이 삶의 지표가 되었다고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생활 교훈을 되새기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고 회고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아버님의 생활 교훈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살아온 사례 몇 가지를 옮겨본다. 아울러 내가 교우하면서 느낀 소감을 함께 적어본다.

첫째, 그는 의지의 사나이이다. 1950년대 전쟁 중에 농촌에서 농사지어 자녀들을 도시로 보내 공부시킨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였다. 그는 부모님 잘 만나 고교까지는 졸업했는데, 대학 갈 형편이 못되어 군에 자원입대하여 부산에서 복무 중 동아대학교 야간부에 다니면서 군 생활을 마치며 대학을 졸업한 의지의 사나이이다. 군 조직상 규율이 엄격하여 개인적인 시간이나 행동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남보다 돋보이게 충실히 근무하여 필수 요원으로 발탁된다. 외출 허가를 받아 동아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한다. 이와 같은 학력이 후에 좋은 직장 선택과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맡은바 일에 충실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강한 학구열이 인격을 도야시킨다고 강조한다.

가끔 그는 니체 철학에서 나오는 '권력의지', '초인'에 대해 말한다. 향상성에 의지를 둔 삶의 긍정적 의지력이 아마도 19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의 생활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그는 독서광이다. 그는 말한다 독서는 기가지본(起家之本)이라고. 그래서 대중 연설이나 작은 모임에서도 늘 독서하기를 권한다. 이는 대학재학시절부터 익힌 습관으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독서를 생활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웅진문화원 사업에서 회원들에게 일 년에 책 두 권을 무료로 보내주고 읽기를 권장하고 있다. 몇 년 전에 그 양서 보급한 책 『갈매기의 꿈』을 받아보았다. 배우려고 노력하여 높이 활공하는 조나단의 자유로움, 넓은 세상을 보는 안목 등 그 조나단의 배움과 활공을 통하여 내 생활에 접목시켜 보려고 결심하고 노력한 바도 있다.

독서에 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인생을 알게 된 것은 사람과 접촉해서가 아니라 책과 접촉하였기 때문이다(F. 프랜스)." 따라서 독서는 사회적 소통 행위와 지식 창출 행위로 보고 있다. 또 독서는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내재한 의식을 깨워준다고 하였다.

그는 군에 복무 중일 때 새벽까지 사무실에 난로를 피워놓고 독서하다가 주변사령에게 발각되어 2일간 영창살이 했다는 일화를 소개한다. 정말 그는 독서광이다. 독서를 일상화하는 노력으로 나이에 반 비례하여 정신세계는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 그는 우리와 만나 담소할 때 시대 변화의 트렌드를 귀뜸해 주곤 한다.

"자 보라, 산업혁명을 이끈 것이 물류의 이동, 철도와 자동차, 항해술과 전쟁이라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독점 시대에서 이제는 나눔과 정보의 공유 개방 시대로의 전환에서 커넥트 디바이스(인터넷 연결)의 활용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고 있어."

디지털 철학을 공부해야만 한다고 역설하는 친구다. W에서 M으로 이제는 R의 시대라고 역설한다. 이런 경험도 말해 준다.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현금가는 20% 싸다. 지금 가진 현금이 없다고 하자 식당 측에서 계좌번호를 적은 문건을 준다. 그 자리에서 송금 이체하라 한다. 이것이 지금의 인터넷 디지털 시대다.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태동철 친구다.

셋째, 그는 건설 역군이다. 건설업계에서 40년간 근무하면서 열사의 나라 사우디에 건설 역군으로 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1년간 근무하면서 외화벌이 일선 돌격대 일꾼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했다고 회고한다.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를 돌보는 관리직으로 있으면서 근로자에 대한 영양식 공급 등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공공의 선을 취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의 생활 태도라고 본다.

넷째, 그는 시인이다. 현업에서 퇴직한 후 60대 중반에 들어서부터 그동안 독서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詩作) 활동을 시작했다. 그래서 동창 모임 때에 종종 시 낭송을 하기도 했다. 그때만 해도 그의 시는 아름다운 고향 풍광을 노래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는 어떤 일에 손을 댔다 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다. 따라서 자기 문학 활동을 체계적으로 다듬기 위하여 70세, 정말 늦은 나이에 불구하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 입학한다. 그리고 50대 젊은 선생으로부터 열심히 배웠다. 그 결과 문단의 여러 문인들과 좋은 인연 맺으면서 존재감을 넓혀갔다. 그리고 창작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등단 10년 만에 시집을 냈고, 15년 만에 문학상도 받았다. 그리고 20년 만에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의 결정이라고 보겠다.

다섯째, 그는 향토 지킴이이다. 고향이 인천 옹진군 영흥면인 그는 어릴 때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 중에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버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왔다. 그래서 많은 추억이 깃든 고향을 사랑한다.

그는 이러한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아 2017년에 인천 옹진문화원 초대 원장으로 추대된다. 취임식 날 초대받은 우리 동창들이 함께 참석하여 마음껏 축하해주었는데 벌써 4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 재임 후 반이라고 한다.

그는 웅진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웅진문화》 책자를 발간할 때마다 보내주고 있는데 여러 장르의 글이 아주 재미있게 수록되어 있어 나는 애독자가 되었다. 《웅진문화》에 실린 화보를 보면 웅진의 여러 섬을 방문하여 주민과 자주 어울리는 장면이 목격된다. 그만큼 그는 주민들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웅진 민요 발굴·정비, 향토 문화 발전 연구 등 웅진문화 창달과 보존에 힘써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웅진문화원은 2020년 10월에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웅진문화원은 문화원 가족은 물론 모든 회원이 함께 어울려 웅진문화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왔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록 개원(開院)은 일천하지만, 인천의 10개 문화원 중 우수문화원으로 선정되어 2024년에 인천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관내 초·중·고학생들에게 심청효, 예절 학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문화예술 교육에 헌신한 바를 높이 평가하여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우수문화원 상도 받은 바 있다. 그는 개인적으로 웅진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바 많다 하여 2023년 11월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까지 받으며, 2024년 12월에는 인천예총 본부에서 주는 예술상을 수상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열정을 다하며 살고 있다고 본다.

태 원장은 이렇듯 머무는 곳마다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다. 이는 친화적이면서도 열정적이며 긍정적인 사고가 바탕이 된 생활 태도에서 습관화한 성품 때문이라고 본다.

여섯째, 그는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는 철인(鐵人)이다.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1시간 정도 테니스를 즐기면서 몸을 푼다. 그리고 주말이면 등산으로 심신을 연마시킨다. 이 모든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건강한 체력은 건전한 사색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실 그는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모든 수치가 40대와 버금간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사실 태 원장은 70대 후반에 오랫동안 함께 해로하던 조강지처와 사별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다. 그 아픔을 딛고 문학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늦은 나이지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학창작 전문과정을 이수한다. 따라서 그의 시는 경험에서 오는 고향 사랑, 슬픔과 기쁨, 자연의 신비로움 등이 모든 것이 함축된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문학이란 작가가 체험을 통해 얻은 진실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는 언어예술이라고 했다. 또 시를 쓰는 사람의 감정은 순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문학을 평가할 능력은 없지만 이런 면에서 볼 때 태 원장의 시 작품은 어려운 중에서 정도를 지켜온 아버님에서 가르침을 받은 순수성이 전제되었을 것으로 본다.

태 원장은 아주 늦은 나이에 운명적으로 마음을 줄 수 있는 한 여인을 만난다. 그는 함께 활동하는 문학 동호인이다. 여러 문학인의 축복 속에 결혼식도 올렸다. 만날 때마다 재혼을 잘했다고 싱글병



2025 지역문화박람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태동철 원장

글이다. 그러나 이는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서로의 영혼 속에 내재된 문학의 씨를 끄집어내어 함께 뿌리고 가꾸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함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나이 80줄에 재혼함은 그가 늘 우리에게 말해 왔던 니체의 '운명애', '아모르파티'의 실행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는 말한다. "운명, 아프다. 그렇다고 주저앉지 말자. 디오니소스적 가치 창출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그가 독서 속에서 체득한 생의 철학, 니체의 운명애를 행동화한 것으로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그는 날이 갈수록 심신이 건강하며 일상생활이 충만하여 늘 웃는 낯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니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며 사는 건전한 생활인이다. 건전한 생활인으로서 태 원장은 주위 동문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온전히 받고 사는 든든한 벗이다.

이제까지 태 원장과 교우하면서, 함께 일하면서 인간 태동철에 대하여 느낀 소감을, 특히 웅진문화원장 2기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태 원장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문화원 가족에게 전하고 싶어서 몇 자 적어봤다. 혹시 글 중에 무리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기 바란다.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몬테크리스토 백작

『몬테크리스토 백작』
저자 알렉상드르 뒤마 번역 윤진 그림 귀스타브 스탈 외

1. 들어가는 말

"시대의 문물이, 생각이, 행동 양식이, 가치관이, 본초를 다투며 변해가는 21세기에, 부싯돌 시대의 인물이 살아서 문단에 고명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여행하는 자리만 해도 영광인데, 더하여 인문학 고전으로 사랑받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독후감을 공유할 기회를 가짐에 송구하면서도 영광입니다."

올 봄 계간문에 작가회 회원들이 제6회 해외 문학 세미나 및 해외 인문학 기행으로 남프랑스 일원에서 예술 활동을 한 작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섰다. 여행 3일차(2025.3.30)에 열린 프랑스 문학 세미나에서 내가 알렉상드르 뒤마의 소설인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감상 주제 발표를 맡았을 때 위와 같이 말문을 열었다. 아래의 글은 인문학 독서의 가치에 대하여 그날 발표했던 내용이다.

2. 저자에 대하여

저자 알렉상드르 뒤마(1802~1870)는 할아버지(=뒤마 1세)가 흑인 노예와 결혼했기 때문에 혼혈아다. 그의 아버지 뒤마 2세는 귀족이면서도 혼혈아로 무시당하는 신분이었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폴레옹을 신봉했고 나폴레옹을 위한 충성된 군인 생활을 하며 아메리카연대를 지휘하여 장군으로 진급했는데 저자인 뒤마 3세가 4살 때 사망했다. 뒤마 3세는 독서를 통하여 교양을 높여 갔다. 젊어 일시의 연애로 아들 뒤마 4세를 낳았다. 이 뒤마 4세는 오페라 〈춘희〉를 만들어낸 극작가이다. 뒤마 2세는 1822년 파리 루이 필리프 궁전에서 일하면서 독서와 글쓰기에 열중하여 1829년에 출간한 희극 『앙리 3세와 그의 궁전』이 성공하였다. 1840년에 출간한 『펜싱 마스터』와 『삼총사』 등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1844년에서 1846년 사이에 신문 연재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썼다. 이태리 통일 운동에도 나섰고, 혼혈의 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뇌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후에는 사치와 여성 편력, 방탕으로 품위 없이 살다가 1870년에 사망했다.

3. 시대 배경에 대하여

본 소설 나폴레옹 황제파와 루이 18세를 내세운 왕정파 간 정치 혼돈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프랑스가 산업화 시대로 접어든 때이다.

프랑스혁명 시대의 혼돈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사상적 흐름은 잔 작크 루소가 저술한 《사회계약론》에 의한 자유평등사상과 데카르트의 인본적 사유,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의식으로, 관념 철학에서 생의 철학으로, 왕권과 사제들의 특권에 대한 평민들의 저항 의식이 성숙 되어갔다. 18세기 영국산업혁명의 성취로 제품 판로, 원재료 확보에 따른 교역의 확장세는 중상주의로 변하게 하여 시민들이 부를 축적하자 봉건 영주들이 무너졌다. 시민 사회가 태동하자 자유 시민의 저항이 혁명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나폴레옹의 출현으로 인해 전쟁과 억압 속에서 시민 자유평등 의식이 더욱 깊고 넓게 퍼져가고 있었다. 이때 성공의 삶과 패배의 삶 속 인간 욕구의 분출은 배신, 모략, 탈취, 살인 등 극도의 불안 요소들이 사회 곳곳에 퍼졌다. 천주교와 개신교 간의 종교 세력 다툼은 왕권 세력에도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자유평등사상이 확장되어 갔다. 본 작품은 1815년 나폴레옹이 재집권하는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여 "에드몽 당테스"라는 인물을 다방면으로 신분 세탁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 인간 내면을 삶의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통찰한 고전이다.

4. 작품 줄거리 요약

마르세유항에 선적을 둔 상선 파라옹호의 일등항해사 "에드몽 당테스"는 그 시대에 잘나가는 인물로 동료들 - 당글라드, 페르낭, 카타루스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모함과 음모로 반란죄를 뒤집어쓰고 나폴레옹 황제파로 몰려 이프섬에서 14년간 옥살이하다 옆방에서 수감 생활하는 신부 파리아를 만나 역사, 지리, 문학, 종교, 언어 등의 지혜를 배운다. 그러나 신부가 병사하자 그녀의 시신으로 자기 몸을 바꿔 바다에 버려져 탈옥에 성공한 후 몬테크리스토섬에 갔다. 그곳에서 신부가 알려준 보물을 손에 쥐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귀족으로 신분 세탁하여 파리 사교계를 들고나며 세력가로 처신한다. 자신을 모함 음모한 당글라드, 페르낭, 빌포르 검사 등에게 기묘하게 파고들어 복수하며 그들을 패망으로 몰고 가 자살에 이르게 한다. 복수하는 과정에서 당테스는 신부로, 상인으로, 귀족으로, 신분 세탁을 한다. 복수의 마무리 단계에서 복수의 한계와 복수로 인한 제3 자의 고통을 인지하고 크게 자책한다. 용서하면서 검사 빌포르의 딸 발랑탄을 도와준다. 외제니 당글라드는 돈에 인생을 건 아버지, 당글라드와 달리 "삶은 자유와 예술뿐이다." 라며 사회와 가족의 굴레를 벗어나는 디오니소스적 삶의 가치를 창출하며 살길을 찾아 나섰다. 몰레 막시밀리앵과 빌포르 검사의 전처 딸 발랑탄은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도움과 사랑으로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페르낭 모르세르백작에 대한 복수 과정에서 심판대인 상원에 증인으로 나선 총독 알리 파샤 딸, 하이테와 평화와 안정을 찾아 요트를 타고 지중해를 떠나는 것으로 복수의 마무리를 하였다.

자신이 옥살이 중, 절망의 순간마다 파리아 신부가 말해 준 희망의 메시지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를 막시밀리앵과 발랑탄 두 사람에게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라고 격려하며 자신은 하이테와

함께 평화와 안식을 찾아 동방으로 가며 소설은 마무리된다.

5. 독후감

19세와 20세기, 서양사 프랑스 혁명사, 나폴레옹 집권과 그를 망하게 한 워털루 전투 등 역사 공부를 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고 한다. 옥중에서 윗방 신부가 탈옥용 굴을 파는 대목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같지만 소설이 되었다. 이프섬에서 신부의 죽음을 이용하며 자신이 그 신부의 시신(屍身)으로 대신하여 탈옥에 성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엮어가서 몬테크리스토섬에서 보물을 손에 쥐고 백작으로 신분 세탁하여 신부로, 영국 신사로, 사업가로 살았지만, 옛 친구들도 그의 신분 세탁을 몰랐다. 불륜에서 낳은 영아를 상자에 묻었는데 끄집어내 살려냈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피고로,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파멸로 치달게 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실화를 소설답게 썼다. 상상력의 승화다. 공상은 소설의 씨알이 된다. 갈등 구조의 묘미다.

본 소설 306쪽, 빌포르 검사와 몬테크리스토 백작 간의 대화에서 나는 이 소설을 평가한다. 나는 이 장면에서 자신을 성찰했다.

백작 - 일반적인 조건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갇혀 사셨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예외적인 존재들이 모여서 살게 하신 상위영역에 오르기 위해 날갯짓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 것뿐이죠. 왕들의 영역은 산이나, 강으로, 혹은 관습으로, 언어로 경계 지어지지만 나의 왕국은 이 세계 전체입니다. 나는 세계인이죠. 무언가를 할 때, 힘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 때문에 멈추게 되고, 반대로 약한 사람들은 장애물 때문에 더 나가지 못하죠. 하지만 난 둘 다 무관합니다. 세상에 나의 적수는 단 두 가지, 물론 그것들이 날 패배 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결국 굴복시켜 주고 말 테니까요. 그 적수는 '시간과 공간. 세 번째 적수는 때가 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일반적 조건이라는 테두리에서 사회 관습, 환경, 직업, 가정 등은 우리가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의하여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기에 나는 여기서 니체의 운명애, 베르그송의 엘랑비탈로 향상성의 마음을 열면, 열린 사회는 새로운 도덕과 가치를 창조해 낸다고 보았다. 지적인 적수, 시간과 공간, 여기에서 시간의 귀중함과 공간의 소중함에서, 여기=Here와 지금=Now의 의미와 가치를 매번 평가하면서, 여기에서 상위 영역에 오르도록 가치 창조의 삶을 성찰함은 이런 독서 생활에서 기인한다. 그로 인해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된다. 낭비 없는 시간, 한 공간 안에서의 만남의 소중함에 '있을 때 잘해'가 진리임이 체득하게 된다.

또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생사관을 확실하게 가져야만 생명의 비약에 의한 창조적 진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죄지은 자는 벌을받고, 진실된 자는 어려움 극복하면서 이겨내야 산다는 것. 이과정에서 인간의 본성에 깔려 있던 잘남과 못남이 표출된다. 시기, 질투, 모함, 음모, 야합, 신분 상승의 욕구, 권력 지향성, 권력의 횡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체험되고 있음을 경고해 주고 있다.

한편 인성 속에 연민과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 있다. 하여 나는 본 소설을 평한다. 순자의 성악설, 카뮈의 거짓말, 칼 룡의 그림자원형 그 모두를 이 소설에서 드러내놓고 있다. 특히 탈다이의 세계관 확립이라는 명제와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에 대하여, 베르크송의 삶의 진화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이 독서를 통하여 얻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직관의 삶을 살 것이냐? 개념의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각 개인의 독서 역량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자연은 절대 평등하다. 자연은 절대 용서가 없다. 신은 용서가 있다. 인간은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심은 대로, 가꾼 대로 거둔다. 니체가 내세운 디오니소스의 가치 창출은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가게 향상성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불행도 없다. 그저 한 상태를 다른 상태와 비교 할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큰 불운을 겪은 자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대는 죽으려 했으니 이제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두 아이여, 이제 살아서 부디 행복하기를. 인간의 모든 지혜는 단 두 마디의 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기다려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이 소설 641쪽에서 발췌한 에드몽 당테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말이다.

이 말은 우리네 삶은 안정을 추구하는데 초점이 있다면 그 안정은 쉼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 즉, 돈키호테 같이 남을 도우며 모험을 향하여 움직여야 하고 삶의 안정성은 자전거 페달을 밟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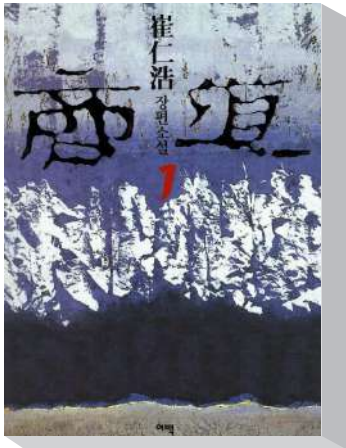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그 어느 것이나 제 필요에서 만들어지고 표출된다. 모든 존재는 필요에 의하여 생겨났다. 나, 역시 이 지구에, 이 나라에, 우리가정에 필요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 필요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 본다.

6. 참고 자료 - 이 소설에서 되새김 할 문장과 말은?

1. 나도 모르게 반역죄로 살고 있지만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프랑스인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P.58)
2. 빌포르는 야심이 대단한 자라고, 출세를 위해선 뭐든 갖다 바칠 자이지, 자기 아버지도…… (P.67)
3. 루이 18세의 방어는 무력했다. 그가 간신히 다시 세운 군주 정부는 기반을 미처 다지지 못한 탓에 허무하게 흔들렸다. 낡은 고정관념과 새로운 사상이 변칙적으로 뒤섞여 세워진 기이한 권력은 나폴레옹의 단 한방의 공격에 무너져 버렸다. (P.70)

4. 죄를 저지르는 데는 탁월한 능력이 있지만 일상의 삶에 대하여는 평균적 지능밖에 갖지 못한 대부분의 인간들이 그러하듯이. (P.78)
5. 지금까지 내가 궁리한 계획은 모두 사물만 상대했다는 거네. 이젠 사람을 상대해야 하잖나? 나, 벽을 뚫을 수 있다지만, 사람의 가슴을 뚫지 못할 것 같네. (P.106)
6. 손가락을 찢어서 피를 잉크 삼아서 글을 썼고. (P.110)
7. 이프 성채의 묘지…… 이곳은 죽어야만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니 그래 죽은 자가 되어보자. (P.143)
8. 광학 현미경으로 인간을 보면 애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인가 하고 있다고 불릴 만한 가치를 지닌 일을…… (P.304)
9. 나의 적수는 시간과 공간이다. 죽을 수 밖에는 없다는 인간의 조건. (P.307)
10. 인간은 제안할 뿐, 선택은 신이 하나니까…… (P.335)
11. 속마음을 숨길 줄 아는 건 여자들뿐이야. (P.359)
12. 범죄를 저지른 인간이 신의 눈길을 벗어나 있다면 저자가 범인이다. 말할 자는 의사의 임무다. (P.431)
13. 아기가 산채로 정원에 묻혔는데 범죄가 아닌가요? 아기가 산 채로 묻혔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죽었다면 왜? 여기에 묻겠습니까? 정원이 묘지도 아닌데. (P.366)
14. 기다려라 희망을 가져라. (P.641)





『상도(商道)』

『상도(商道)』
저자 최인호

1. 줄거리

조선 순조때(1800~1834) 의주 인삼 무역상 점원 임상옥(林尙沃, 1779~1855)이 북경에 인삼을 팔러 가서 그 일행과 함께 술집에 갔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된다. 그 여자아이의 사정을 들으니 딱했다. 가정이 가난하여 술집에 팔려 왔다는 말을 듣고 인삼 판 돈으로 아이를 구해주었다. 돌아와 인삼 무역상 주인에게 돈 쓴 사실을 실토했다, 주인은 평소 임상옥의 사람됨을 믿어 그대로 점원으로 일하게 했다. 하여 임상옥이 몇 차례 북경으로 인삼 팔러 갔는데 북경 상인들이 모의하여 인삼 불매운동을 벌이자, 그는 팔려던 인삼을 불태우려 하였고, 이에 북경 상인들이 굴복하여 인삼을 제값 받고 팔면서, 인삼 무역상으로의 지위가 견고해졌다. 한편 임상옥의 도움으로 풀려난 그 소녀가 운이 열려 청나라에서 큰 벼슬을 하는 사람과 혼인하여 마님의 자리에 오른다. 그 마님이 어릴 때 신세 진 조선의 임상옥을 찾는다는 광고를 내니 너도나도 다 임상옥으로 나섰지만, 마님은 진짜 임상옥을 가려낸다. 그리고는 인삼 무역에 음양으로 도움을 주니 임상옥이 인삼 무역에서 날개를 달고 인삼 거상(巨商)이 되었다.

그 시대 흥경래가 역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삼상회 점원으로 들어와 일하는 것을 보고 임상옥이 세상 보는 안목으로 흥경래를 원만하게 내보내어 후일 흥경래 난의 피해를 예방했다. 빈민 구제 등 재물을 따뜻하게 쓰니 주위의 평판이 좋아 벼슬에까지 오르고 목민관으로서 선정을 베풀다.

임상옥은 부(富)가 쌓이자 계영배(戒盈盃)라는 술잔을 옆에 두고 스스로 한없는 욕망을 다스리는 처세의 삶을 살아 후대 상도에 밝고 맑은 이름을 남겼다. 상인의 표본이며 신망이 높아 군수의 자리에 까지 올라 목민관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지금도 그 이름이 빛난다.

우리는 계영배 이야기에서 한 수 배워야 한다. 계영배를 만들게 된 스승과 도공 우명옥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 광주요(窯)에 한 늙은 도공이 새로 들어온 젊은 도공(우명옥)을 눈여겨보니 도공으로서의

재능이 있어 보여 잘 지도하였다. 이에 힘입어 우명옥이 설백자기(雪白磁器)를 만들어서 그 명성이 높아지자 우명옥이 도공 일은 뒤로 하고 주색잡기에 미쳐 방탕할 때, 그 늙은 스승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스승 자신이 명석말이까지 하면서 그 젊은 도공을 제자리에 오게 하여 다시 도공 일을 연구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이 계영배(戒盈盃) 일명 절주배(節酒盃)이다. 7부쯤 술이 차면 술이 새어나가는 잔을 통해 임상옥은 자신의 욕구를 억제할 수 있었다. 이 계영배가 말없이 실행하는 7부의 선을 깨닫고 자신의 한 없는 욕구(慾求)를 다스린 삶에서 임상옥이 밝고 맑은 삶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2. 독자로서의 깨달음

임상옥의 일대기에서 나는 아래와 같은 인성(人性)을 배웠다.

1. 임상옥이 북경에서 소녀를 구해준 그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인(仁)이다. 이 측은지심의 발로가 임상옥의 바탕이 되어서 주인으로부터 믿음을 얻었다.
2. 수호지심(羞惡之心)은 의(義)라 한다. 북경 상인들의 인삼 불매운동에 맞서 정면 돌파, 인삼 값을 제값 받았다.
3. 사양지심(辭讓之心)은 예(禮)라 한다. 흥경래를 잘 설득하여 예(禮)를 갖춰 인삼상회에 후한 이 없이 내보냈다.
4. 시비지심(是非之心)은 지(智)라 한다지요. 계영배를 옆에 두고 깨달음을 실천한 삶이 위대하다.

우리가 일상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나대는 사람을 일러 "싸가지 없는 놈" 이라고 욕하고 무시함은 위에 열거한 네 가지의 인성 즉 4단(四端)가지 없음을 된소리로 발음하니 "싸가지 없는 놈"이란 금수와 같은 취급당함을 알아야겠다. 일찍이 사람 인성의 기본적 덕목을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의 다섯 가지로 본다.

신(信)은 光名之心이라 이는 스스로 중심을 잡고 바르게 처신하여 그 언행(言行)에서 빛이 나는 인성인데 신(信)은 곧 믿음이라 했다.

우리는 사람을 평판할 때 인품이 어떠니, 인격이 어떠니 하는데 인성(仁性)이 팔덕(八德)을 고루 갖춘 사람을 인격자라 호칭한다.

인성 팔덕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충(忠), 효(孝), 제(悌)이다. 나는 이 상도 인물 임상옥이 인, 의, 예, 지, 신 오상을 갖춘 인품으로 인하여 상업에 성공하였고, 나가서 충(忠)과 제(悌)를 실행하고자 계영배를 간직하여 끊임없는 자기 수련으로 살아서 한 고을 원님, 군수의 벼슬에 올라 목민관으로 선정을 베풀어 그 이름이 현재도 빛나고 있다고 본다. 인성 바탕에 오상(五常)은 물론

팔덕(八德)을 지닌 위인이라 『상도』의 임상옥을 계영배와 함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산다.

임상옥의 어록을 교훈 삼아 되새김 본다.

재물은 평등하기를 물과 같고(財上平如水), 사람은 바르기를 저울과 같다(人中直似衡), 물과 같이 움켜질 수 없는 재물을 독점하려는 자는 반드시 재물에 의하여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사람이 저울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자는 재물에 의하여 파멸은 맞은 것이다.

또한 임상옥은 장사에 대한 소신을 이렇게 말한다. "장사는 이윤이 아닌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사람이야말로 장사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문이며 장사하는 과정에 신용이야말로 최대한의 자산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임상옥은 팔덕(八德)을 구비한 인품에서 거상으로 성공하였고 목민관으로도 빛났다. 상도(商道)의 본보기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인물로 각인되고 있다.

그 인성을 익히 배우며 실천함에 게으름이 없어야겠다. 특히 계영배의 7부 능선의 원리는 나 스스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크나큰 위안으로 다가온다. 이 책은 내 삶의 좌표를 안정화하는데 등대가 되었다.



용진 RE·VIEW

장봉도 구황시혜불망비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 전시회를 가다
바닷길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인천섬

1901년 신축대기근

사재를 털어 장봉도 주민을 살린 참봉 조용교, 진사 이정훈을 기린다

장봉도 구황시혜불망비

최이현(웅진문화원 대리)



장봉출장소 내에 위치한 조용교, 이정훈 구황시혜불망비

1901년 신축년 봄, 전국에 발생한 가뭄으로 대흉년이 들었다. 계속된 가뭄으로 전국에서는 기우제가 행해졌고, 모가 말라 죽어 이앙하지 못한 곳이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심각한 가뭄은 대기근으로 이어졌고, 배고픔에 허덕이던 백성들은 절도라도 해서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야 했다.

당시 궁내부¹⁾ 특진관²⁾이었던 조병세(趙秉世)가 그해 농사의 형편을 묻는 고종에게 "농사 형편이 심하여 보기 참혹하였습니다. 지금 경기, 충청, 전라, 황해 등지는 주민들이 떠나 열 집 중 아홉 집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³⁾ 황현(黃玹, 1855~1910) 역시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 "서울에서 구휼을 실시하여 굶주린 자를 조사하였더니 19,683명이었고, 동사(凍死), 아사(餓死)한 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으며, 온 가족이 독약을 먹고 죽기도 했다"고 전했으니,⁴⁾ 당시 대기근을 겪었던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된다. 하물며 본래도 물자가 풍족하지 않았을 섬마을 백성들에게 닥친 대기근은 어떠했을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1) 갑오개혁 때 왕실에 관한 모든 일을 맡아보던 관청. 고종 31년(1894)에 설치하여 융희 4년(1910)에 해체되었다.

2) 궁내부에 설치되어 왕실의 전례나 의식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던 관직

3) 『고종실록』 권 41, 고종 38년(1901) 9월 27일

4) 『매천야록』 권 3 신축년(1901) 12월

웅진군 북도면 장봉도 장봉 2리 평촌에 위치한 장봉출장소 앞에는 전참봉조공용교구황시혜불망비(前參奉趙公鏞教救荒施惠不忘碑) 진사이공정훈구황시혜불망비(進仕李公鼎薰救荒施惠不忘碑)라고 적혀 있는 비석이 하나 서 있다. 높이 114cm, 폭 38cm, 두께 19cm로, 양면에는 다음과 같이 내용이 새겨져 있다.

(전면) 좌 高尚其志 俗人難從 憂樂相同 亞訓助農
우 惟公德望 一島頌清 積而能求 類以得生

(후면) 光武六年 三月 日立

고상한 그 뜻 속인은 따르기 어려우니 근심과 즐거움을 서로 같이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농사일에 힘썼다.
생각건대, 공의 덕망과 청렴함이 온 섬에서 기려지니 쌓은 공덕으로 능히 구하여 우리 모두 살 수 있었다.

광무 6년 3월 건립

'구황시혜불망비'는 흔히 '시혜불망비'라고도 하는데, 흉년 등으로 인해 기근이 심할 때 빈민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도록[구황(救荒)] 베풀어 준 은혜[시혜(施惠)]을 잊지 않겠다[불망(不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기근이 닥친 1901년은 고종 5년에 해당한다. 당시 대한제국은 고종의 주도하에 근대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조선을 둘러싼 러시아, 일본, 청나라 등 주변 열강의 간섭이 본격화되고 급기야 세력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민란과 의병 활동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뭄으로 인한 대기근까지 발생하자 전국은 황폐해지고 빈곤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였다.



< 매일신보(每日申報) 1916년 4월 28일 3면 인천신사신상소개호(仁川紳士紳商紹介號)에 실린 조용교 관련 기사 >



비석 전면 상단에 새겨진 태극 문양

그런데 서울과 가까운 인천의 작은 섬마을인 장봉도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다. 1916년 4월 28일에 간행된 「매일신보」 조용교 관련 기사에 따르면, 신축년에 대기근을 당한 장봉도 주민들이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여 장년들은 그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노약자는 도로로 나와 통곡하니 눈 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비교적 육지에 가까운 섬일지라도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대기근의 재난 속에서 물자의 소통이 육지보다는 훨씬 더뎠을 것이고, 정부의 진휼 정책마저 원활히 미치지 못하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 장봉도 주민들을 구한 이가 참봉 조용교와 진사 이정훈이었다. 조용교는 서울 출신으로 명망가의 후손이자 부호였으며, 35년 전(1916년 기준) 장봉도로 이주해 25년간 거주하며 공익사업과 자선 사업에 힘썼다. 1901년 대기근 때 장봉도 주민들이 겪는 고통을 참을 수 없어 당시 인천 송현리(현 송현동)에 거주 중이던 진사 이정훈과 함께 각자가 소유한 금전과 곡물을 무료로 배부하고, 인천으로부터 200여 석의 곡물을 사들여 나눠주었다고 전한다. 이 일로 장봉도 주민들은 두 사람의 은혜를 잊지 않고자 1902년 3월 〈구황시혜불망비〉를 세우게 되었다.

1967년에 작성된 〈장봉도연혁(長峯島沿革)〉⁵⁾에 따르면, 조용교는 1884년 장봉도에 입도하여 1907년 서울로 진출하였고, 이정훈은 1894년 입도하여 1924년 서울로 진출하였다고 한다. 입도와 진출 연도에 대하여 「매일신보」 기사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2~30년간 장봉도에 머물며 주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 경비를 기부하는 등 후학 교육에 힘쓰고, 대기근 때는 몸소 나서 굶주린 주민들을 구제하였기에, 주민들이 그 공적을 직접 비석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고자 한 것이다.

그들이 장봉도에 입도하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두 사람의 입도 시기가 갑신정변(1884)과 동학농민운동(1894), 갑오개혁(1894)이 발생한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이때의 혼란한 상황을 피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두 사람이 입도하여 거주하던 동안 조정에 알려질 정도로 두드러진 행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정의 혼란을 피해 섬에 들어와 주민들과 정을 나누며 조용히 머물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5) 「인천일보」 2024. 4. 2. 「김석훈의 보물섬」 장봉도 구황시혜불망비」 재인용



대한제국 궁내부 출입표
(宮內府出入票, 고궁박물관 소장,
가로 7.7cm, 세로 12.6cm)에 표시된 태극 문양

한편, <구황시혜불망비>의 독특한 형태와 전면 상단에 새겨진 태극 문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비석은 비대(碑臺), 비신(碑身), 비두(碑頭)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비석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비두는 관석(冠石) 또는 머릿돌이라고도 하며, 형상에 따라 용두(龍頭), 이수(螭首), 가첨석(加檐石)이라고 부르거나 비두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장봉도 <구황시혜불망비>는 비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두를 얹은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게다가 그 가운데 태극 문양을 새겨 넣음으로써 비석의 품격과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 비석에 새겨진 태극 문양은 건립 당시(1902년)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여러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1901년 맞이한 대기근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나라를 대신해 자신들을 구제해 준 조용교, 이정훈 두 사람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자 했던 주민들의 순박한 마음의 표현은 아니었을까?

일상의 경험을 예술로, 배움의 흔적을 작품으로,
웅진문화학교 수업이 맺은 **전시의 결실**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 전시회를 가다

서혜인(웅진문화원 대리)

웅진문화원이 운영하는 웅진문화학교의 과정 중 하나인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은 이름처럼 예술을 향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강의실에서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붓을 들고 색을 입히는 그 순간마다 수강생들은 조금씩 자신만의 감각을 찾아갔습니다.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고, 그림을 오래 그려온 이도 있었지만,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시대 미술이라는 낯설고도 흥미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교육은 상반기 4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8주간, 하반기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또다시 8주간 이어졌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모여 이론을 배우고 작품을 실습하며, 때로는 서로의 그림을 감상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11명의 수강생이 끝까지 여정을 함



전시 개관 - 테이프 커팅식



전시 개관 - 축하의 장

깨하며, 오늘 드디어 배움의 결실을 전시라는 방식으로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강생들이 두 학기 동안 준비한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가득 번지는 색채 속에는 일상의 기쁨과 고민이, 섬마을 풍경 속에는 옹진의 바람과 바다가, 자유로운 선과 형상 속에는 자기 자신과 마주한 사유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배우고 작업했지만, 작품마다 뚜렷한 개성과 이야기가 있어 관람객들에게도 다채로운 울림을 전합니다.

옹진문화원이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가장 바랐던 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 소중한 과정의 기록이자, 앞으로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회원 분들에게도 이번 전시는 작은 축제와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작품 앞에 서면,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예술이라는 언어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을 찾은 분들이 작품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감정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옹진문화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예술을 통해 배우고,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시대 미술작가의 길>이 보여준 배움과 창작의 열정이 계속 이어져, 옹진 곳곳에 문화와 예술의 꽃이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전시가 그 시작점이자, 앞으로의 더 큰 걸음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전시 작품



<내 사랑 로이>
권경화



<Kiss-견우와 직녀>
김수원



<Memory>
김연숙



<칸타타(Cantata)>
김청미

전시 작품

ONLINE REVIEW



<먹염25>
김태욱



<호흡하는 갯벌>
신미현



<바라보다>
신영희



<어느 멋진 날>
양선자

전시 작품



<명상>
이용자



<속삭임>
장서하



<노닐다>
최수빈

전시 작품



권경화



김수원



김청미



김연숙



신미현

전시 작품



장서하



양선자

Plastic mannequin



이용자



최수빈

진도와 모도 사이의 바다 갈라짐

바다 갈라짐 현상 (일명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인천 섬

김기룡(사단법인 인천섬유산연구소 이사장)



무창포와 석대도 사이의 바다 갈라짐

1. 바다 갈라짐 현상이란?

바다 갈라짐(일명 모세의 기적)은 주변보다 수심이 얇은 지형이 간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이 생겨 바다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다. 바다 갈라짐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간조와 만조의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서해와 남해에 주로 분포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다 갈라짐 현상은 진도와 모도 사이(2.5km), 충남 보령시 무창포에서 석대도 사이(1.5km) 등을 비롯하여 12곳이 있는데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섬을 흔히 목섬이라고 부른다.

2. 바다 갈라짐은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까?

주변보다 수심이 얇은 지형이 저조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목섬과 해안선 사이의 조류(간조와



바다 갈라짐 현상이 형성되는 환경

만조 사이에 바닷물의 수평적인 흐름)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밀물 때(간조에서 만조로 진행되는 시간 동안) 조류가 서로 부딪쳐 조류가 약해져서 조류에 운반된 퇴적물이 쌓이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3. 인천 관내 바다 갈라짐이 일어나는 섬은 어디일까?

우리나라에서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곳으로는 인천의 선재도, 소야도, 경기도 제부도, 충남 무창포, 전북 하섬, 전남 진도, 경남 소매물도 등이 있다. 그러면 인천 관내의 섬 중에서 바닷길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섬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가. 선재도의 목섬

경기도 대부도에서 선재도로 진입한 선재대교를 넘어서 자마자 남쪽에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목섬(향도)이 있는데 2016년 미국 CNN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30선 중 제일 아름다운 섬으로 선정되어 사람들이 즐겨 찾는 섬이 되었다. 최근에는 목섬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선재도 해안에 전망대와 데크를 마련해 놓았다.



선재도 목섬 바다 갈라짐





용유도 조름도 바닷길 갈라짐

나. 용유도의 조름도

용유도 거잠포구에서 용유도 마시안 해안을 따라 나 있는 도로로 이동하다가 덕고 삼거리를 지나서 서쪽 바다를 바라보면 조름도가 보인다. 조름도는 간조 때 신비한 바닷길을 만들어져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섬으로, 들어가는 해안가 초입에는 다양한 형상의 암석들이 서 있다.



조름도 초입의 다양한 형태의 암석들

다. 대무의도의 실미도

대무의도 북서쪽에 있는 실미유원지 서쪽에 있는 실미도는 간조 때가 되면 바닷길이 열려 건너서 갈 수 있는 무인섬으로, 북파 부대(684부대)원들의 혹독한 훈련이 있었던 곳으로 <실미도> 영화로 알려지게 되어 주말이 되면 여행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신항정에서 바라본 승봉도 목섬 바다 갈라짐

라. 승봉도 목섬

승봉도 남동쪽 부두치해안에 인접한 목섬은 간조 때가 되면 걸어갈 수 있고 만조가 되면 바닷물에 덮여 독립된 섬으로 변하는데 승봉도 동남단 구릉에 설치되어 있는 신항정에서 바라보는 목섬의 풍광은 매우 아름답다.

마. 소야도의 갯섬-간뎃섬-송곳여-물푸레섬, 장군섬, 뒷목섬

소야도는 인천 관내 섬 중에서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목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기동마을 북쪽에 있는 장군섬, 선촌(큰말) 북서쪽 목바닥 해안에 있는 갯섬-간뎃섬-송곳여-물푸레섬, 소야도 뗏뿌루해수욕장의 서쪽 죽노골해안 남쪽에 있는 뒷목섬이 있다. 특히, 갯섬-간뎃섬-송곳여-물푸레섬은 인천에서 가장 긴(1,3km) 바다 갈라짐이 일어난



소야도 장군섬 바다 갈라짐



소야도 뒷목섬 바다 갈라짐

곳이고 죽노골 해안은 해송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해안으로, 차태연, 손예진, 이연주 주연의 영화 <연애소설>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소야도의 목섬 분포



자월도 목섬

바. 자월도의 목섬과 독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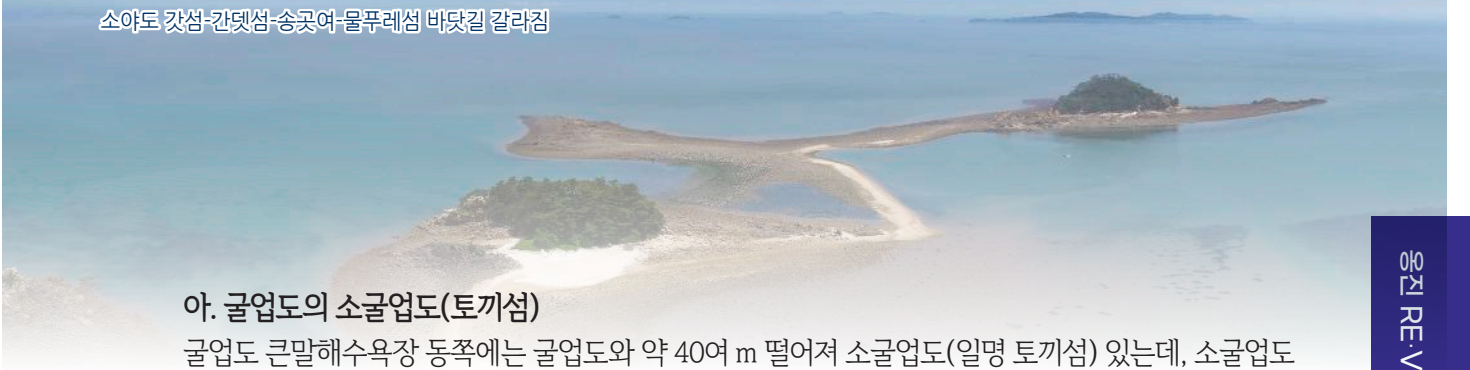
자월도의 목섬은 자월도 어류골 해안의 북서쪽에 있는데, 물때 관계없이 목섬에 갈 수 있도록 육교를 설치해 놓았다. 자월도 장골해수욕장 서편에 있는 독바위는 비교적 짧지만 간조가 되면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 들어갈 수 있는 목섬으로, 장골해수욕장과 인접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고 있다.

사. 덕적도의 솔섬

덕적도 북서쪽 있는 소재해안에서 북동쪽을 바라보면 덕적도와 약간 떨어진 솔섬에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식생하고 있는데 만조가 되면 독립된 섬이 되고 간조가 되면 걸어갈 수 있는 일종의 목섬이다.

국수봉에서 바라본 자월도 독바위

소야도 갯섬-간뎃섬-송곳여-물푸레섬 바닷길 갈라짐



아. 굴업도의 소굴업도(토끼섬)

굴업도 큰말해수욕장 동쪽에는 굴업도와 약 40여 m 떨어져 소굴업도(일명 토끼섬) 있는데, 소굴업도는 간조가 되면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고 만조가 되면 굴업도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섬이 된다. 소굴업도 동쪽 해안에는 수많은 해식동이 수평 방향으로 이어져 약 100m에 달하고 해식와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것으로,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정하였으나 소유주의 반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 끝으로 목섬을 여행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물때 시간표를 확인해야 한다.

굴업도 소굴업도 바닷길 갈라짐



소굴업도 해식와



덕적도 솔섬 바다 갈라짐








용진문예마당

시
수필
자유기고문
감상문
기행문
작품



착한 암

강명한(웅진문화원 회원)

기척도 없이 찾아온 착한 친구
이제 왔으니 언제 갈지...
눈치 없이 오래 있으려나!

내가 그리워 찾아왔나
갈 데가 없어 왔을까
왜 이리도 궁금할까

언제라도 간다고 큰소리치고 가시게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잡지는 않을까 하네
안녕히 가시게나
부디 안녕히 가시게나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갈 수 있다네
그다지 길지 않은 인생길 쉬엄쉬엄 가세나
그러게 힘들다고 진작 말을 하지 그랬나

콩 이후의 이름

김수원(김정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응진군협의회 부회장)

한때 딱딱했던 이름
 콩으로 불리던 이름이 가물가물하지만
 기억을 부수고
 짠물과 섞여

두부가 되었지만

나는 콩에서 왔지

한 이름으로 오래 못 가는 신념이어서
 판에 담기면 판모가 되고
 나누어 한 모가 되지
 어떤 이름이면 어때
 한 모든 두 모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한때 딱딱했던 이름이었는데
 꼬투리에서 나온 후로
 얻은 이름은 두부
 소박한 밥상에 두부는 그럭저럭이지만

무르다고 쉽게 넘어가지 마
 짠 음식으로 보지 마

당신에게 부드럽게 느껴질 뿐
 그거 알아요?

원래는 딱딱한 이름



어머니 전상서

문신진(시인, 웅진문화원 회원)

어머니 이제 일어나셔서 저희들을 맞아주세요.
어머니를 뵈러 형제들과
목사님과 생전에 형제처럼 지내시던 믿음의 식구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머니 말은 없으셔도
밤에는 하늘의 별로 반짝이시며
아침에는 영롱한 이슬로
저녁이면 풀벌레의 노래로 가까이 다가서시는 것을

어머니 기척은 없으셔도
평생을 주님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신 일과
당신의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이제 천국에서 전하시리라는 것을

육신의 땅에 계시지만
영혼은 천국에 계신 것을
어머니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생전에 늘
나 죽는 것 걱정 말아라
예수님 품에 안길 것이며 먼저 떠난 니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까닭입니다.

당신이 떠나시던 날도 화창한 오월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뵈러 온 오늘도 더없이 푸른 날을 주셨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불효하고 못난 저희들 다 용서해 주시고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하늘에 별이 되신 어머니
영원히 사랑합니다.

막내아들 올림.

용진군

송성춘(베라체 환경 대표)

해와 달이 함께하는 용진군
 바닷물에 밀려버린 저녁노을
 수평선 붉은 노을 가라앉을 때
 들고 나는 바닷물에 그려진 길
 바다 위 섬들은 한결같은데
 바닷물 들고나는 갯벌은
 늘 새로운 길을 안내한다

물이 차면
 물고기들의 아우성
 물이 나면
 뿔 아래 조개들의
 아귀다툼이 시작된다

서쪽의 붉은 노을은
 사람들을 부르게 하고
 산새들의 지저귀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은하수 속에 숨어버린다

먼저 걷는 사람의 이야기



안승환(웅진문화원 회원, 갯벌도예가)

이곳은 조용하다
시간은 바람보다 느렸고
갯벌은 오래된 침묵을 간직하고 있다

세상은 분주히 흐르고
나는 이 작은 섬에서
오직 흙과 손과 마음으로
작은 흔적을 남긴다

흙 위에 남은 작은 흔적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먼저 내는 사람으로

내가 머문 자리는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처음 걷는 길은 외롭고 무겁지만
그래서 더욱 진하다

그 무게는 곧 의미가 되고,
그 의미는 다음 사람의 용기가 된다

누구도 걸지 않은 길에
나는 먼저 발을 디뎠다

무겁고 낯선 걸음이었지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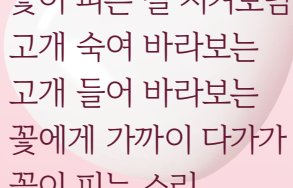
나는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걷는다.



사랑아


유희숙(한국산림문화회 이사)

1 사랑아




사랑으로 아플 때에는
몹시 보고 싶을 때에는
꽃이 피는 걸 지켜보렴
고개 숙여 바라보는
고개 들어 바라보는
꽃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렴
꽃이 피는 소리
가만한 손길이 나의 이마를 짚을 때

2 사랑아



입과 즐기 사이에
이만큼의 거리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보렴
꽃이 피었을 때
입과 즐기를 기억하지 못함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거나
둘 다 게으름에 지나지 않음을

3 사랑아



사랑으로 몹시 아플 때
꽃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렴
꽃이 피는 걸 지켜보렴
빛나는 즐기와
초록 잎
사색의 겨울을 건너온
나의 가슴에 귀 기울여 보렴
꽃이었음을 꽃이었음을 기억하렴

어부의 배가 아침을 열 때

이서연(시인, 한국산림문화회 부이사장)

바다 끝 저 너머로 건너간 해를 당겨
어둠이 비밀을 벗어던지면
필요한 말은 눈빛으로 빨려가고
불필요한 눈짓은 익숙해진 손발짓으로 흡수된다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그토록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들만
새벽 여명으로 달려 나오고
파도 밑에 찢려 둔 상처가
그물에 걸리지 않길 바라는
갈매기들의 통성기도
분잡하게 하얀 날개를 편다

이제는 나에게서 끝나라
약 다물어보는 순간
걸리다 만 물고기 도망가는 모습에
비릿한 미소를 보내는 건
이렇게 모든 삶을 던져 놓는 그물에
갖은 힘을 다해 나가는 몸뚱이가
얼마나 눈물겨운 몸짓인지 알기 때문

햇살이 퍼진다
멀리 날아가는 날개에 또 하루를 얹는다

바다여

이서연(시인, 한국산림문화회 부이사장)

나 대신 퍼렇도록 울어주는 그대여
그 품을 향해
찢어진 내 영혼을 던지나이다

내 핏물이 썩지 않게 춤을 추는 그대여
그 울동에 맞춰
허물의 속껍질을 벗겨가나이다

혹여 울게 되거든 지금처럼 웃어 주시고
웃음에 길들여지거든 채찍처럼 울어주소서

아무것도 아닌 날에도
못 견딜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한 나의 바다여, 바다여

푸른 최면

(부제 : 제7정복호)

이영노(웅진문화원 회원)

뱃전을 두드리며
춤추는 파도에

엉덩이 들먹이는
고깃배 하나

파랗게 때묻은
만선의 꿈을 좇아 온

비린내 가득 배인
어부(漁夫)의 자유

출렁이는 푸른 비밀에
가슴 설레어

어느 곳 흰하게
고향 바다를 누볐을
그의 천직(天職)



섬과 섬 속으로

이종근(웅진문화원 회원)

1.

용감하게 다녀올까
소위 바캉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개선할까

무더위를 땀내 짜듯이 사르는
여름의 여름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무쌍하게 無더위로 돌아올까

사나이가 출격의 포부를 밝히다

바다가 짙은 포구
바다가 사방을 감싼 바위섬
바다가 하늬바람 소리로 오가고

검붉게 물드는 수평선의 낙조
고운 물에 영롱히 비치는 해돋이
소사 나뭇잎이 푸르게 헤엄치는 바다

섬과 섬 속으로

2.

가볍게 땀나도록 워밍업 하는 시계태엽이다

팔다리로 활용한 시침과 분침이 삶을 스트레칭하고 여느 때와는 다르게 휴대 전화기 품속, 사진기를 만지작거린다 저 푸른 바캉스 공화국의 수도, 거리 풍속을 이방인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빨개진 뱃살을 드러내곤 한가한 점박이물범처럼 헤엄치고 있다

섬과 섬 속으로

3.

이정표에 적힌 대로 뱃길이 가달는다
산수화처럼 펼쳐진 뜨거운 풍광
바위섬에 머물다가
사나이가 걱정의 포부처럼 등땀을 환히 밝히고
바위섬을 더 적확하게 느끼고 있다

두 눈은 이만큼 해처럼 크고 둥글다
두 가지 주어진 여유로움
독서와 사색을
불타는 태양의 전면에서 내밀고
더 자유롭게
더 낯설게

섬과 섬 속으로

사바나식 옥상들

임경남(웅진문화원 회원)

아버지라는 種이 멸종되지 않은 이유는
담배 피울 때마다 몰려다니기 때문이다

아버지에게서 코끼리 발이 생긴다
코끼리의 발이 코끼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아버지의 다리도 아버지만의 것이 아니었나
오늘도 무리에서 이탈한 아버지
새벽 시장으로 나가시고
옥상에는 작업복만 남아 펄럭거린다
어디쯤에선가 코끼리 발로 쿵쿵 밟아
울퉁불퉁한 세상 평탄 작업하고 있겠지
세상은 종일 쿵쿵거리고
그러나 해지면 돌아와 옥상에 쪼그리고 앉아
사바나 서쪽 바라보며 담배 한 대 피겠지
엄마는 코끼리 등짝 후려치며 잔소리 늘어놓겠지
엄마가 늘어놓은 작업목들 펄럭여서
옥상에는
사바나 바람이 불고 사바나 석양이 지고
사바나는 넓어져서
건너편에도 또 건너편에도
작업복 펄럭이는 사바나식 빌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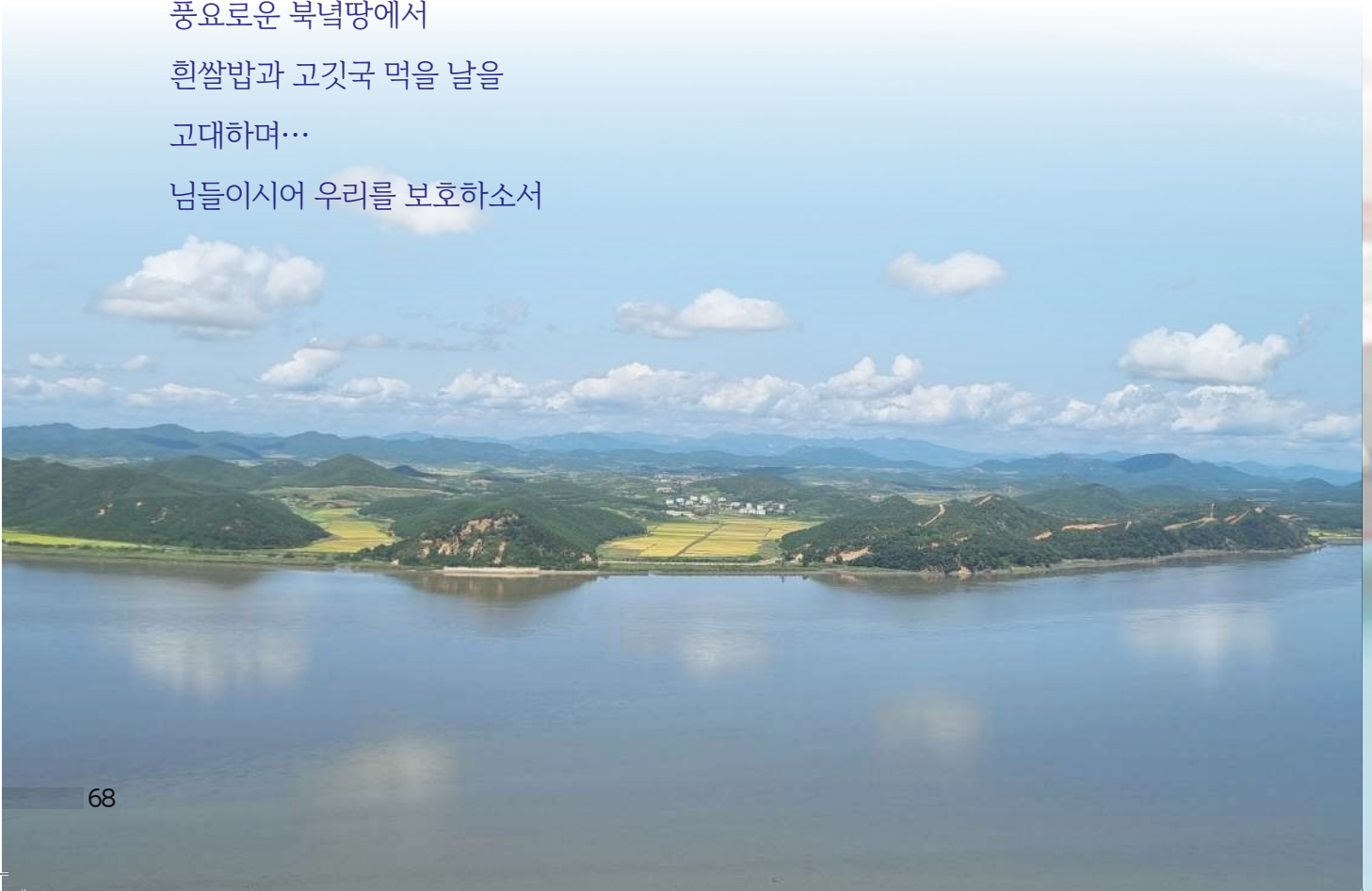
어느 동네나 있지
코끼리 귀처럼 펄럭이는 옥상과
코끼리 떼처럼 새벽마다 이동하는 아버지라는 種

*이성미의 시 「집의 형식」 중에서

愛妓峯에서

松岩 정철진(웅진문화원 이사)

황금물결 넘실대는 북녘들에도
가을이 찾아왔네
병자년에 끌려간
님들의 혼이 서린 곳
아! 가깝고도 먼 그곳에
흰 구름과 붉은 강만
조국의 산하를 넘나드는데
이 내 마음 그들은 알리오
풍요로운 북녘땅에서
흰쌀밥과 고깃국 먹을 날을
고대하며...
님들이시어 우리를 보호하소서



중환자실의 깨달음

강도영(웅진문화원 이사)

2025년 4월 22일, 이날은 내 생애 최대의 시련을 겪은 날. 평소처럼 노인 일자리에 출근하여 어제 아침부터 보지 못한 변을 보기 위해 마을 회관 화장실에 들어가 배변을 위해 배에 힘을 주는 순간, 생애 처음 느끼는 통증을 느꼈다.

숨이 막히고, 이마에 땀이 솟아나는 극심한 통증과 불안을 느끼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 동료들에게 호소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차 운전을 못하겠으니 나 좀 보건소에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시작된 투병 생활이 지금 5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다음 달 연휴가 끝난 다음 2차 수술을 받기 위해 체력 올리기에 노력 중이다. 1차는 응급 수술이었고, 생명은 구했으니 감사하고 다행이다.

2차 수술도 중요하고 만만치 않은 수술이라 집도의 말씀이 자신은 힘든 수술이 되겠지만 환자인 나는 1차 때보다 회복이 빠를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환자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인 줄로 알지만,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라는 말씀이 있어 막연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회 원로 장로된 사람으로서 믿음이 약한 자신이 부끄러운 것도 숨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부하게 나열하기가 쑥스럽지만, 이번 시련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다.

자월보건지소에서 진료 결과, 장폐색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속히 이송이 필요하다고 하여 닥터헬기를 요청했으나 일기 불순으로 헬기가 못 온다는 소식에 나는 순간 '참 복도 없는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은 잘도 이용하던데 이 상황에 헬기가 못 온다니. 이대로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의식이 가물가물하고 아파서 정말 일분일초가 급한데 문득 하나님께 속으로 이런 기도를, 아니 항변을 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것이 많은데 반성하고 회개할 시간도 안 주고 불러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 염치도 없고, 가증스러운 생각이 아닌가.

살아나고 나니 많이 부끄러웠다. 감사하게도 면 행정선이 대기 중이었고, 바로 출발하여 한 시간 운항으로 연안부두에 도착, 인하대병원으로 직행해 때를 놓치지 않고 응급 수술로 생명을 구했다. 수술 후, 집도의 선생님께서 좀 늦었으면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으니, 행정선 선장님과 선원들, 함께 해준 119 대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평소 허약한 체질로 병원과 약국을 자주 찾는 형편이지만 큰 수술도, 병원 치료도 처음 겪으면서 평소 가지고 있던 병원 의료진들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면 의사를 찾고 병원을 찾으려 하면 일부 의료인들의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다 그런 것처럼 비판적 생각을 한 것이 얼마나 심각한 편견이었는지.

잘못되면 평생 불구의 몸으로 불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는 부상자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살아날 확률이 10%도 안 되는 환자를 살려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의사, 간호사들의 봉사와 희생 정신을 체험했다.

특히, 내가 항생제 내성균이 생겨 격리 병실로 간 후 중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 영양보호사들의 근무 실태를 보면서 '나는 못하겠는데, 나라면 하루도 못하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문득 '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다. 지금까지 내 혈육, 내 가까운 이웃, 교회 식구들 생각만 하고 기도해 왔던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날 이후 나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다. 전 세계의 모든 환자들,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 기도한다. 물론 보잘 것 없는 나의 기도가 모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의료진들, 특히 간호사, 영양보호사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축복을 주시기를. 또한 입원 중

문병차 방문하셨던 형제, 이웃들, 문화원 원장님과 국장님, 동료 이사님, 전화와 메시지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그 위급한 중에 나를 살려 주신 의사 선생님이 서지현 교수라는 여의셨는데, 내가 상처 부위 소독을 받을 때 아파하고 고통을 호소하니 당신이 어려서 심장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기에 환자의 고통스러움을 너무나 잘 안다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2차 수술을 앞두고 믿음이 더 가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에 임할 것 같다.

이번 일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체험을 하니 건강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가족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과 평소에 항상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한다. 언제 어떻게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일 할 기회가 있거든 내일로 미루지 말자. 나에게 내일이 주어질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 내게 허락된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 지금의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다짐하며, 지금도 질병과 상처의 고통 중에 있는 전 세계의 모든 환우들과 그들을 치료하느라 수고하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독서, 나의 스승님

강도영(웅진문화원 이사)



내가 소설을 처음 읽은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때 『15소년 표류기』라는 책이었다. 1950년대 책이 흔치 않던 시절, 서해 조그만 섬 자월도에는 정말 책이 귀했을 때인데, 서울에서 신학교에 다니던 형님이 방학 때 갖다 주신 책이었다. 상·하 2권으로 된 책인데, 상권만 있어 뒷이야가 무척 궁금했지만, 구할 방법이 없어 읽고 또 읽어 내용을 다 외웠던 책. 몇십 년 후 인천 배다리 헌책방에서 어렵게 하권을 샀는데, 책이 아주 얇아서 실망스러웠다. 그럴 거면 한 권으로 낼 일이지 그렇게 궁금증을 주고는 몇십 페이지 안 되는 마무리가 허탈하기까지 했다.

다음으로 읽은 책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작은 잡지였다. 그 책에는 당시 유럽 쪽의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섬은 귀족이나 큰 부자들의 별장으로 사용되어 섬 땅값이 육지 땅값보다 비싸다는 내용이였다. 그때 그 책을 읽고 지금도 나는 자월도도 언젠가 아주 비싼 섬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부질없는 생각이지만 여기가 내 고향이니까.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기독교적 소설이다. 이 책은 수십 번 읽어 내용을 다 외우고 있다. 기억이 맞나 모르겠지만, 등장인물은 주인공 리기아, 경호원 우루스, 로마군 장교 페트로니우스였다.

이렇게 책이 귀한 시절, 책 읽기에 재미를 알았지만, 성장한 후 삶이 고단하다 보니 책을 접할 기회도 없었고, 30~40대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 성경이나 성경에 관한 책을 주로 읽게 되고, 일반교양서적은 접할 기회가 없이 지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약간의 지식과 양식은 독서에서 얻은 것들이다. 흔히 하는 말로 가방끈이 짧은 나는 틈틈이 접한 몇몇 권의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기에 내 글은 문맥이나 철자, 맞춤법 등 어디 투고한다고 내놓을 만한 글이 못 된다. 이런 글도 마다하지 않고 실어주는 문화원이 아니면 어디에 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 문화원에서 보급해 준 양서들은 어느 책, 어느 내용 하나 가벼운 것이 없었다. 다 감동적이고 지식으로 받아들여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양서에서 마음을 울린 내용을 말해 보자면, 우리 사회의 현 시국, 특히 정치인들의 행태를 언급한 부분이 내 생각과 일치하여 속이 시원했다.



그들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 태동철 원장님을 말해야겠다. 한두 마디로 칭찬해서는 안 될 분이다. 문화원 원장님으로 이런 분을 초대부터 모시게 된 것은 우리 웅진문화원의 크나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이번에 떠나시면 후임 원장님도 이런 분을 모셔야 할 텐데 쉽지 않겠지, 걱정도 된다. 바쁜 일정 중에 언제 그렇게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도 하고, 놀랍기도 하다. 책을 읽어보지 않고 1년에 두 권씩 그렇게 좋은 책을 선택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두서없이 쓰다 보니 나 같은 사람도 어울릴 기회를 주신 우리 원장님과 웅진문화원에 감사드린다. 웅진문화원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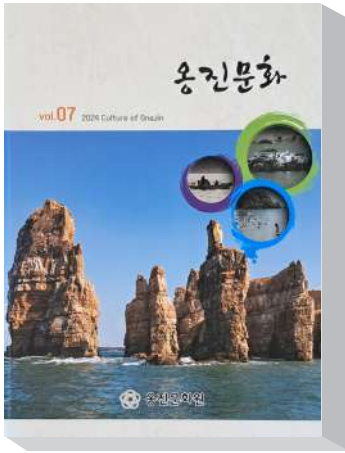
용진문화원과 함께 한 8년

곽인화(용진문화원 회원)

용진문화원과 함께 한 지 벌써 8년이 됐다. 작년 11월 29일에는 하버파크호텔 대연회장에서 오후 4시부터 제1회 용진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열었다. 식전 행사로 용진문화원의 성과를 보여 주는 영상을 시작으로 풍물, 밴드 동아리 등 축하 공연으로 시작하여 본행사는 오후 5시 20분에 개회식을 시작하여 5시 40분에 태동철 원장님의 축시를 임경남 작가가 낭독, 용진군에서 활동하는 관현악, 전통악기, 밴드, 무용 부문과 특별 공연 팀으로 나누어서 시상하고 수상 팀 축하 공연을 했다. 오후 6시 30분경부터 오후 8시까지 만찬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 사회자와 진행 요원이 진행해서 더 매끄럽게 행사 진행이 된 것 같다. 이외에도 1층 로비와 2층에서 용진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또 캘리그라피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어 있었다.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치는 걸 보며 용진문화원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뿌듯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는 용진문화원 창립 때부터 함께 했다. 2016년에 창립 회원을 모집할 때 지원했고 2017년 용진문화원 창립총회에서 태동철 원장을 추대하였으며 2018년 2월 정기총회 및 개원식을 개최했다. 『용진문화』 창간호에 내 글 「영흥도의 풍광과 그 매력(수필)」, 「백령도 문화유적 탐방을 마치고(기행문)」가 실렸다. 그 후 해마다 《용진문화》지에 내 글을 게재하고 있다. 그리고 양서 보급 사업으로 일년에 두 차례 좋은 책을 집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좋다.

매년 봄, 가을에 1박 2일로 문화 탐방을 개최하는데 대부분 참가했다. 봄가을로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덕적도, 장봉도를 다녀왔고 영주, 강릉에도 다녀왔다. 그 밖에도 영흥면에서 다도·다례교



육, 토털공예, 마크라메 보석공예 등의 교육에 참가하여 새로운 것을 접할 기회를 얻었다. 작년 하반기에는 옹진문화학교에 다녔다. 영흥도에서 인천까지 다니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많은 것을 배우고, 즐기는 과정이라서 유익했다. 파주로 졸업 여행도 다녀왔는데 그 여행을 통해서 옹진군의 다른 섬에 사는 분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어떤 분은 옹진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접하시고는 이런 교육도 하는지 몰랐다고 좋아하셨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화원을 알리는 기회가 된다.

옹진군에 여러 기관과 단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옹진문화원 회원에 가입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기회가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옹진문화원 회원이 될 것을 권유하곤 한다. 2018년 창립 때 임·회원이 모두 94명이었다. 2025년 제8차 정기총회 시 307명으로 3배 이상 회원이 늘어났다. 이는 태동철 원장님과 윤삼용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직원들과, 문화원 임원 및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옹진문화원의 번영을 소망한다.

옹진문화원



낙시

김근중

보릿고개 힘겨워 어제의 소년이 백발이 다 되어 찾아온 해당화 피고 지는 고향땅 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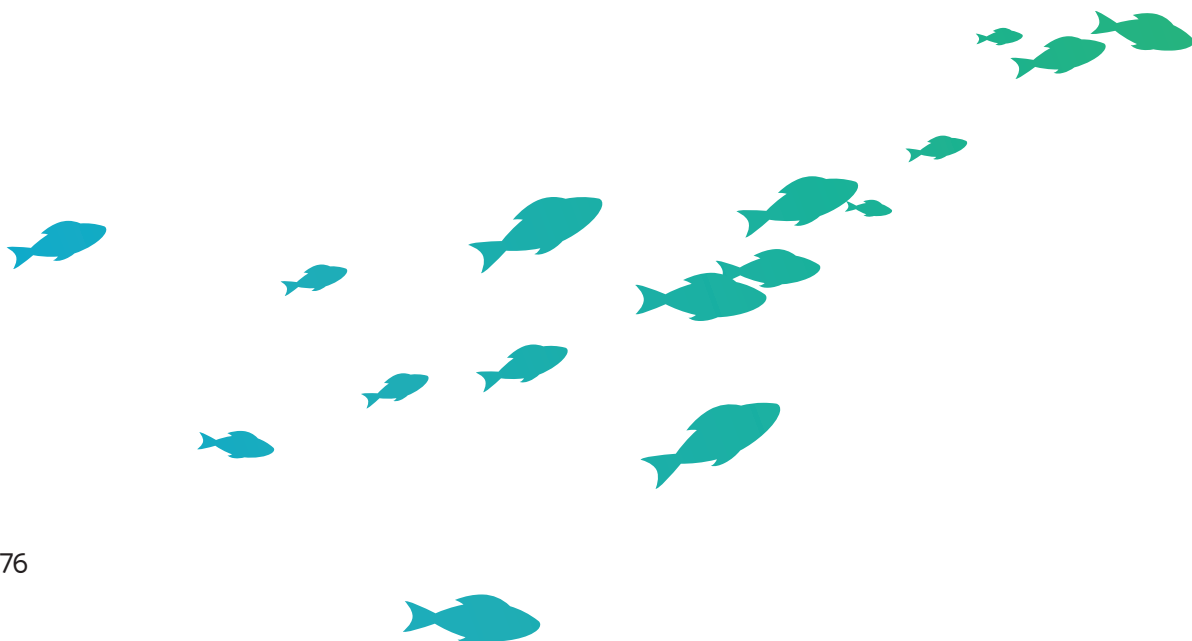
시시각각 모습이 바뀌는 평화로운 바다 풍경은 변함없구나. 물 때 따라 달라지는 사리 때의 성난
밀물은 골 깊은 바닷가 개펄을 빠르게 집어삼킨다.

차오르는 그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쉽 없이 초릿대를 툭툭 치며 알 수 없는 설렘에 나를 끌어당겨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선사할까.

인천국제허브공항 무수히 뜨고 내리는 비행기 굉음 소리도 잊은 채 온몸이 촉각 되어 초릿대를 감
촉한다.

쉽 없이 간죽대는 잡어들의 입질에 어느샌가 땅거미 내려앉은 바다 어둠에 묻혀 파도 소리 횡설수
설 삼킨 개펄을 토해 낸다.

아~ 나 바보는 삶에 대한 집착과 집념만으로 툭툭 치는 잡것들의 입질에 게도 구력도 모두 잃어
버리고 옹골차지 못한 나를 미워하며 회한의 세찬 바람 맞아가며 황혼의 안식처 신도의 매력에 흠
뻑 빠져든다.



공공근로

김근중

죽는 날까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다. 젊은 날보다 더 움직이라는 슬로건을 벽에 걸고 매일 아침 출근길 눈도장을 찍고 집을 나선다.

늘그막 일자리 살섬(시도) 웅진문화센터, 잃지 않는 밥맛에 손 놓을 일 없어 늘 부지런히 일한다.

이른 봄 꽃망울 터지는 설렘에 넓은 뜨락 목련은 활짝 피어나고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소중한 옛날과 두런두런 이야기할수록 비질은 가벼워진다.

들물에 세찬 바람 불어 우수수 떨어지는 빛바랜 목련 꽃잎 손 잔 중 비질하듯 따라보니 그새 단풍 나무 잎새가 무성하구나.

펄펄 끓는 여름은 금방 오겠지만 이젠 계절의 감각도 무딘 채 일터로 출근한다는 아침의 행복으로 향훈을 마냥 즐긴다.



새로운 취미

김미현

남편이 군인이다 보니 3년 전 서해 최북단 섬인 백령도까지 오게 되었다. 높은 빌딩보다는 푸른 나무와 들꽃들이 넘실대고 사람보다는 바람을 마주하는 날이 더 많은 백령도, 일상에 습표가 자연스레 생겼다. 나무와 들꽃들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코끝을 스쳐가는 바람과 향기에 집중하게 됐다.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과 섬세하게 음미하는 일이 많아졌다. 노트북을 열고 내가 느낀 것들을 한 자 한 자 적어본다. 섬 살이 4년 차, 이렇게 글을 쓰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아이와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 가게 사장님과 있었던 일화, 주말 속 풍경 등 일상의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되었다. 그냥 흘러보낼 수도 있는 일들을 조금씩 적어가며 오롯이 내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았다. 글을 쓰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 백령도에서의 여유가 아니었다면 이런 힐링을 느낄 수 있었을까. 새삼 백령도에게 고마웠다. 삶의 또 다른 재미를 찾게 해 줘서.

백령도로 오기 전, 주변의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다. "거기 북한이랑 가까운 데 괜찮아?", "섬이라 아무것도 없을 텐데 불편하겠다.", "심심해서 어떡해." 등 다양한 걱정들로 관심을 주었다. 나도 살짝 걱정은 되었지만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이니 괜찮겠지.'라고 애써 위로하며 걱정 반, 기대 반으로 백령도에 들어온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걱정했던 것들이 오히려 좋은 점이자 기회였던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특별한 곳에 살고 있고 최전방이어서 국방태세를 더 철저히 하고 있으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물건을 구하기가 힘드니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된다. 무엇보다 심심하니 내가 무엇을 하면 즐거울까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를 보살피고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어느 날, 아이가 물었다. "엄마, 나 심심해. 뭐할까?", "재호야, 엄마는 심심하면 글을 쓴단다. 네가 즐거울 때는 언제야?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한번 찾아보렴."



바위에 묻은 달빛 분 바위

김용덕(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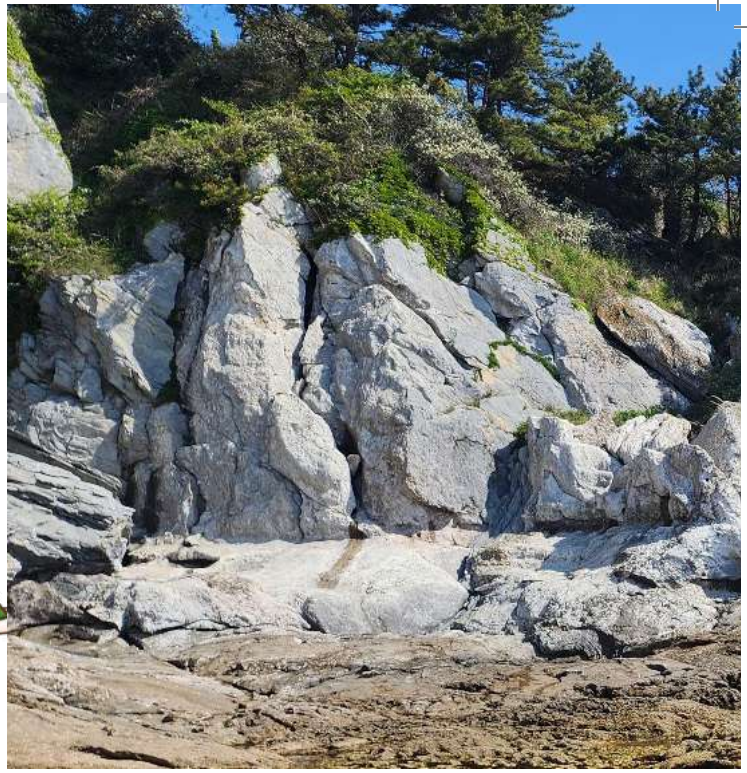
백령도로 가는 길이다. 물결을 가르며 바다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정하게 휘어간다.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만들어진 연안부두에는 다양한 사연들이 살아 숨 쉬며 수련대는 것 같았다. 여객선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옷매무새에 파도의 물결이 출렁인다. 멀어져 가는 뱃고동 소리에 밀려간 물결에 휩쓸려간 이런저런 아득한 사연들이 모래사장으로 밀려가 켜켜이 쌓여있을 것이다. 게다가 큰 파도가 휘몰아치면 우리들의 염원까지 휩쓸고 갔으리라. 그렇게 모래사장 속에 쌓이고 쌓인 수많은 사연을 뒤로한 채 수평선 물결을 가르며 여객선은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푸르른 햇빛이 파도에 부서지면서 밀려가는 배는 따스한 봄바람과 서해안 초록빛을 물들이며 순항을 거듭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출항한 여객선은 3시간 30분에 소청도에 도착해 승객들이 내리자 바로 출발 했다. 그리고 3시간 40분에 대청도에 이르렀다. 잠시 머물다가 곧바로 서해의 끝 섬인 백령도에 약 4시간 만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여러 시간에 걸쳐 배를 탔던 때문에 백령도에서 하선을 하고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울렁울렁 배멀미를 하는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인천 연안부두에서 약 4시간 걸리는 백령도는 간혹 찾았던 적이 있다. 하지만 백령도에서 지척에 위치한 대청도와 소청도는 수평선 위로 사라져 가는 물결에 손을 흔들며 안부를 전하기만 했던 곳이다.

지난해 끝 무렵에 백령도에서 대청도, 소청도를 왕래하는 뱃길이 신설되었다고 해서 일정을 계획한 것이다. 섬은 낯선 여행객들을 내치거나 푸대접하지 않고 다소곳이 맞이해 주었다. 처음 찾은 여행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후속적으로 여행들이 줄지어 찾게 될 것이다. 항구에 서서 신비롭고 넉넉한 바닷길을 바라보니 파도에 실려 밀려오는 비린내 같은 바람도 물거품처럼 부서져 전해지고 있었다.

다음날 소청도로 가는 여객선에 올랐다. 이른 새벽 희뿌연 안개가 흰꽃으로 날리며 출렁이는 물결에 은빛 화환을 걸어주고 있었다. 선상에서 바라보는 초록빛 바다에 흠뻑 젖어 하얀 포말들은 알 수 없게 마음을 흔들며 설렘을 더해갔다. 또한 미지의 세계가 바다에 닿아 있는 것 같았다. 수평선 위로 사라지고 비워지는 마음 한쪽의 빈자리를 자연이 빚어낸 신비한 소청도의 바위섬이 채워가고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소청도는 새벽안개에 싸여 신비의 섬 같았다. 막상 부두에 정박한 배 주위의 바위에는 거무튀튀한 굴 껍데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대양의 물결을 밀어 올리고 떠오르는 아침



해에 비추어진 소청도는 순박하고 청순하게 투영되었다. 서해의 끝 섬 중에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는 살아있는 지질박물관으로 10억 년 전에 형성된 지층과 연흔(蓮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한 반도의 지질 명소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이 관광안내판에 적시되어 있었다. 소청도의 석회암 바위섬에 오르는 길은 바다에 자란 해조류가 파도의 물결에 너풀거리듯 널브러져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 산은 어깨를 낮추고 가파른 길을 안내하며 등 위에 올라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기도 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바다 파도 물결은 넉넉한 햇살 속에서 아직 꺾매지도 못한 바짓가랑이처럼 갈라진 바닷물을 섬을 한번 때린 파도가 와서 붙여주기도 했다. 어느 누가 묻거나 알려주지 않았지만, 파도의 물결을 보며 먼 대양을 헤쳐 나아가기 위해 서로가 소통하고 손잡고 가야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 정상에서 선착장 반대편으로 조금 내려서니 멀리 바닷물결이 하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서쪽 끝의 해안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속에 새하얀 분 바위와 지구생성 초기부터 쌓인 화석인 대리석 사이에 줄무늬 형태의 스토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s)는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독특한 지구의 속살을 어김없이 보여주기도 한다고 했다. 천연기념물 508호인 분 바위는 백색 대리석이다. 소청도 주민들이 바위가 분칠을 한 것처럼 하얗다 하여 분 바위라고 했다. 오랫동안 수온이 높고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 살던 남조류나 박테리아 등 생물들의 사체가 쌓여 높은 압력과 온도로 변화된 석회암이다.

자연의 현상으로 휘어진 부드러운 굴곡의 바위들, 고목의 나이테 같은 모양의 지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8억만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가. 태초의 지구 암석을 마주하니 생동감을 느끼기도 했다.



석회암은 소청도 절반의 허리를 감싸며 길이가 700m의 기암으로 남아 있다. 마치 조류들이 한쪽 날개가 꺾어져 그 자리에 생활하다 생성된 암석 형태 같기도 하다.

화석은 굴 껍데기를 덮어놓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주민들은 굴 딱지 바위라고도 부른다. 남조류는 지구 생성 초기처럼 광합성 작용을 하는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낮 시간에는 광합성을 작용하여 바위의 퇴적층 위쪽에서 생활하고, 밤에는 광합성 작용을 하지 않아 그 위에 부유물이 형성된다. 이러한 활동을 반복하면서 쌓여 화석의 무늬로 만들어진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이라고 한다.

양상한 뼈에도 석화가 피어오르듯이 분 바위는 밤이면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난다고 해서 '월피'라고도 부른다. 수많은 시련과 세월 속에 실오라기 하나 없이 모두 뜯겨 나가도 원대한 꿈을 키워가면서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수 억 년 반복되어도 흐트러짐 없이 곧은 자세로 지켜왔다. 주민들은 등대가 없던 시절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분 바위를 보고 뱃길을 찾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짙은 농무(濃霧)가 시련을 안겨줘도, 수평선을 넘어 몰려오는 비바람이 의연히 제 몫을 할 서해의 고도이며 지킴이다.

분 바위, 스토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s) 석회암 가는 언덕 위에 보리수나무가 가지런히 서 있다. 붉으스레 익어가는 열매 하나를 따서 입에 넣어 봤다. 쓴맛이었다.

덕적의 외각도를 운항하던 배들을 떠올리며

김용준(영진문화원 이사)

1960년대에는 민행정선, 즉 면배가 외각도 섬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항하였다. 또한 인천에서 여러 섬을 둘러 문갑도까지 여객선이 오면 조그마한 나룻배를 이용하여 승객들을 나르곤 하였던 기억이 난다.

1970년대에 들어서 문도호라는 조그마한 목선 나룻배가 생겼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문갑도에서 덕적도까지 운항하였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독선 비로 얼마의 금액을 주고 덕적까지 다니곤 하였다. 그 당시에는 주민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많아서 위험하였다. 덕적도 독강을 건너 가려면 사리 때 물살이 넘치는 바람에 아찔한 순간을 수없이 겪으며 다니곤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만수호 나룻배가 취항하게 된다. 이 배는 전보다 커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운항하던 만수호도 노후가 되어 폐선 신고를 하게 된다. 덕적도에서 외각도 운항 여객선 새마을호가 운항하다가 해양호가 취항을 하고, 문갑도에도 만수호가 폐선되므로 자연스레 해양호로 승선해서 덕적도로 다니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민 숙원 사업인 차도선 나래호가 취항한다. 차량도 신고 사람도 타고 매일 운항을 하는 여객선이 생겨서 그때 당시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생각해 본다.

2024년 11월 25일, 해누리호가 인천에서 외각도 직행으로 문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 굴업도를 거쳐 다시 인천으로 운항하는 직항 여객선이 취항하였다. 과거에는 인천에서 덕적도에 왔는데 안개로 인해 배가 뜨지 않아 다시 인천으로 가야 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고, 무거운 짐을 끌고 선착장 배터로 이동해야 했으며, 배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 긴 시간을 덕적도에서 허비해야 했다.

외각도 주민들은 외각도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해누리호 선상에서 갈매기를 벗삼아 새우깡 먹이를 주는 인파, 인산인해의 수많은 사람들, 삼삼오오 짝을 지어 탁자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고 술을 마시며 "자,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하는 모습, 시원한 바닷바람에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모습을 감상하면서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 창조를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다.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외각도 주민들에게 제공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반려자

김은희(한국산림문화회 기획위원)

두 물이 만나는 곳. 강가 오솔길에 봄비가 살포시 내리니 나무가 모두 가지개를 쾅다. 쪽 뺨은 팔은 하늘을 향해 제각각 만세를 부르고 있다. 구불구불 이어진 좁은 길이 초록 웃음을 짓는다. 길 가장자리에 있는 풀도 한껏 신나서 어깨춤을 춘다.

앞서가는 방 선생이 치매를 앓는 아내의 어깨를 꼭 감싸고 걷는다. 두 사람이 한몸처럼 보인다. 나는 몇 발자국 떨어져서 그들 뒤에서 걷고 있다. 아내의 걸음이 자꾸 느려진다. 어쩔 수 없이 그 곁으로 다가서서 여자의 표정을 읽는다. 무표정이 이런 것인가. 혼이 떠난 듯한 얼굴이다. 그 혼은 깊이를 잴 수 없는 물속으로 가라앉았나 보다. 감정 없는 그에게 크게 소리 내며 호들갑스럽게 웃었다. 내 웃음에 반응하며 지금 이 싱그러운 숲과 강을 온몸으로 느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바람과 다르게 갑자기 집에 간다고 남편을 조른다. 당황한 나는 다시 뒤로 처져서 그들을 조심스레 바라본다. 그녀는 유난스럽게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고 한다. 불안해하는 아내를 선생이 한참 달랜다.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간 그녀. 방 선생의 고생이 한눈으로 들어온다.

한 묶음에 있는 반려자다. 결혼식에서 낭독한 성혼 선언문이 남편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지 싶다. 그는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 환갑이 되자 사업 정리를 하고 여유롭게 나머지 삶을 지내려고 했다. 그러나 공동 사업자였던 아내가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다. 생각이 자주 교복을 입었던 단발머리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족도, 이웃과 친지들도 기억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 오직 남아 있는 사람은 남편뿐이다. 사업자금을 조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때문이라고 선생은 안타까워했다.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탓에 간병인도, 자녀의 도움도 받지 않고 선생 혼자 아내를 돌보고 있다. 몸이 바싹 마른 그가 많이 힘들 것이다. 볼 때마다 등이 점점 더 굽어진다. 이따금 외출하면 아내를 딸에게 부탁하고 나왔다. 그러나 불안하다며 잠시 머물다 급히 집으로 다시 갔다.

요즘은 반려자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사람이 아닌 동물로 바뀐 지 한참이다.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또 고양이도 반려묘로. 심지어 파충류와 조류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그 수도 많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식물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절친인 친구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지금은 다육식물을 기르고 있다. 그는 기르는 것이 아니고 모시고 있다고 말했다. 집안을 온통 다육이가 차지하고 있다. 무관심해도 끈질기게 번식을 잘하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기르기 편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단다. 남편 이상으로 그 식물에 의지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있어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방식이었던 마음으로 소통하고 위로를 받는다면 반려자의 역할은 다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조금 걱정이 된다. 그것들은 기르는 이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아프거나 움직임이 불편할 때도 거두고 가꿀 수 있을까?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때 곤란할 것이다. 특히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는 더욱 난감하겠다.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의 일이다. 늦게 발견된 말기 암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던 날이었다. 베란다를 가득 차지한 식물들에 물을 충분하게 주면서, 곧 돌아올 테니 씩씩하게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20일 만에 병원에서 저세상으로 갔다. 집 정리를 하는 데 화분 치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화분이 많았다. 화분 정리에 시간이 걸렸다. 법정 스님께서는 기르던 난까지도 다른 곳으로 보냈다. 스님의 단출했던 거처와 언니 집이 비교되었다.

두 물이 만나서 합쳐진 강물을 바라본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에서 시간의 나이테가 있다. 선생 부부의 모습이 언뜻 보인다. 각기 다른 곳에서 흘러온 물이 함께하면서 한 빛깔로 가듯, 배우자도 그런 존재 아닌가. 강가에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 부부 곁으로 갔다. 옆으로 가서 의자에 앉았다. 선생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두려워하는 여자 등을 살살 쓸어 준다. 그녀는 움츠리던 몸을 가만히 내게 맡긴다. 그리고 남편 손을 꼭 잡는다. 잡힌 선생의 손이 주부습진으로 피부가 벗겨져 있다. 거친 손에서 반려자의 익은 사랑이 보인다.

내 마음에도 창문을 내고

류인채(시인, 문학박사)

고향집을 수리했다. 한동안 비어 있던 집이라 우거진 풀을 헤치고 마당에 들어서기 겁이 났다. 감나무 밑에는 고라니 똥이 수북하고 명아주가 무슨 나무처럼 우뚝 처마에 달아있었다. 칠푼쿨이 지붕 한 쪽을 덮어버렸고 굴뚝 위에는 커다란 말벌집이 매달려 있었다.

집 안에 들어가 보니 수십 마리의 벌들이 날아다녔다. 파리 모기는 물론 개미들이 들끓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있고 곰팡이가 벽면을 퍼렇게 덮고 있었다. 안방은 지붕이 뚫려 하늘이 흰히 보였다. 수많은 날 눈과 비와 이슬을 고스란히 받은 방바닥으로 천장에 발랐던 황토가 쏟아져 수북이 쌓여있었다. 내 존재의 뿌리인 아버지의 온 정성이 담긴 이 집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었다.

西紀 一九七六年 三月 十一日

무진생 용띠 가장은 손수

천리에 순응하는 새집을 짓고

입주를 하늘에 고했다

— 줄시 「묵서명墨書銘」 부분

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는 손수 벽돌을 구워가며 조출한 집을 지으셨다. 돌아가신 지 십 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체취를 맡을 수 있는 집. 가난해도 정겨웠던 어린 시절의 온갖 추억이 담겨 있는 곳.

인부를 불러 우선 집 주변의 풀을 깎았다. 인테리어업자들은 집을 수리하기보다는 헐고 새로 짓기를 권했다. 한 사람이 수리하자고 하여 후자를 택했다.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인천에 계실 때도 아버지는 가끔 시골집을 돌아보고 오셨다. 오갈 데 없는 이들을 빈집에 거저 살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머물던 독거노인이 떠난 후 수년간 방치했어도 뼈대가 튼튼했다. 선친이 가족을 위해 정성껏 지으셨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미완성 자서전을 딸이 대신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옛집을 복원하고 싶었다.

우선 수도계량기와 전기계량기를 설치하고 전선을 인입했다. 낮은 기와지붕의 가장자리와 용마루를 걷어냈다. 나무로 다시 틀을 짜 얹은 후 컬러 강판으로 지붕을 개량했다. 삼복더위에 작업하는 인부들이 소나기까지 맞으며 열심히 일한 뒤 집 주변의 쓰레기를 말끔히 치워줘서 감동했다. 하늘이 보이던 구멍을 메꾸고 천장을 편백나무로 시공했다. 창호를 넓히고 이중창을 달고 깨끗한 한지로 벽을 도배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처마 밑에 로끼덴조를 두르고 주차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홍수를

대비하여 커다란 하수관도 묻었다. 굴삭기로 마당을 평평하게 정리한 뒤 잔디를 심고 다크 브라운 메 시웬스로 담을 둘렀다. 예상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었는데 행복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가장 신경을 많이 쓴 포인트는 정남향의 넓은 통창이다. 기억자집의 안방과 건넌방과 부엌이 있는 쪽은 동향인데 마루에 미닫이 유리문을 달고, 남향의 작은 방 하나는 벽을 헐어 마루와 연결된 거실로 확장하여 시원하게 통유리를 달았다. 극장의 대형 스크린 같은 이 유리창을 통해 나는 마당과 텃밭과 그 너머 숲까지 조망할 수 있다. 변화하는 사계절이 한눈에 보인다. 날마다 하늘은 어떤 구름을 펼쳐놓는지, 고라니가 산에서 내려와 새싹을 뜯어먹는 것과 사람이 그리운 아랫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마당에 들어서는 게 보인다. 새벽잠을 흔들어 놓던 까치가 마당 가 산목련나무 꼭대기에 날아가 앉고, 어미젖을 먹던 들고양이가 다래 넝쿨 아래서 숨바꼭질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통창. 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고향에 오니 죽마고우인 마을 이장과 야기 때 내가 업어주던 아랫집 아우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유실수와 꽃나무를 기르는 나무 박사 친구가 묘목을 아낌없이 주어 심은 지 삼 년, 집 둘레에 꽃들이 만발하니 무릉도원에 있는 듯하다. 과일이 익으면 청아한 노래를 들려주는 새들에게 조금은 맛볼 기회를 주고, 나머지는 정겨운 이들과 나눠 먹을 테다. 어렸을 때 함께 나물을 캐고 공기놀이를 하던 친구들은 내가 인복이 많다고, 운이 좋다고 한다.

고향에서 살고 싶어

그려 그려

암만

사십 년이 넘어서야 만난 깨복쟁이가

트로트의 후렴처럼

부드럽게 수궁하는 말

도랑에 가재 잡으러 가자는 듯이 암만

뒷산에 참꽃 꺾으러 가자는 듯이 암만

소가 제 꼬리를 내둘러 파리를 쫓다가 음머 하듯이

개구리가 무논에 첨병 뛰어드는 소리로

암만

네가 오니 내가 기운 난다고

굳이 말 안 해도 네 마음 다 안다고
아무도 텃세하지 않게 지켜 주겠다고
암만 암만

텃밭에서 팔뚝만 한 가지 오이를 따 주며 암만
삼겹살을 노릇노릇 익혀 먹기 좋게 잘라 주며 암만

고향의 푸근한 어깨 같은
암만

-졸시 「암만」 전문

집수리가 끝나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 무렵 첫 손님을 맞았다.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동기들과 함께 입주 예배를 드렸다. 어머니는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고 미장원에 가서 파마하고 염색도 하고 오셨다.

"네 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것같이 두근거려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단다."

왜 아니라. 이 집터에 초가가 있을 때부터 신혼기를 보냈고, 자식 여섯을 낳아 기르며 인천에 올라오 시기 전까지 수십 년을 함께 사셨으니 만감이 교차하셨을 테다. 그날 어머니는 딸들과 함께 옛집 안방에 누워서도 통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 나도 뜯눈으로 지새며 시詩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집수리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시를 완성하는 것과 같았다. 시인은 폐허에서 유토피아를 발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 마음에 드는 시詩 한 편을 쓴 셈이다. 그 시와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운 아버지도 만날 수 있다. 옛집은 아버지의 품속처럼 포근하다.

허름한 우산 하나
폭우를 견뎌 낸다

찢어진 정수리로
물 폭탄이 쏟아져도

끝까지 나를 감싸는
아버지의 야윈 어깨

-졸시 「옛집」 전문

마당 가 천수국에 나비 한 마리 날아와 앉는다
나풀나풀 노란 꽃잎에 하얀 미소가 번진다
꽃밭을 가꾸던 아버지의 무명 저고리 깃이다
바람에 춤추며 팔랑이는 앞섶이다
잔디밭을 휘휘 돌다가 공중에 솟구쳐 오르다가
다시 꽃밭에 앉아 이 꽃잎 저 꽃잎 살피시며
아버지, 종일 사랑사랑 안마당에 머무신다

-졸시 「흰나비」 전문

옛집의 통창처럼 내 마음에도 넓은 창을 내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펼쳐놓은 해와 달과 별과 온갖 나무들과 풀잎을 바라본다. 새들의 노랫소리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풀씨가 절로 익어가듯이, 내 시詩도 자연 속에서 무르익어 간다.

고향 작은 섬 추억 이야기

신명언(웅진문화원 회원)

'신령이 흥한다'는 섬. 인천 앞바다 작은 섬 영흥도는 신령 령(靈) 흥할 흥(興), 귀신이 많은 섬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 섬에는 마을 수호신을 위한 당 제사를 지내며 산신령을 모셔 오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음력 12월 마지막 날 선달 그믐날 칠혹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도 없이 지게에 제물을 지고 당제산에 오른다. 그 산이 있는 동네 이름조차 당제골이다. 산 중턱에 오르다 보면 샘물이 고여 있는데 노인은 그 웅달샘에서 추운 날에도 몸을 씻고 당나무가 있는 정상에서 제사를 지낸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오고 흰 소복을 입은 것처럼 눈꽃나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산꼭대기에서 "유세차……"를 부르며 강신과 초혼으로 시작되는 제사를 지내고 음복주를 마시고 칠혹 속 풀들을 헤치며 올랐던 산을 다시 내려온다. 노인은 산에 오를 때보다는 훨씬 가벼워진 지게를 지고 작대기를 지팡이 삼아 구정 첫날 첫 시간에 산짐승들을 깨우며 집으로 향한다. 콧수염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고 방한모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정복한 등산가의 모습처럼 위 대해 보였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인의 새벽 기척에 아 들은 부스스 일어나 떡과 예쁜 사탕 옥춘당을 받아먹는다.

노인은 동네의 굶은일을 도맡아 한다. 논으로 넘쳐 들어오는 바닷물을 막고 여는 수문을 관리하는 수문장이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가족이 달려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호상과 장례절차를 지도하는 지금의 장례지도사이기도 하고 풍수지리에도 밝은 지관이다. 상갓집이 생기면 제일 먼저 가서 장례까지 모두 치르고 삼우제가 지나서야 집에 들어온다. 또 다른 직업도 있다. 소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수수깡과 진흙을 발라 집을 짓는 목수이자 건축가다. 아침이면 사들 그물을 어깨에 메고 바다로 나가 새우며 바닷가재 뱀뱀이 등 물으로 들어오는 잡어들을 잡아 아침상에 올려주는 어부이기도 했다.

때는 여름 더위가 한창이라 먹을 것이라고는 밭에 채소가 전부이고 보리 밀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할 즈음이다. 밀 칼국수는 보리 밀을 부수어 껍질을 벗어내고 알곡을 절구에 빻아 그 가루로 반죽을 해서 만든다. 조금은 거칠고 끈기가 없어 풀죽 같기도 하지만 그 옛날 빈농 가정이 보릿고개를 넘는 든든한 식량이기도 했다. 노인과 그의 아내, 아들, 딸이 명석을 깔아놓은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모기를 쫓는 쭉 연기를 바라보며 연신 부채로 바람을 일으킨다. 어둑어둑해지는 밤하늘을 밝히듯이 반딧불이 날아다니고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서쪽새 울음소리에 멀리 부엉이가 꾸짖는 듯 간간이 정막을 깨고 있다.

"명은이 아버지, 내일은 보리 밀을 뺏아야겠어요." 이 소리에 노인은 헛기침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아내는 이웃해 있는 덕적도라는 섬에서 인천을 거쳐 이곳 영흥도로 들어왔다. 때 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살림살이를 살아가면서도 아들 명은이를 보고 있으면 모든 시름이 다 녹아내린다. 지금은 상상도 못 할 일이지만 칠거지악이 있는 때에 아들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두 딸과 생이별을 하고 여러 섬을 거쳐 영흥도로 들어온 것이다. 작은 체구에 '쌍쌍이 할머니'라는 별칭이 생길 정도로 날쌔게 날아다닌다. 논밭으로 바다로 산으로 적어도 하루에 30리 길은 거뜰히 다니는 것 같다.

아들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 저절로 그냥 눈물이 고인다. '얼마나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엄마에게 힘든 삶을 살게 한 나쁜 사람들 모두 천벌을 받게 해달라고 손 모아 빌기도 했다. 60년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아들은 귀한 아들이었기에 집안 내 친척 모두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그 사랑의 눈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착하게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모범생으로 성장했다.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 취로사업 최연소 일꾼으로 나가기도 하고 십리 길을 걸어 모내기, 벼 베기 일품도 팔았다. 여름방학에는 바닷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낚시를 업으로 했고, 논두렁 깎는 일, 퇴비 쌓기, 농약 치기를 일상으로 생활했던 기억들이 생생하다.

중학교를 졸업한 청소년기에는 어른들을 따라 탈곡 일이며 벽돌 찍는 일과 공사판 막일을 마다하지 않았고 몸집과 힘에 부치는 일조차도 어른스럽게 잘 이겨냈다.

그렇게 농촌에서 일에 파묻혀 보내는 아들이 몹시 안타까웠는지 엄마는 귀한 아들을 인천으로 내쫓았다. 이모네와 사촌 누나네 등을 전전하다가 기숙과 직장, 공부를 함께 해결하는 곳에 머무르게 됐다.

해병대에서 3년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다시 그 직장에 복직해서 성실하게 근무를 해온 결과 본부에 발탁되었고 평사원으로서 최고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다. 그의 곁에는 매일 같이 서울로 향하는 새벽 출근길을 챙겨주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과 딸 3대가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적도 있다. 지금은 고향 영흥도에 모셨던 선대들의 묘소까지 대부도 선영으로 옮겨간 터라 과거의 흔적이라고는 폐가에 가까운 허름한 집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엄마 아버지와 추억이 남아 있는 그 집은 요즘도 가끔 꿈속에 나타난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하고 아버지가 마루에서 새끼를 꼬는 모습을 보게 된다. 등장인물도 단조롭고 어두침침하고 연기에 그을린 문과 광 등 우중충한 광경들의 꿈에서 깨고 나면 기분조차 찝뽕하다. 나는 잠을 뒤척이며, 기억 속 고향 집을 몇 번이고 부수었다가 다시 짓는 상상을 반복한다.



아름다운 마음의 여유

仙江 심상선(웅진문화원 회원)

사랑하는 사람끼리 오해나 착오가 생겼을 때 서로 따지고 나무라고 말다툼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사과부터 먼저 하는 것이 여유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내나 남편에게서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곧바로 통명스레 되받아 쏘아주기보다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여유 있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부모자식 간, 형제간, 고부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하게 다 해 버리기보다는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주는 것이 여유 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입니다.

주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아파트나 마트, 할인점, 은행 등의 여닫이문을 드나들 때 바로 뒤에 사람이 따라오면 문을 놓아 버리기보다는 문을 붙잡은 채 기다려 주거나, 엘리베이터나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섰을 때 내리는 사람을 밀치며 끼어 타기보다는 다 내릴 때까지 비켜주며 기다렸다 타는 것이 여유가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이나 말썽을 부릴 때 길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욕하고 때리기보다는 잠시 동안 꼭 끌어안고 타이르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의 여유 있는 자세입니다.

산길이나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과 마주칠 때 비좁은 길에서 어깨를 부딪치며 지나치기보다는 한쪽으로 물러서서 먼저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의 여유 있는 자세입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가 다시 걸려 와서 물어볼 때 귀찮게 한다고 짜증을 내며 끊어 버리기 보다는 상냥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여유 있는 마음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재미로 하는 운동경기 중에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우기기 보다는 내 뜻을 잠시 접고 상대방의 주장을 따라주는 것이 여유 있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어쩌다 자동차 접촉사고라도 났을 때 내 잘못 없고 네 잘못이라고 소리 지르기보다는 서로 빙긋 웃고는 보험회사에 맡기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을 수 없이 화가 치미는 일이 생겼을 때 분을 참지 못하고 당장 화풀이하기보다는 큰 숨 세 번 쉬면서 화를 진정시키는 마음의 여유가 아름답습니다.

여유 있는 마음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최면술사의 재능 같기도 하며,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어머니의 기도 같기도 하며,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의 은총 같기도 합니다.

사랑

이문주(응진문화원 회원, 효학박사)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누군가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깊은 감정을 뜻합니다.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되어 상대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의미가 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외모나 조건보다 마음의 연결에 기반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동행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랑은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하는 인내심과 때로는 용서를 배우게 하며,
삶의 활력과 따뜻함을 불어넣는 가장 근원적인 인간적 삶의 표현입니다.

물론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사랑! ~

종류는 다르지만 사랑은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와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가는 희생이 따라야 성취할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사랑을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뜨거운 사랑이 필요하기에 오늘 그대를 축복합니다!

골목 작은 화단엔 '함께' 라는 꽃이 핀다

이서연(시인, 한국산림문화회 부이사장)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려고 한국어 띄어쓰기를 도입하였고,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지지한 미국의 호머 헐버트, 한국의 구상나무를 세계에 알린 프랑스 에밀 타케, 천리포 수목원을 설립하고 귀화 미국인 1호였던 민병갈(Carl Ferris Miller), 한국군의 아버지라 불린 밴 플리트…… 이렇게 우리나라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바꾼 외국인들, 기억해야 할 외국인들이 있다. 그리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처럼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이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더 많이 알고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깊은 외국인들이 늘었다.

얼마 전, 독일인 한옥 건축가 다니엘 텐들러라는 사람이 TV로 자신이 지은 한옥을 소개하는 걸 보았다. 그는 독일인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 출신 어머니 사이 8남매의 막내로 독일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 한국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턴을 하다가 한옥의 매력에 빠져 건축학으로 전공을 바꾼 후 한옥 건축가로 활동 중이라고 한다.

그는 허름한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비탈진 좁은 골목에 집을 짓느라 고생을 한 것 같았다. 자재를 들여올 때 불편했을 텐데 앞 뒤로 다 연립이 올라가는 동네에서 그 집만 내부에 한옥 분위기가 나게 지었다. 충분치 못한 공간을 넓게 디자인하여 한옥의 장점과 서양식 인테리어를 혼합한 모습이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식물들이었다. 그가 식물 속에서 가족처럼 사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그의 집이 궁금해서 계속 보기는 했지만 채널을 돌리지 않은 것은 사람과 집을 대하는 그의 철학과 태도에 상당히 맘에 들었기 때문이다. 가정 교육을 잘 받은 탓인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진심과 겸손이 가득했다. 어머니를 생각해 마련한 방이라면 소개할 때도 그렇지만 언젠가 이 집이 다른 사람의 집이 될 것을 생각하는 마음을 얘기할 때 비록 자신이 지은 집이지만 다음에 사용할 사람까지도 생각하여 하는 말에서 그의 진정성 있는 인품을 느낄 수 있었다.

집뿐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고 영원히 내 것이 있을까. 과연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 나 혼자 누리고 즐기기 위한 것일까.

내가 사는 서울 종로구 자하문 밖 지역엔 신영동 부암동 홍지동이 오래되고 좁은 골목을 갖고 있

다. 흔히 세검정 지역이라고 하면 대저택이 많은 평창동 지역을 생각해 부촌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큰 도로 밖 공용주차장에 자동차를 놓고 좁을 길을 올라가야 하는 집들도 많다. 일부러 작은 골목이 주는 정감을 느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사진에 담는 작가들의 발길도 잦다. 이런 골목엔 폐품을 활용한 작은 화단과 화분이 있고, 가끔은 고추가 한두 그루, 상추가 몇 포기 심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울긋불긋 이런저런 종류의 꽃들을 심는다. 그 꽃들을 정성껏 가꾸는 사람은 그 담장 안의 사람이나 그 골목 안에 산다. 집 안의 정원처럼 대문 밖, 집 담 밖의 골목을 가꾸고 있는 것이다.

간혹 작은 카페나 가게 앞에 작은 화단을 가꾼 곳들이 있긴 하다. 그런 화단은 카페를 찾는 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냥 몇 집이 있는 골목 화단은 자신의 집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

화분을 담 밖에 늘어놓고 가꾸는 이유는 자신의 소일거리이자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픈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나만 즐기기 위해 마련한 화분일지라도 공용 골목길에 만든 것은 그 사람만의 것이 되지 않는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화단이 된다.

다니엘 텐들러 건축가의 집 대문에도 큰 나무가 있다. 집에 비해 나무가 크기도 하고, 집 짓는데 걸리적거리고, 대문 사용을 생각하면 베어버려야 할 나무다. 그러나 지대가 높은 이 골목을 지나는 노인들이 잠시 쉬기 위해 계단에 그냥 앉는 것을 보고 베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 의자를 만들었다. 자기 집 나무라서 자신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잠시 쉬어가는 자리로 여기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집을 지은 것이다. 내 집이지만 나무 하나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내 돈과 내 노동력으로 내가 만든 것이라도 함께 즐기고 누림으로써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는 것이 있다. 이런 풍경을 볼 때면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여 한국 곳곳의 역사가 된 분들을 보면 그야말로 꽃 같고 나무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공포의 암

이순애(웅진문화원 회원)

밤 10시가 지나서 술에 만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당신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나 암인 것 같아."

그냥 겁이 나서 하는 말 같지 않았다. 시아버님께서 우리가 결혼하기 5년 전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게 떠올랐다. 그래서일까? 남편이 잠든 후에도 내내 불안했다.

다음날 위장약 봉투가 책상에 보여서 약국에 전화를 하여 그 건물에 내과가 있는지와 병원 전화 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내과에 전화를 걸었다. 이름을 대고 혹 위내시경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단다. "저는 아내인데요. 검진한 사람이 겁이 많고 포기할 성격이거든요. 죄송하지만 본인보다 제게 먼저 연락을 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 측은 내 부탁을 듣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주겠다고 했다. 건강검진도 아니고 검사한 후 꼭 1년이 되었는데 뭔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어 검사한 것 같다.

한 시간 후에 전화가 왔다. 담당 의사인데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고 검사했는데 위암입니다. 다행히 초기이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 계획을 하시지요."

아, 머리가 뭔가 무거운 덩어리로 맞은 것 같으면서 팽팽 돌았다. 그때만 해도 20여 년 전이니 지금 처럼 암 환자가 많지는 않을 때이다. 교회에서 환자가 있을 때 병원 심방을 하면서 원자력 병원, 국립암센터, 대학병원 등을 다녀 보았지만 내 식구가 암 수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

그리고 연이은 생각이 내가 직장을 왜 일찍 그만두었나? 아들은 대학 휴학하고 군대 가고 아직 돈 쓸 일이 많은데 연이어 불안이 엄습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병원 추천과 기도를 부탁드렸다. "환자가 낙심 안 하면서 평안을 유지해야지요."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은 아들이 입대하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니 돈독한 신앙은 아니라도 수술할 병원을 정한 후 새벽기도회에 열심히 다녔고, 암 환자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잘 따라 했다. 남편은 환우회를 조직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한방병원에서 암 환자에게 필요한 소책자를 받아 식사에 활용하고 해독을 위한 안내에도 잘 따라 줬는데, 출근하면서 몸에 무리가 왔는지 팔이 안 올라가 입원하면 가운데 입었다 벗었다 고생할 거 같았다. 이런 남편이 걱정되었으나 지인 소개로 침을 맞으면서 회복되어서 다행히 입원에 지장은 없었다.

나는 남편이 암 진단받은 후 제일 먼저 냉장고에 들어있는 식품부터 모조리 치웠다. 양념도 자연 조미료로 만들고 물도 끓이고 특별히 먹는 소금을 신경 쓰게 되었다. 오래 보관된 천일염을 값비싸게 구입한 기억이 있어 요즘도 며느리에게 사서 보냈다.

수술할 선생님이 미국에 출장 다녀온 한 달 후로 날짜가 정해져 기다리는 그날들이 왜 그리 길고

답답했는지 불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집도할 선생님도 환자가 믿음이 가는 의사가 있어 센터장 선생님이었으면 본인이 불안해서 쉽게 회복 못했을 거라는 얘기를 지금도 한다. 병원도 의사도 환자가 원하는 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거 같다.

병원을 처음 내원했을 때는 마른 가지처럼 보인 가로수가 퇴원할 때 보니 꽃도 피고 푸르렀다. 위의 3분의 2를 절제하고 퇴원했다. 한동안 죽만 먹어서 고단백 식사를 준비하여 주었다. 수술한 후 3개월 병가가 끝나고 구내식당에서 먹는 식사가 싫다고 해서 썩 찰떡, 과일 등 도시락을 싸 주었다.

나는 그 당시 고구마가 내 몸을 살린다는 책을 읽은 후 위암으로 절제하고 작아진 위라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고구마를 구워놓았다. 회복기에 그는 내가 구워놓은 고구마를 자주 먹으면서 배고픔을 이겨냈다.

그때는 유산균 홍보를 많이 안 할 때라 청국장 가루에 요구르트를 타서 마시게 하므로 장 건강도 무리 없이 지켜 낼 수 있었다.

암 환자가 생기면 집안이 온통 침울한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시골에 계셔 아들이 암 수술 한지 모르고 계시다 회복기에 알게 되셨다.

내가 어머니라면 무시하고 안 알렸다고 섭섭할 것 같다고 얘기하다가 이 문제도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고자 알리지 않고 환자의 뜻을 따라 주었다.

수술 전에는 허리가 38인치인 바지를 입은 적도 있고 체중을 줄이고자 스쿼시를 하고 오면 옷이 땀으로 범벅되어 짤 정도로 흠뻑 젖었는데도 체중은 줄지 않았는데 이제는 체중이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걱정을 하게 된다.

퇴직하기 전에는 골다공증도 있었는데 섬에서 생활한 후에는 흙을 밟고 햇빛을 쬐고 살아 골다공증 염려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외식을 좋아하지 않아 3식이라도 귀찮치 않다. 농사지은 채소와 생선 종류가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어느 집이나 살면서 뒤돌아볼 시간이 많겠지만 엄청난 시련이 올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다짐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긍정의 마음과 감사로 변하면서 담대해지고 용기백배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어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다.

막걸리 체험(1차, 2차)

이순자(웅진문화원 회원)

올해는 막걸리 체험을 두 번이나 할 기회가 생겼다.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호감은 안 갔지만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 한번 알아보자." 하며 호기심 반으로 즐겁게 출발했다.

1차는 농업대 동문 임원 워크숍으로 가평에 국도양조장 막걸리에 대한 역사와 시설을 둘러보고 시음도 해보며 서로의 맛의 차이를 발표하니 선호하는 맛이 모두 제각각이었다. 6도, 9도, 11.5도. 개인적으로는 6도가 입맛에 맞았다.



2차 때는 다른 모임에서 전통주 연구회를 방문하여 직접 쌀을 씻어 찜기에 면포를 깔고 쌀을 올려 고두밥을 지어 식혀서 누룩을 넣고 주물러 통에 넣어 가져왔다. 실온에서 하루에 두 번씩 3일간 위아래 섞어 주고 3주간 그대로 두면 발효가 된단다. 개인적으로는 술을 좋아하지는 않아도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 전통주 막걸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느껴졌다.

어버이날이 되니 술을 좋아하시던 아버지가 생각났다. 내가 만든 이 막걸리를 드렸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가 중학교 서예 시간에 붓으로 글씨를 써서 집에 갖고 갔을 때 아버지는 붓글씨를 보시더니 "참 좋은 글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하시면서 뜻을 풀어 주셨다. 지금 내 나이, 그때 아버지 나이가 되면서 해마다 생각하는 잊지 못할 글이다.

수욕정이풍부지(樹欲靜而風不止)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욕효이친부대(子欲養而親不待)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

그때는 한자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저 해석해 주신 아버지 말씀을 듣고 '정말 뜻깊은 말이구나.' 하며 살아온 세월이 요즘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유독 부모님이 보고 싶고 그립다. 술이 다 되면 부모님 산소에 한잔 올리러 다녀와야겠다.

흔들림과 비움

이원환(창작수필문인회 감사)

연잎 즐기는 가늘고 연약하지만 완강했다.

큰 잎에 쏟아지는 빗줄기를 받쳐 들다가 벽차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참지도 않고 흔들어 비워낸다. 연잎의 흔들림은 불안이 아니라 균형이고, 바람 없이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흔들림이며 비움이다.

마이산과 여수, 보성 차밭과 순천만을 거쳐 만아들과 함께한 남도여행의 마지막 밤, 우리는 전주 덕진공원에 가기 위해 한옥마을에서 묵었다. 아침 식사는 80년 전통 삼백집의 콩나물 국밥에 달콤한 모주가 제격이었다. 24년 전 장인과 마지막으로 남도여행을 떠났을 때, 첫 코스가 덕진공원의 연꽃 자생지였다. 그날, 연꽃같이 잔잔하게 미소 짓던 모습이 아직도 그립다. 만사위와 유달리 정겹게 지내셨던 장인과의 아련한 추억이 서린곳이라, 세찬 소나기가 몰아쳤지만 비를 핑계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새로 단장한 1만 3천 평의 연꽃 자생지에서도 비바람은 거세게 몰아쳤다. 우산으로 간신히 머리만 가릴 수 있을 정도였다. 콩을 볶듯 퍼붓는 폭우가 한 시간 넘게 계속되자 대부분의 관람객은 서둘러 돌아갔지만, 아들과 단둘이 남아 연꽃의 매력에 흠뻑 젖어들었다.

솔뚜껑만 한 연잎들이 연거푸 고개 숙이며 빗물을 쏟아내는 장면, 폭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연꽃의 은은한 자태를 보며 여행의 피로가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옷이야 몽땅 젖어도 상관없었다. 그토록 세찬 비에도 다친 꽃잎 하나, 찢긴 연잎 하나 없으니 놀라울 따름이었다. 빗방울이 때리고 바람이 몰아쳐도, 연꽃은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하듯 단아함을 잃지 않았다. 적당히 리듬을 타며 제 몸 하나 잘 간수하고 나머지는 다 비워내니, 더 이상 무겁지도 상할 일도 없는 듯했다. 새삼 연잎의 지혜에 경탄했다.

흔들림과 비움의 멋을 생각한다.

삼도 재즈 음악처럼 흔들리며 리듬을 탄다. 정해진 악보 없이 즉흥적으로 흘러 가지만, 미묘하게 흔들리는 리듬이야말로 재즈의 생명력이다. 너무 정확하면 기계적이 되고 너무 흔들리면 엇박자가 된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 인내와 유연함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한다. 자연 또한 흔들림을 통해 힘을 기른다. 대나무나 꽃대는 바람에 흔들리며 쓰러질 듯 휘어지지만, 다시 곧게 일어난다. 비바람을 이기려 똑바로 서서 버티기만 했다면 부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흔들리며 나무는 더

깊고 멀리 뿌리를 내린다. 흔들림 속에서 버리고, 흔들림 속에서 버티는 법을 아는 것이 자연의 지혜가 아니겠는가!

지난겨울 큰 눈이 내렸을 때, 내가 사는 향린동산에 수 많은 나뭇가지가 꺾어져 찾길을 막아, 마을이 사흘 동안 고립된 적이 있었다. 잎이 많고 가지가 촘촘한 나무들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지만, 전정을 잘 한 나무와 가지가 유연한 나무들은 아무 탈 없이 견뎌냈다. 몸이 가볍고 가지가 유연한 나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진정한 강자였다.

세상 만물은 흔들리면서 제 몫을 다한다.

시계추는 쉼 없이 흔들리면서 시간을 만들어내고, 그네는 흔들리면서 아이들의 웃음을 품고, 저울은 흔들리면서 균형을 잡아 무게를 재고, 축구, 농구, 배구, 탁구, 골프도 팔과 다리의 흔들림 속에서 정확한 순간의 힘을 발휘한다. 비움 없는 욕심과 과도한 몸놀림은 결국 실점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마음 또한 자주 흔들린다. 흔들림은 살아 있음의 증거이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 사이를 오가며 흔들린다. 어떤 날은 의욕이 넘치다가도, 어떤 날은 마음이 주저앉는다. 그런 날은 수렁에 빠진듯 허

우적대기도 한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버티는 대신, 흔들리며 비움의 흐름을 타야 시계추처럼 제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여행 가방을 쌀 때, 이것저것 챙기느라 흔들리다 무거워진 짐처럼, 결국 절반도 쓰지 않고 되돌아 온 물건들처럼, 마음의 여유를 갉아먹는 욕심을 내려놓을 일이다.

비 오는 날은 흔들리며 비울 줄 아는 연잎의 지혜를 만나러 가자!

바람 부는 날은 흔들리며 뿌리내릴 줄 아는 갈대와 대나무의 인내를 배우러 가자.

쓸데없는 걱정, 과한 집착, 불필요한 자존심으로 흔들리던 마음, 비우고 훌가분해지자!

연잎처럼, 대나무처럼, 시계추처럼, 스윙 재즈처럼 - 흔들리며 살아도 좋으리!



파도가 손짓하는 장봉도

이임선(한국산림문화회 이사)

지인의 장봉도 여행기를 들은 후 꼭 한 번은 가봐야지 하는 섬 장봉도. 삼목항 매표소에서 자동차와 함께 탑승할 표를 구매한 후, 배가 출항하는 시간 동안의 기다림은 섬 여행의 설렘과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기다림 끝에 배가 삼목선착장을 떠나자, 갈매기들이 흰 날개를 파닥이며 따라온다.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며 비릿한 섬의 냄새를 실어 나른다. 충청도 내륙지방에서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짧은 거리지만 배 위의 시간은 이미 특별했다. 장봉도는 도시와 다른 호흡을 품고 있었다. 능선은 길게 뻗고, 바다는 고요하게 섬을 감싸며 세월을 담았다.

서해의 특성상 썰물에 드러난 갯바위 위, 작은 게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 옆에서 노인은 굵은 허리로 조개를 캐고 있었다. 손끝마다 파도가 묻어 있는 듯했다. 바다는 그들의 밥상, 갯벌은 삶의 첫 장. 나는 걸음을 멈추고 조개 캐는 노인을 따라 밀물 때 밀려온 조개 줍기 체험을 해보았다. 손끝에 묻은 바닷물과 모래갯벌의 질척함을 느끼며, 조개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입을 다물었다가 열었다가 숨을 쉰다.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경험을 하며 섬과 사람의 시간을 함께 걸었다.

멀곳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서자, 집마다 널린 그물이 바람에 흔들리고, 햇살에 말라가는 미역은 파도의 기억을 품고 있었다. 아이들은 갯벌에서 조개껍데기를 주워 모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소꿉놀이하던 기억이 떠올라 아이들과 얘기를 나누며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바다보다 넓은 아이들의 꿈처럼 퍼졌다. 주민들은 소박하지만, 오랜 세월 살아온 그들만의 섬 생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거친 바람에 부서지는 파도와 내리쬐는 퇴약벌에도 아랑곳하기 많은 용기와 생존을 위한 부지런함이 대단해 보였다. 바닷가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우리 부부의 눈에 많은 것이 경이롭고 위대해 보였다.

차에서 숙박하기 위해 용암 해수욕장 해송 숲에 자리 잡았다. 코로나 시기에 구입한 캠핑용품을 제대로 활용해 볼 요량이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휴가를 해변 모래밭에 텐트를 치던 생각이 떠올라 마음은 더 젊어진 기분이 들어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되었다.

해 질 무렵 모래사장엔 작은 불빛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파도 소리가 대화를 품어 주었다. 섬의 밤은 도시와 달랐다. 불빛 없는 하늘에는 별이 쏟아지고, 멀리 인천공항의 불빛과 섞여 섬을 밝힌다. 별빛 아래 주민들의 삶은 또렷했고, 자연과 함께 숨 쉬며 살아가는 그들의 리듬은 천천히 흐르는 섬의 시계가 되어 자연과 하나 되는 감각이 마음을 감싼다. 파도 소리가 천천히 숨을 내쉬고, 불빛과 파도,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순간은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될 감

정의 풍경이었다.

언제부턴가 여행을 떠나면 편리함에 익숙해져 콘도나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졌다. 환경교육사 공부를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이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임을 깨닫고 난 뒤부터는 생각이 달라졌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며, 아나바다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 애쓰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이야말로 지구를 되살리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임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석훈 배우가 환경 관련 책을 출간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 '쓰저씨'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출연한 모습을 보았다. 그의 일상은 깊은 울림을 주었다. 사무실 집기는 대부분 재활용센터나 길 거리에서 수거한 물건이었고, 아이들 장난감은 중고 가게에서 구입했으며, 심지어 그가 입은 옷도 구제 의류였다. 나는 그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나 또한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다.

이제는 환경 詩를 연작으로 써 SNS에 올리며, 불특정 다수와 환경 의식을 나누고 있다. 차박으로 묵은 자리에서는 뒷정리를 말끔히 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잠시 머문 자리에 바람과 별빛만 남겨 두는 것, 그것이 내가 실천하는 작은 다짐이다.

다음 날 웅암해수욕장에 발을 적시자, 모래 위 발자국과 파도가 남긴 흔적이 겹쳤다. 해송 숲이 해변을 감싸고,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에서 아이들은 뛰놀고, 조개를 캐며 시간을 쌓는다. 이곳은 단순한 해변이 아니라, 주민과 자연이 이어진 삶의 공간이었다.

장봉도의 매력은 이런 조용한 생명력 속에 있다. 돌아오는 배 위, 갈매기들이 다시 날아와 배를 따라왔다. 나는 깨달았다. 장봉도의 진정한 풍경은 바위와 바다, 해변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훈훈한 인정과 따뜻한 눈빛이었다는 것을. 파도와 바람과 햇살 속에서 이루어진 소박하지만, 깊은 삶의 울림이 나를 오래도록 붙잡았다. 장봉도에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여행의 기록이 아니라, 마음속 한 페이지로 소중한게 새겨질 것이다.



나는 한마디도 못 했다

이지영(웅진문화원 회원)



"마음이 설레나요?"
"설레기는 무슨 ……."
옆지기가 애써 마음을 감추려고 한다.
"아니, 설레야죠. 몇 년 만에 동창들을 만나도 설레는데, 하물며 사십여 년 만에 제자들을 만나는 거면, 당연히 설레야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마음이 설레어 어젯밤엔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래야 감동을 하지 않겠어요?"

옆지기가 사십여 년 만에 제자와 연락이 닿아서 몇몇 제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날이 오늘이다.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그랬고…… 옆지기는 째째이 여러 날 나에게 제자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해 주었던 터였다. 자기표현이 서툰 옆지기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우스갯소리를 섞어가며 응원을 한다. 옆지기는 아주 많이 젊었던 시절 여학교 선생님이었다.

나는 학창 시절 친했던 선생님이 없다. 그래도 마음에 남은 선생님은 몇 분 있었지만 만날 기회가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내 학창 시절 중 최악의 선생님이었다. 나는 만나기를 거절했다. 반 친구 현숙이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당당하게 봉투를 주고 왔노라고 했다. 담임 선생님의 별명은 '골드핑거'였다. 학부모에게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퍼져서 생긴 별명

이다. 담임 선생님은 표시가 날 듯 안 날 듯, 있는 집 아이들과 없는 집 아이들을 가려서 대했다. 그래도 아이들은 다 알았다.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편모슬하에 살림이 어려운 형편이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어떤 형태로든 성의를 표할 수가 없었다. 성의를 표해야 하는 것조차도 몰랐다. 반장 선출이 있었다. 내가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반장 선출 후 전교생 아침조회가 운동장에서 있던 날, 각반 반장을 호명하였다. 우리 반은 내가 아닌 다른 아이가 호명되었다. 담임 선생님이 편애하는 아이였다. 반 아이들이 술렁였고, 호명된 아이는 당황했다.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온몸을 타고 올랐다. 나는 어디로든 숨고 싶었다. 그리고도 나는 학년이 끝날 때까지 반장 역할을 다했다. 울다가 과자 하나 얻어 들고 울음을 그치려 애쓰는 모습으로.

요 며칠 전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나와 비슷한 일을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1960년대 일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해녀다. 바닷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살림살이였다. 주인공이 다니는 국민학교에서 급장(지금의 반장) 선거를 했다. 주인공은 38표를 받았다. 29표 받은 아이가 급장이 됐다. 주인공은 부급장이다. 주인공이 울면서 항의를 한다. 내가 38표를 받았는데 왜 부급장이냐고. 선생님이 말했다. "너 집대 아무개 아버지가 돌린 크림빵 먹었어? 안 먹었어? 그리고 아무개 아버지가 돌린 양초로 마룻바닥 밀었어? 안 밀었어? 어느 자리든 장이라는 자리는 물심양면이 좀 되는 사람이 좀……" 선생님은 애써 주인공을 밀어내고, 주인공은 계속 항의한다. "그래도 제가 38표데요."

드라마를 보던 내가 TV에 대고 주인공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애 그래도 너는 씹씹하게 항의라도 하는구나. 나는 한마디도 못 했다."

주인공은 속상해하는 엄마를 위로한다. "엄마, 근데 며



칠 해보니까 부급장이 더 나아. '차렷, 경례'만 못하지 거의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개가 '차렷, 경례'할 때 나도 속으로 그냥 '차렷, 경례'를 해. 그냥 부급장이 더 나아." 나는 새삼 위안을 받는다. 그래도 나는 반장 역할을 끝까지 했으니까.

졸업하던 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마지막 성적표를 받았다. 나만 성적표를 받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했다. 담임 선생님은 마지막 종례를 하면서 굳이 나라고 밝히지는 않고 에둘러 사과를 했다. 내게는 이러한 일들이 두고두고 마음에 상처로 남았다. 그랬으니 내가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반 친구 현숙이는 학교에서 취업을 시켜줬는데 그에 따른 인사를 담임 선생님에게 따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눈치를 보였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집안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그런 인사치레하는 것을 전혀 몰랐기에 본의 아니게 안면을 몰수한 것이 되었다고 한다.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이 심했다고도 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수십 년이 지나 현숙이는 명실상부 부잣집 사모님이 되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생겼으니 그때의 빛 아닌 빛을 꼭 갖고 싶었다고 한다. 이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나는 안부도 전해 듣고 싶지 않다고 했다. 물심양면이 안 돼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멧힌 마음이 담임 선생님 이야기만 나오면 웅졸해진다.

옆지기 제자들은 옆지기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다고 한다. 졸업을 하고 사십여 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옆지기를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 하는 걸 보면, 옆지기는 필시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름은 그 사람이 입은 영혼이다

임경남(웅진문화원 회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다. 시를 쓰는 일은 그렇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물 중에 시인의 눈으로 발견했을 때 비누는 수생식물이 되고 벚꽃은 정기간행물이 될 수 있다. 이름이란 그 사람을 의미하는 일이고 확장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개인이 일구어내야 하는 게 사피엔스로 살아가는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천의 수봉문화회관 아래에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아담하고 정갈한 빵집이 있다. 그곳의 대문 위에는 무심히 올려진 작은 간판이 있는데 간판 이름이 '빵끗'이다.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도 않는다. 빵집을 창업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떠올렸을 그 이름, 그 이름을 찾아내고 무릎을 쳤을 것이다. 나는 식감보다 언어감이 더 발달한 사람, 인천문협 행사 때마다 바쁘게 다녀오느라 한두 번 빵을 먹어봤지만 빵 보다 '빵끗'에 더 끌렸다, 다음에 방문하면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그 이름이 떠올랐는지, 작명한 분을 꼭 만나고 싶다. 나에게 빵보다 빵끗!!

보통 본명보다 예쁜 이름이 예명이다. 하지만 이영자는 반대다. 그녀의 본명이 이유미라는 사실, 그 자체가 개그처럼 회자되던 때가 있었다. 방송에서 보이는 컨셉은 이영자였는데 언젠가 그녀의 사생활을 보이는 예능 프로에서는 180도 달랐다. 그녀의 살림살이는 아기자기하고 핑크핑크 했다. 내면에는 이영자가 아니라 이유미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보통 여자보다 체격도 크고 목소리도 큰 그녀가 생존을 위해 이유미라는 본성을 억누르고 이영자로 살아갔던 것이다. 유미와 영자 사이에는 느낌적인 느낌의 간극이 분명히 있다. 요즘은 오만추에서 황동주와 러브스토리가 한창이던데 방송이 아니라 실제로, 생존형인 이영자에서 벗어나 아기자기, 유미유미 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문방구를 좋아한다. 꼭 필요한 건 아니지



만 눈으로만 봐도 미소가 저절로 생기는 약간의 유치함은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지 않는 내 취미 생활 중의 하나다. 가끔 문방구에 가서 눈이 부르게 아이쇼핑을 하고 예쁜 볼펜이나 포스트잇을 사서 돌아오곤 한다. 안산 갈대습지 공원은 절친과 자주 걷는 공원인데 그곳에 가면 들리는 카페 옆에 '문구방구'라는 문방구점이 있다. 나는 그 이름만 봐도 방긋해진다. 창업의 첫 번째는 종목일 것이고 종목이 선택되면 간판에 내걸 이름을 끝없이 고민할 것이다. 이 가게에 어떤 영혼을 입힐 것인가? 이름은 영업의 시작이니까. 문구방구문구방구 지나가는 사람을 씨익 웃게 만든다.

김장김치가 지겨워질 즈음 시장에 가면 봄동이 나온다. 어느 날 시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자꾸만 '봄동, 봄똥'이라는 말이 입에 맴돌았다. 내게는 '봄동'이라는 말이 이제 긴 겨울 지나 봄이 오는 신호로 읽힌다. '봄동'은 봄과 겨울 사이라는 뜻이었는데 이걸 한자로 한다면 '춘동'이다. '춘동'으로는 봄의 느낌이 확 줄어들지만 왠지 '봄동' 하면 마음에서부터 햇살이 부챗살처럼 퍼지는 것 같은 건 나만의 느낌인가? 그날 저녁 아삭하고 새콤달콤한 봄동 곱절이를 맛있게 먹었다. 그렇지 '춘동'으로는 절대 이 맛을 낼 수 없지.

19세기의 유럽은 전쟁으로 뜨거웠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오스트리아의 빈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 유럽 금융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던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었다. 그들의 둘째 아들인 살로몬은 오스트리아 철도 사업을 계획했는데 보수적인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비난 여론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말(馬) 없는 탈 것'이라니, "인간의 육체는 시속 24km 이상이면 견딜 수가 없고 악마의 강철 기계가 계속 달리면 분명, 눈, 코, 입에서 피가 터져 나올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신문 투고가 날마다 요란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 속내는 전혀 달랐다. 독일인이 오스트리아에 들어와서 철도를 장악하고 돈을 벌어가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고민에 고민을 하던 솔로몬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 난관을 뚫었다. 그때 오스트리아를 지배하던 황제 이름이 페르디난트였는데 철도의 이름을 '페르디난트 북방철도'라 명명하고 마침내 오스트리아 철도를 장악하게 된다.

명숙, 옥례, 정자에게서 70년대 냄새가 난다. 고향을 떠나와 억척스럽게 돈 벌며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들딸 낳아 공부시키고 결혼시켰다. 그녀들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시대정신에 힘입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 나현, 지유, 보경으로 개명하고 동창회에 나타나지만 그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마다 나는 심한 인지부조화를 느낀다. 몸에 새겨져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이름 대신 한 번 더 생각하고 머리로 불러야 하니 부를 때마다 에너지를 더 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시치미 뚝 떼고 명숙, 옥례, 정자를 벗어버린 저들은 좋겠지만 말이다. 백화점에 가면 그렇게 많은 옷이 있어도 나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없듯이 우리 모두는 이 지구상에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각자는 너무 귀한 별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이름으로 반짝반짝 살다 가는 것이다. 100세 시대다. 내가 시를 읽고, 쓰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은 내 이름 임경남에게 자유와 충만함 입히는 일이다. 고독력을 기르는 일이다. 내 이름 임경남에게 '빵긋' 웃어주며 이 세상을 살다 가고 싶은 것이다.

강화 봉어찜

흙에 맛이 있다면 시간이 뻥 이 맛이겠구나!

임병구(웅진문화원 회원)

흙탕물에서 사는 봉어와 미꾸라지

맨발 걷기 열풍이 불더니 '맨발족'은 옛날 얘기고 '맨발교도'라고 불러야 할 만큼 가열차다. 황토 흙길 수요가 급등하고 동네 공원마다 우후죽순 맨발 흙길이 깔린다. 큰 체구의 극히 일부일망정 맨살과 맨흙이 만나는 신이한 경험에 도시인들이 열광한다. 공원에 나가면 운동화를 신은 문명인보다 벗어던진 채 야만 상태를 즐기는 보행자들과 더 자주 섞인다. 시간이 앞으로 가는지 뒤로 흐르는지 묘연하다. 60년이나 된 영화 <맨발의 청춘>은 맨발을 청춘기의 반항과 등치 시켰다. 남녀 주인공이 겪는 빈부와 문화 격차를 맨발이라는 단어 하나가 오롯이 감당해 낸다. 1960년대 시인 한하운은 한층 더 절박했었나 보다. 1960년대 그가 살아 낸 삶의 행로를 시 '황톳길'에 담았다.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고 목적지는 아득한 여정을 황토라는 시어가 팝진하게 받아 안는다.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행위는 기성 세대를 등지겠노라는 이단아가 겪을 기구한 삶을 상징한다. 요사이 맨발 열풍이 60년 만에 그 누명을 씻어 내고 있다.

딱히 한 갑자 과거까지 거스르지 않더라도 흙과 가까운 삶에는 공기가 따랐다. 어릴 적 나 또한 궁벽한 바닷가 흙집에서 자랐다. 갑돌이와 갑순이 마냥 벗짚 낚가리 사이에 들어가 신랑 각시 소꿉놀이를 할 때는 흙이 밥이었다. 조개껍데기에 흙으로 지은 밥을 올리고 반반한 돌 위에 풀썩을 다져 반찬으로 곁들이면서 부부 살림 흥내를 냈다. 미술 시간에 쓸 찰흙을 찾아 산비탈 축축한 곳에 삽과 호미질을 할 때도 정강이에 달라붙는 흙은 징그러웠다. 찰흙을 개다 장난이 과해 얼굴에 문지르면 울음보가 터졌다. 흙이 몸에 닿으면 경기를 쳤는데 어릴 적 보고 배운 게 그랬다. 흙을 멀리할수록 성공한다는 주문은 강력했다. 눈에 들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밭 근처에 얼씬 말라는 지엄한 당부가 뺏속 깊이 배어들었다. 흙집에서 나고 자고 흙구덩이를 파고 묻고 흙더미 위에서 뒹굴며 놀았지만 정작 흙을 경원시하다 보니 헛갈리는 어린 시절이었다. 팥따먹기는 흙바닥 없이는 할 수 없는 놀이였고 땡구(구슬)치기도 흙구멍 없으면 불가능했다. 가위바위보 할 때는 흙에다 침을 뱉어 손등에 바르며 흙의 기운을 빌렸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흙을 멀리하라는 어른들 분부였다.

분부가 해금되는 날은 논배미 옆 진창에서 미꾸라지를 잡을 때였다. 맨발로 들어가 물부터 퍼냈다. 말캉말캉한 진흙이 드러나고 어른들이 삽질로 바닥을 뒤집어 놓으면 맨발 감각으로 바닥을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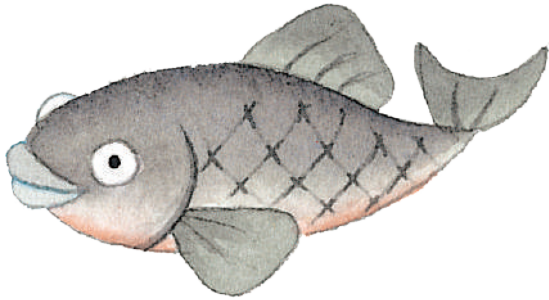
들어 됐다. 발가락 사이로 미끌미끌한 몸뚱이가 숨을 곳을 찾아 비집고 들어왔다. 간질간질한 감촉에 웃음이 터졌고 매끌매끌한 진흙에 몸 전체가 간질거렸다. 손으로 움켜져 들면 미꾸라지가 몸을 털면서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다. 얼굴에 튼 진흙을 털어내다 보면 얼굴은 물론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다. 발로 밟아 찍어 누를 수도 없고 양손을 모아도 손안에는 겨우 한두 마리뿐이었다. 진흙탕 속에서는 미꾸라지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놀았다. 어른들이 나서서 큰 삽으로 흙을 퍼올려 맨땅 위에 던져 놓아야 미꾸라지가 힘을 쓰지 못했다. 미꾸라지를 잡다 보면 간간이 민물고기도 걸려들었다. 어린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치들은 장난감처럼 만지작대다가 돌려보냈다. 개중에는 놀잇감으로 수명을 다한 생명체들도 있었다. 생각할 때마다 죄스러운 감정이 올라온다. 어른들이 흙에서 잡아 올린 미꾸라지와 붕어로 만든 음식은 가까이하지 못했다. 그건 온전히 어른들을 위한 음식이겠거니 여겼던 듯하다. 음식보다는 맨발에 닿았던 진흙 기운만이 남아 있다.

요망진 맛이어서 더 끌리는 붕어요리

바닷가 살림에서 민물고기로 만든 요리는 말 그대로 별미다. 바닷고기가 흔하디 흔해서 대놓고 먹다 보니 눈 웅덩이나 농수로에서 나는 민물고기가 훨씬 귀했다. 나는 추어탕이나 붕어요리를 도시인이 되고 나서야 맛보았다. 어른이 되어야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여겼는데 실제로 어른이 되면서 먹기 시작했다. 어릴 적 민물 생명체에 대한 추억은 입이 아니라 손끝이나 맨발 감각으로 남아 있다. 그런 음식을 대하면 입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발아래로부터 스멀스멀 알 수 없는 감각들이 올라왔다. 흙 속에서 꼬물대던 맨질맨질한 움직임들이 음식 그릇 속에 들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손가락질 속도가 더뎠다. 나와 맨살을 비비던 그들의 맨살 감촉이 살아나면서 흙내음이 솔솔 풍겼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지나가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릴 때 올라오던 흙 향내였다. 어른들은 흙에도 맛이 있다면서 혀끝에 대보기도 했다. 따라서 흙내 내 보던 흙맛과 흙향이 아슴푸레 살아났다.

붕어라는 물고기는 흙탕물 속을 헤집고 다니는 호흡과 탄력으로 육질을 만든다. 붕어요리는 몸체가 지닌 육질과 역센 가시, 터럭같이 많은 잔가시를 다스려 맛을 뽑아낸다. 흙 내음이 과하게 나면 역하고 아예 빼내면 붕어 특유의 맛이 달아난다. 모든 요리가 그렇듯 재료가 지닌 고유한 맛에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맛을 추출할 때 제맛이 난다. 붕어요리는 특히 더하다. 흙맛은 묘하게도 그럴듯하게 때에 따라서는 뱉어 버리고 싶기도 한 맛이다. 붕어요리 맛집이 귀하디 귀한 건 우리네 삶이

흙을 대해온 본능이 원래 그 모양이라서다. 음식맛에 요망지다는 말을 쓴다면 붕어요리에 딱 맞을 듯싶다. 주춤거리다가 결국엔 끌려 들어가고야 마는 맛, 붕어가 시간을 견딘 흙의 맛이다.



강화 붕어찜에 밴 시간의 맛

강화는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만 너른 물이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지구라는 행성 위에 놓여 있는 땅덩이는 죄다 바다 위에 놓인 섬이다. 오죽하면 어느 문인이 태평양 북반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별 이름은 지구(地球)가 아니라 수구(水球)여야 맞다고 했겠는가. 행성명 수구에서 넓은 땅이나 좁은 땅이나 물 위에 떠 있기는 마찬

가진데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큰 섬이다. 섬 안에 민물고기가 번성한 수로와 도랑이 손금처럼 퍼져 있고 큰 저수지만 해도 여럿이다. 낚시꾼들은 인근 바다도 누볐지만 민물고기를 따라 강화내륙 곳곳에 낚싯대를 드리웠다. 강화 땅과 물은 바닷고기에게 영양분을 흘려보내주면서 민물고기들에게도 넉넉하게 베풀었다. 붕어를 비롯한 민물 요리 수준이 큰 육지에 견줘 밀리지 않는다. 강화가 품어 온 땅심 덕이다.

강화 북녘 강과 바다가 보이는 접경지역에는 '송뢰'라는 이름을 물려받은 저수지가 있다. 우리가 치는 장면을 상상하다 보면 이무기 전설이 떠오른다. 동네 이름에 번개를 붙일 정도라면 기개가 높을뿐더러 사연도 많겠다. 바깥채와 안채가 규모를 갖춘 붕어요리 명가에 초대받아 동네와 음식을 화제 삼아 인사를 나눈다. 안타깝게도 요즘엔 송뢰저수지 붕어를 음식 재료로 쓰지 않는다니 더는 동네 얘기를 캐물을 수 없다. 기와를 엮은 가옥 구조와 철종 당시 과거에 급제했던 교지를 살피며 전통 한옥에 깃든 연륜과 가풍을 짐작해 본다. 1938년, 이 집을 지을 때 백두산 소나무를 썼다는 주인장 설명은 1994년 이래 30년을 이어온 붕어요리 가업에 위엄을 입힌다. 고래등 같은 대갓집 대청마루에서 붕어찜을 기다리면서 고래뱃속에 들어앉았다던 요나라는 인물을 생각한다. 고래가 붕어를 삼킬 리는 없겠지만 우리가 먹고사는 먹이사슬은 기어이 서로 연결된다. 고래 안에 요나가 있고 요나는 고래가 삼킨 음식물로 연명한다. 장구한 역사가 깃든 전통가옥 안에서 우리 일행은 붕어요리 종가로 등극하기까지 긴 세월이 삼켜 온 명성을 맛볼 채비를 하고 있다.

찜요리에 쓸 대짜 붕어는 뼈가 억센 데다가 잔가시가 길고 성하다. 살을 익히는 기술만큼 뼈를 잘 다뤄야 무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 90분가량 강약불에 찌낸 참붕어가 고스란히 원형을 유지한 채 상에 올랐다. 경주에서 배워 강화 최초로 붕어찜을 내기 시작했더니 동쪽 아래 왕도(王都)의 맛이 서쪽 위 왕도에 도달해 있다. 신라 고도와 고려 고도가 오래 묵은 깊은 맛으로 이어졌다. 불을 다루는 기술이 붕어찜 맛을 결정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 점 크게 집어 입에 넣어 본다. 가시를

바르려 긴장했던 입안으로 살과 가시가 한 젓가락에 섞여 편하게 들어온다. 불현듯 <뼈와 살이 타는 밤>이라는 농염한 영화 제목이 스치고 지나간다. 살과 뼈가 타기 직전까지 녹아내리면 이런 보드라운 질감을 만들어 내겠구나. 센 불과 약불이 마지막 비법이라는 설명을 수궁하게 하는, 뼈와 살이 불에 의해 뒤섞인 맛이다. 붕어가 노닐던 저수지 아래 흙바닥에서 데려온 향이 불을 만나 훈향이 되었다. 시래기를 듬뿍 깔고 고추를 찢어 얹어 훈향과 절묘하게 섞었다. 흙이 붕어 몸에 배어 들고 불이 다른 재료들과 함께 졸여내어 맛으로 조합해 냈다. 흙에 맛이 있다면 붕어가 살아 낸 시간이 밴 이 맛이겠다.



붕어찌에 곁들여 상에 그득했던 찬들을 빼놓을 수 없다. 붕어찜밥으로 키운 닭에서 난 계란국이 일미다. 계란국에 올린 파향은 왜 파를 빼놓고 국물맛을 운운할 수 없는지 입증해 낸다. 시원하고 상큼하고 개운하다. 두 그릇을 비우고도 아쉬웠다. 고추조림, 깻잎나물, 콩장, 오이와 무짬지 냉국, 묵과 오이와 상추 무침, 순무김치, 깻잎절임, 매실장아찌, 호박전, 가치부침, 부침개 등등, 찬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흙밭을 떠올리게 하는 묵은 맛이다. 입가심으로 내 온 식혜 한 사발까지 모든 맛이 웅숭깊다. 삭이고 오래 푹 익혀서 낼 수 있는 맛들을 모아 대회를 연다면 오늘 우리가 받아들인 이 밥상이야말로 올림픽에 견줄 경연장이다. 잘 먹고 나오는 길에 99세 어르신 계신 방 앞에서 절을 올렸다. 이 모든 맛이 100년 세월을 살아내신 이 어른께서 이어 주신 삼덕이다.

영흥도가 좋다! 십리포가 좋다! 문화원이 좋다!!!

정영민(영진문화원 회원)

제가 영흥도에 들어와 산지도 어언 십여 년이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 50년을 청산하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서울 양재동이 고향인 집사람이, 강남에서만 50여 년을 살았던 아내가 정년을 3년 남겨두고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저도 사업을 접으려고 결단을 내리려던 참에 결단을 내리고 "이천, 양평, 용인, 안성 등" 서울 주변 전원주택 지을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고 주변 가까운 친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많은 곳에 다녔고 많은 분들도 만났습니다.

산 좋고 물 좋다는데, 교통 편한데 등등 고려할만한 곳 들을 주말이면 구경도 하고 맛난 것 먹으면서 쉬엄쉬엄 다녔습니다. 그러다 소래를 구경 가게 됐습니다. 제 고향이 포항이라 해산물을 좋아하는지라 자주 다니게 됐는데 땅값을 알아보니 평당 천만 원을 호가하는데 소래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을만한 땅은 거의 그린벨트라 100평만 해도 10억 원이라 전원주택 짓는데 너무 큰 금액이란 생각이 들어 바다 쪽으로 찾다가 대부도로 해서 선재도도 알아보다가 영흥도로 들어왔는데 너무 경치도 좋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살다 보니 차를 가져가지 않으려면 영흥도 중심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버스를 타야 오이도역에서 서울 인천을 가서 종합병원, 백화점등을 구경하고 자식들, 친척,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나 보니까 나이 먹어서 병원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 병원을 가면 예약해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감기라도 걸리면 예약해서 기다려서 의사 만나면 단 5분도 안 걸려서 처방전 받아서 약국 가서 약 사고, 그런데 영흥도는 영흥도 중앙에 늘푸른센터라는 도시 같으면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의료법인이 있어서 언제든지 즉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또 대형 하나로마트, 24시간 운영되는 대형마트, 편의점도 있어서 정말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철마다 지금은 뭐 심을 때다 가르쳐 주시고 모종도 갖다 주시고 심지어는 와서 심어 주시면서 이렇게 심는 거다. 직접 해주시고 끝나면 삼겹살에 막걸리 한잔하는 여유와 재미가 있어서 시골 인심에 매일매일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는 십리포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 집

에서 차로 십여분 거리에 십리포라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이 넓어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5분 거리에 뒤로는 소사나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져있어 바로 저멀리 보이는 송도가 가고 싶어 집니다. 해수욕장에서 수영도하고 모래찜질도 하고 나서는 해변을 따라 연결돼 있는 나무 데크길을 따라 왕복 약 4, 5km의 길을 걸어 봅니다.

한쪽은 바다로 바다 냄새를 맡으면서 한쪽으로는 소나무 냄새를 맡으며 걷노라면 저절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느끼며 정말로 잘 왔구나, 정말로 좋은 곳 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면서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매일새벽 6시면 걸으러 나오시는 분들과의 굿모닝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문화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여 년 전 영흥도에 들어올 때 좋은 분들, 대화가 통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았는데 내 고향 포항분의 소개로 웅진문화원을 알게 돼서 인천지역 특히 웅진군에 대한 문화 문물에 대한 걸 공부하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분에게 감사한 마음입니다. 문화원에 가입하면서 태동철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고 웅진군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애착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걸 배웠습니다. 훌륭한 인품에 인간적인 멋쟁이로 존경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웅진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위를 생각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오신 분을 소개 드리오니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분들의 삶을 배우고 따르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부곡(思夫曲)

최병암(시인, 전 산림청장)

나의 모친은 시인은 아니시다. 그러나 노래를 좋아하셔서 인천에서 고교 졸업 후 KBS 가수 공채 1기 합격생 타이틀을 갖고 계시다. 가수의 꿈으로 도전하여 당당히 합격하였지만, 외할아버님의 결사반대로 꿈을 꺾어야 했다. 인천 토박이로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한 장래의 꿈을 꾸셨지만, 북에서 단신 월남하신 부친을 만나 결혼하신 후 부친과 함께 고된 노동과 가난 속에서 그 꿈들은 여지없이 현실의 먼지를 덮어쓰고 빛이 바랬음에 틀림없다. 젊으실 적 부친과 결혼 직전 찍으신 흑백사진을 볼 때면 어머니의 고왔던 얼굴이 더욱 서럽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세월을 견디신 힘은 부부간의 사랑이었을 것이라고 이제사 깨닫는다. 나를 포함한 자식들은 가난 때문이라도 더욱 엄격해지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당시에는 두 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잘 알지 못하였다. 항상 당당하시고 엄격하신 부친에 매여 쪼들린 삶의 굴레 속에서 가지신 재능들이 녹이 슬도록 어찌할 수 없으신 어머니가 늘 안쓰러웠을 뿐이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살이도 어느덧 마감된 여유로운 노년 어느 늦가을 날 부친이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었는데 중환자실로 모시고 간 후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우셨다. 돌아가실 줄만 알았던 부친이 반신마비 상태이지만 목숨을 건져 일반병실로 옮겨지셨을 때 그나마 어머니의 얼굴이 펴지셨다. 매일 병문안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이신 어머니가 하늘에서 눈이 하염없이 내리는 날 병실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평생에 단 한 수의 시를 써서 부친께 바치셨다.

당신이 쓰러지던 그날은 / 참으로 야속하였어요. / 나에게는 큰 사람이던 당신 / 아니 우주와도 같은 당신인데. // 그날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쳐서 / 비바람이라도 세계 불어 / 하늘은 왜 날 깨우지 않았는지 / 참으로 야속하였어요. // 당신 인기척에 깨어보니 새벽 네 시 / 이미 그 전에 모든 일이 벌어져 / 허둥지둥 병원 응급실로 갔건만 / 이미 때늦은 조치였어요. // 중환자실 / 가족들도 못 들어가는 / 심혈관실 중환자실 문 앞에서 / 문고리만 잡고 있었어요. // 하루 삼십 분씩 두 번의 면회 / 아침저녁으로 갈 때마다 / 버스 안에서 기도하며 / 당신에게 할 말 많이 준비했어요. // 중환자실 문이 열려 달려 들어가면 / 당신 몸 전체에 주렁주렁 달린 / 쇠사슬 같은 온갖 줄들에 말이 막혀 / 그저 당신 손만 만지작거렸어요. // 내 일생을 기대온 힘찼던 당신 / 얇은 이불 밑으로 보인 / 당신의 쪼그라든 다리에 / 미안함이 복받쳤어요. // 또 어느 날 늦은 밤 병원에서 / 위급하다는 전화에 달려가 보니 / 하혈을 많이 하고 있다는 당신 / 수술실 밖에서 발만 동동 굴렀어요. // 마음 졸이던 중환자실 두 달 / 다른 환자들 일반병실 가는 걸 / 무척 부러워 간절히 소원 빌던 그때 / 재활병동으로 옮기라던 교수님 음성 //

떨 듯이 기뻐 하늘에 감사했어요. / 교수님, 간호사님 모두 감사했어요. / 그래 이제 목숨만은 살았어요. / 존경하는 당신은 아직 이 세상에 있어요. // 재활병동에서 잠든 당신 얼굴 보고 / 총대병원 문을 나선 어느 날 / 하늘에서 흰 눈이 펄펄 내렸어요. / 오십년 전 당신과 연애했던 때가 생각났어요. // 오십년 전 눈 내리는 어느 날 밤이었죠. / 인천 주안동에 당신은 학생을 가르치러 갔고 / 나는 당신이 보고 싶어 그 집을 찾아가 / 두 손 꼭 잡고 걸어왔던 아름다운 기억 // 그때 길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 그 영화음악 주제가 생각나나요? / 우리 둘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했죠. / 아직도 그 가사 또렷이 기억해요. // "눈이 내리는데 / 산에도 들에도 내리는데 / 모두 다 세상이 새하얀데 / 나는 걸었네. 님과 둘이서 // 아아아 아~~ 눈이 내리는데 / 산에도 들에도 내리는데 / 모두 다 세상이 새하얀데 / 나는 걸었네, 님과 둘이서" // 당신도 기억하나요? / 그때 그 눈길을 / 당신도 잊지 않으셨죠? / 그때 우리 사랑을 // 어느덧 당신 병원 생활이 / 일 년이 되었네요. / 왼쪽 팔다리 모두 마비되었지만 / 당신 눈망울은 여전히 하세요. // 나의 남편 최성근 씨 / 제 말을 들어보세요. / 나의 사랑 최성근 씨 / 우리 새로운 연애를 시작해요. // 당신은 매일 나를 기다리시죠? / 나는 매일 오후 한 시에 당신을 보죠? / 아내 역할은 못 하니 애인이 되어 드릴게요. / 우리 애인이 되어 황혼 연애를 해봅시다. // 당신이 언제까지 이 세상에 계실지 /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 그때까지, 당신 눈감을 세상 끝까지 / 황홀한 황혼 연애 해볼래요.

(모친 박인자, 「당신이 쓰러지던 날」 전문)

내가 어머니 아들로 산 날보다 부모님은 더 오래 함께 사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오랜 추억과 깊은 사랑을 두 분이 갖고 계심을 이 한 편의 시로 또렷이 알게 되었다. 반신불수로 아무 역할을 못 하는 남편을 위해 황혼 연애를 하시겠다고 의지를 불태우신 어머니의 사랑이 내 가슴을 친다. 부친이 약 3년 7개월을 누워계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신 날 어머니는 묘소를 떠나며 부친이 계신 곳으로 이어진 긴 이팝나무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셨다. 올해가 부친이 돌아가신 지 벌써 만 10년이 되었다. 부친이 중환자실에 누우셨던 것처럼, 지금은 구순이 된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다. 그러나 어머니를 위해 사부곡(思婦曲)을 불러주실 아버지가 안 계시다. 나라도 사모곡(思母曲)을 불러야 하는데 두 분이 사랑하신 것만큼 담을 사랑이 크지 않아 자신이 없어 스스로 초라하고 애처로울 뿐이다.

기독교인 됨의 길

장종철(웅진문화원 회원, 감리교신학대학교 명예교수)

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조금 후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까마귀라고요."

노인은 조금 뒤 또다시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아들의 음성에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조금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주며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의 세 살 적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이나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생겨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읽으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과 함께 부모님께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읽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면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증거일 겁니다. 이런 미미한 변화들이 모여 결국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저는 '늙은 아버지의 질문 이야기'처럼 우리들의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행동과 관습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호에서 저는 「기독교인 됨의 길」이란 제목으로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들에게 있었던 영적 삶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변화와 창조적 미래를 위한 영적 삶의 길을 살아가게 하는 기독교인 됨의 길을 시사해 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별 어려움 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선교하면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큰 축복이며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금년으로 한국 기독교는 선교 14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교회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교회 성장은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왜, 교회의 성장이 감소되고 있는지 그 원인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서도 박해를 견디어 왔고, 6·25와 공산주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한국교회입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터전 위에 세워진 한국교회가 이제는 세속주의 물결, 물질 만능주의, 이단 종교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자체 내의 잘못된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밖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으며, 점차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21세기를 맞으며 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영적 지혜와 훈련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하기 위해서 무언가 확실하게 보여 주어야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역사상에 있었던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후 247년은 로마 제국의 창건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황제 필립은 지나간 천년의 영화를 오늘에 새로이 하고자 기념 축제를 만들고 3일 동안 로마 시민 전체가 한잠도 자지 않고 먹고 놀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 속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천년을 위하여 나라를 강건히 할 것을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는 무한대로 뻗어 나가고 있는 예전의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천년맞이 축제는 미래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지나간 천년의 향수를 그리워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축제를 시작하는 필립 황제 자신도 자기 자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무언가 보여 주어야 하

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외적으로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늘 염려해야 했습니다. 주 후 2~3세기의 로마 제국은 이방 민족을 방어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겨 정치적인 힘이 황제에서 군대로 이양되는 악순환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립 황제를 불안케 했던 황제 쟁탈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황제는 로마 시민의 환심을 사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였습니다. 크게는 민족을 위한 일이지만 내심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필립 황제는 주피터 신전을 대규모로 수축하고 주피터 신의 화신인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의적인 일치에서 국민의 사기와 관심을 모으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상투적인 권력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국가의 축제에 기독교인들이 서야 할 자리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국가의 번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짐과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기대와 아울러 황제 숭배라는 강요에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황제 필립의 아내와 딸들이 기독교인이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정신적 강요 외에 다른 국가 차원의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은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는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 때문에 먼 미래의 청사진을 펴는 국가 시책에 꿈을 함께 모으기가 힘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 시책이 이방의 종교적 제의를 통한 방법이라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는 기독교인들의 이런 갈등과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새로운 천년 맞이 기쁨이나 다짐을 국가적인 힘과 마음으로 모을 여유도 없이 변방의 국경선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필립 황제는 정신없이 몰아쳐 갔습니다. 축제를 지낸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필립 황제는 변방의 곱트족(Goths)의 침입에 대항하면서 가장 신뢰하던 부하 데키우스(Decius)에게 군대를 주어 평정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데키우스는 전투에 승리하고 회군하는 길에 부하들에 의해 황제로 추대되었습니다. 필립의 친위대와 데키우스의 회군과의 싸움은 데키우스의 승리로 끝나고 필립은 자살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꿈꾸던 사람에게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천년맞이의 축제는 이를 시작했던 필립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에게도 피와 죽음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새로운 황제 데키우스는 필립이 시행했던 정책을 끝까지 펼쳐나가기로 하고 주피터 신전의 제의와 황제 숭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사 의식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증인 두 사람을 세워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증서가 없는 사람은 체포, 구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책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단속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와 황제 숭배를 대립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의 제의에 참여하면서도 황제 숭배를 국가적 행사로 여기고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로마의 평화(Pax Romana)' 정책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종교에 관용을 베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황제 숭배를 위한 제의를 드림으로 로마 정부와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분명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신사참배가 단지 국가적인 정치 행사였다고 주장하여도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리 황제 숭배가 국가적인 정치의 의미만 띠고 있다고 주장해도 기독교인들은 이를 분명 우상숭배로 규정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이없게도 기독교인들은 매국노와 무신론자라는 오명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국노이고, 신(神)인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로 무신론자라고 지칭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다 순교의 길로 갔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황제 숭배의 제사에 분향하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황제 숭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저항한 교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 당하는 박해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처신하는 법도 익혀왔던 진실한 교인들에게도 이번의 박해는 더 어려운 박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증명서까지 발급하면서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박해는 로마 제국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었고 많은 순교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소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고백자들'과 '배신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의 순교자 수를 낸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입은 타격은 그 어느 것보다 컸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많이 배교한 것에 반해 주로 지도자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도자들 가운데 북아프리카 키프ريان 감독은 교인들의 간청에 의해 사하라 사막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정부 관리의 영향력이 비교적 많이 못 미치는 사막으로 피신해서 은둔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막으로 피신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박해가 끝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아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말씀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이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페르페투아(Perpetua)라는 한 여성의 순교에서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났습니다. 페르페투아는 20세쯤의 여성으로 아주 어린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세례 예비 교육생 신분으로 로마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가 감옥에 수감되자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설득하였습니다. 제발 기독교인임을 고집하지 말고 신앙을 저버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버지에게 꽃병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꽃병이지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꽃병이 꽃병인 것처럼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라는 이

름으로 살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이 세상에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피해 사막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평상시에는 인간에게 죽음의 땅이었지만 이들 피신자들에게는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불모지에서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땅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물에 하나님의 섭리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버려진 이 땅조차 거대한 영적 지원을 간직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로마 군인의 칼을 피해 사막으로 들어왔던 이들은 사하라에서 밤에는 무수한 별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지키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곳 사막에 숨어 들어왔던 이들에게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호전되어 다시 고향 식구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것에 앞서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땅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막은 오히려 이들에게 영적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면 사막에서 자신의 영적 가치와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자발적인 선택의 삶이 아니었을지라도 모세가 바로의 칼을 피해 광야에서 모래와 바람과 함께 살았고, 엘리야가 아합과 이사벨의 칼을 피해 심하게 지친 몸과 마음으로 사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의 기간을 거치셨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형벌의 땅,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내팽개쳐 던져지듯이 들어오게 되었지만, 사막은 오히려 이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와 바람이 이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산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은 곧 광야, 사막에서 훈련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평원에서 소용되는 당시로는 최신택 무기인 전차를 불태우고 말들의 뒷다리 힘줄을 끊고 오직 광야에서 자기 발로 사는 방식을 택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광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훈련받은 다윗이 평지의 신 바알을 의지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긴 이유는 물론 야훼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이나 광야에서의 다윗의 훈련도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윗이 더 강한 이유는 광야는 생존하기 위해서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로 음식을 삼았던 요한은 광야의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광야로 사람들이 나왔고 요한은 이들에게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도시를 향해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예수님도 사역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도시선교에 앞서서 광야에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의 기간을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광야는 인간적

인 면에서 훈련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음식을 통한 물질적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보호하지 않겠느냐는 권세에 대한 시험, 그리고 절하면 세상을 다 주리라는 명예에 관한 시험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이런 시험 후에 인간 문명의 상징인 도시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기도 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바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신앙적 훈련을 거치고 난 후에 선교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보다 먼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갈라디아 1:17)고 말합니다. 즉 그의 훈련 가운데 아라비아 광야의 훈련이 들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아에서의 훈련이 도시 문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막에서의 훈련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사막에서의 훈련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생존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막의 훈련은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의 '성장'은 다른 사람에게서 독립하여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과 간섭을 벗어나 의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고, 학교의 교육을 통해 스승으로부터 독립해서 독립적으로 학문을 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 결코 인간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적인 성숙이란 독립된 인간으로 커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신앙의 성숙이란 그 반대입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막 교부들의 훈련은 철저히 믿음의 훈련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사막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가해오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래바람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을 선포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용인하였습니다. 몇십 년 후에는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용인한 콘스탄틴 대제는 몰수된 교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재산을 환원하였습니다. 모든 교회 재산에 대해 면세권을 부여하였고, 교회 건축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였고,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론 콘스탄틴에 의한 기독교 승리가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기쁨을 누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 박해의 시대는 끝난 셈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직 온전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단지 박해의 시대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예배를 허용함으로써 인해 기독교가 얻었던 이득은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이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개입 이후 기독교가 순수 신앙에서 정치적 바람을 타게 만든 원흉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결국 기독교의 타락이라고 혹평하는 이들도 있으나 그것은 너무 단순한 역사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독교는 역사 안의 종교이고, 역사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독교 또한 인간 제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제도를 벗어나 오로지 순수하게 영적인 기독교는 원리상으로는 가능해도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제도에 불순물이 섞여 있어도 기독교는 이런 불순물 속에서 자신을 시험해야 하고, 바로 이런 불순물을 정화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순물을 지닌 인간적인 제도도 기독교의 확장과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합니다. 가령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어도 그렇다고 돈 없이 선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돈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는 말씀이지 돈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가지고 큰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치제도가 기독교에 호의적이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로마 제국 내의 종교 중 으뜸의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의 모든 이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 가져다준 이득은 가장 먼저 감독들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에서 사경을 헤매던 감독들이 이제는 황실이 제공하는 저택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돌레에 제자들이 둘러앉아 식사하던 것처럼 감독들이 황제와 한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스스로를 감독으로 지칭했기에 이전 국가의 죄인이었던 감독들은 이제 황제와 동격이 되었습니다. 감독들에게는 제국의 정치에서도 고문의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의 신학적 분열을 막고자 황실이 있는 근처 니케아라는 도시로 교회 회의를 소집하고 황실의 경비로 소집되어 오는 모든 감독들에게 황실의 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국의 마차를 피해 사막으로 도망 다니던 감독들이 이제는 황제의 마차에 앉아서 자기를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의 호위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속속 니케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황제의 주재하에 아리우스 측과 아타나시우스 측이 서로 다른 기독교론과 구원론을 바탕으로 한 다른 신조를 제출하였고 전체 교회는 회의를 통해서 이를 통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니케아 회의를 거론하는 것은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보다는 교회의 변화된 위상이 얼마나 크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일개의 사적인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의 정치 가운데 으뜸되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 기독교인 됨의 정체성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독교인 됨이 순교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던 것이 콘스탄틴 이후의 기독교는 순교의 의미도 육체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순교자로서의 기독교인 됨의 정체성이 한껏 고조되고 응집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응집이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순교자로서의 기독교인 됨의 정체성

해체 문제는 세례와 성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의 삶의 먼 순례의 길에서 이 땅에서 받는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결단을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는 것이고, 순교의 공동체는 자신들과 함께 죽고자 결심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이 가져다 줄 구원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세례는 교회의 가르침에서 세례를 위한 문답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만찬에 세례 받은 사람들만 참석케 한 것도 세례 받을 때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이제 우리에게 '상징'이거나 '기념'이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징적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피'에로의 부름이었습니다. 성만찬이 가져다주는 신학적 의미는 새로운 생명이었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받는 실제적인 방법은 순교를 통한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순교의 상황으로 죽음을 대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증명해 주고 있듯이 성만찬의 참여는 육체적인 순교의 피보다는 도덕적 삶으로의 참여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만찬과 세례가 갖고 있었던 일차적 의미는 문자 그대로 십자가의 피에서 죽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본고를 마감하면서 필자는 초대교회 사막 수도원을 시작한 안토니오의 영적인 공헌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는 안토니오를 수도원의 첫 창시자이며 모든 수도사의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에게 이런 영광을 부여한다는 사실은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안토니오는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공동체 조직이나 제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안토니오를 사막 수도원 운동의 아버지라고 존경받는 이유는 안토니오라는 한 인물이 가진 하나님과의 경험에서 나온 영성과 삶에서 배우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토니오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는 오늘 우리들이 사막 수도사들의 영적 지혜와 훈련을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토니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중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죽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악인은 흥하고 의인은 궁핍에 처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안토니오야, 네 자신에게나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판단에 속하는 것이므로 네가 이 일을 안다고 해서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니라."

존 번연의 문학과 비전

장중철(웅진문화원 회원, 감리교신학대학교 명예교수)

I. 시작하는 말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은 개신교의 위대한 회심가요, 설교가요, 복음 전도자요, 영혼의 참 목회자였다. 철저한 열심, 근면, 헌신 때문에 그는 번연 감독(Bishop Bunyan)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였다. 그는 17세기 존 밀턴과 함께, 경건성을 신앙의 특징으로 하는 영국 청교도의 문학을 대표하는 산문 작가이기도 하였다. 그의 작품 속에는 무한한 상상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들어 있으며, 그는 후대의 작가, 설교가, 전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풍부하고 흔들림 없는 소망과 경건성을 보여 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또한 번연은 우화 작가로서 대중적인 문학의 형태로 청교도의 교리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인물이었다.

번연은 무식했으나 성경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부터 탐구심을 가졌고, 성경을 연구하여 철저한 청교도주의의 영웅적 이미지를 담은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등 60여 권에 달하는 복음주의적 내용을 담은 고귀한 문학 작품과 논문, 전도문, 등의 신앙적 유산들을 남겼다. 번연은 『흠정역(King James Version)』이라 불리는 영어 성경의 언어를 작품 속에 담음으로써, 성경이 지닌 위대한 가치 있는 것들을 문학의 형태를 통해서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비기독교 세계에 널리 알렸다. 또한 작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을 기초로 하는 문학의 발상과 성경이 작가들의 상상력과 영감의 원천이며 비전이 된다는 의미를 갖게 하는 데 공헌하였다.

번연의 공헌에 관한 후대의 영향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의 문학 평론가 버나드 쇼(Bernard Show)는, 번연의 『천로역정』의 문학적 표현은 셰익스피어의 문학보다 더 위대하다고 논평하였다. 번연의 문학적 영향은 영적 세계의 비전과 경건을 추구했던 스펀전(Spurgeon)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세속적 노동 세계의 가치를 추구했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또한 번연은 현대의 헨리 누엔(Henry Nuween)과같은 신학자들에게 영적 사고의 자원을 공급해 주는 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또한 그의 작품은 오늘날 영적 형성의 성숙을 추구하는 많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읽히고 있고, 영적 영향력을 공급해 준다.¹⁾

¹⁾ John Bunyan의 The Pilgrim's Progress(Penguin Book, 1987)과 이 책에 붙여진 Roger Sharrock의 서문. 존 번연, 유성덕 역 『천로역정』(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Wolfgang Iser, The Implied Reader from Bunyan to Beckett(1974); John Brown, John Bunyan: His Life, Times and Work(Hulbert Publishing Company, 1928); 마틴 로이드 존슨, 서문강 역 『청교도신앙』(생명의 말씀사, 1990; 에드워드 힌스, 박영호 역), 『청교도신학』(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참고.

II. 번연의 생애와 영적 순례

1. 배경

존 번연은 전쟁과 기독교의 분쟁이 극심했던 1628년 영국의 베드포드(Bedford) 근교 엘스토우(Elstow) 지방에서 태어나서 1688년 런던에서 마지막 전도 강연을 마치고 말을 타고 돌아오던 중 비를 맞아 폐렴으로 사망했다.

그가 살던 시대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30년 전쟁 속에 휘말려 싸움을 벌이던 때였다. 영국은 1640년대에 시민전쟁을 치렀는데, 그것은 영국 국교와 청교도, 왕과 의회 수호자 세력 사이의 싸움이였다. 이러한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번연은 그의 회심과 자신의 인생관을 작품 속에 반영하고 있다. 번연의 작품 세계는 청교도 신앙 운동의 경건성, 철저한 성경적 신앙과 순종, 끊임없는 죄의 유혹, 선과 악의 무대인 세상, 그리고 사탄과 대항하여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는 번연의 생애와 그의 작품 세계를 통해서 번연의 경건과 비전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번연의 신앙 세계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네 시기, 곧 소년 생활, 군 생활, 결혼 생활, 목회 생활로 구분해서 그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비전을 탐구해 본다.

2. 생애

1) 제1기: 소년 생활

번연은 가난하고 무지한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 그리브스(Richard L. Greaves)의 책 『존 번연의 생애』에 의하면, 그의 출생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번연(Bunyan Thomas)의 아들 존(John)은 11월 30일 세례를 받다."라는 극히 사무적인 기록뿐이다. 그의 아버지는 땀장이 혹은 떠돌이 농장수였다. 그리고 번연 자신은 아버지의 직업(정확하게 농쇠 세공사)을 이어받았다. 그는 다른 가난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책 읽는 법과 글 쓴 법을 배웠다. 그는 시골 소학교(Grammar School)를 나왔다. 그의 교육열은 일찍이 좌절되었다. 그는 몽상과 두려움에 의해 혼란에 빠져 다소 신경질적이고 병적인 아동기를 보냈던 것 같다. 이상한 것은, 그렇게도 다감한 소년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게을러졌으며, 악하고 불량스럽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분명히 무식하고 불량스러운 떠돌이 땀장이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번연은 음악을 무척 사랑했지만, 악기를 살 만한 돈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는 않았다. 번연은 해머질을 하여 쇠로 바이올린을 만들었고, 후에는 의자의 네 다리 중 하나를 깎아 플루트를 만들었다.

2) 제2기: 군 생활

번연은 1644년 16세 때에 군에 입대하라는 소집령을 받아 약 3년 동안 군복무를 했다. 그 자신은 왕당파와 의회파 어느 편 군대에 입대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기록들에 의하면 1644년 16세에 의회파군에 징집되어 2년이 넘도록 군복무를 하면서, 베드포드(Bedford)에서 약 13마일 정도 떨어진 뉴포트 파그넬(Newport Pagnell) 수비대에 있었다. 전투는 전혀 없었으며, 전투 대신에 고도의 상상력과 민감한 의식 작용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번연은 군대에 있는 동안 뉴포트 파그넬 교구 회의의 청교도 목사와 종군하는 군목에게서 많은 설교를 들었다.

1643년 발행으로 되어 있는 군인 수첩에는 "군인은 악행을 금한다. 군인은 위급할 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호소하라. 그러므로 군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으로 정신 무장과 육체의 무장을 철저히 하라. 그리고 군인이 인간으로서 최후의 아슬아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명심하라." 등의 표어가 있는데, 그도 이를 익혔으리라고 본다. 나중에 그의 저서 『성전(The Holy War)』에 그 표현을 반영하고 있다.

3) 제3기: 결혼 생활

번연이 제대할 때 그의 나이는 19세였고, 당시에 첫 번째 결혼을 하였는데, 그는 후에 또다시 결혼을 하였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는 첫째 아내에게서 네 명의 자녀를 보았는데, 그중 한 명이 앞을 못 보는 딸 메리였다.

그의 두 번째 아내 엘리자벳은 매우 용감한 여인이었다. 그는 권력자들의 적대감을 곳곳이 막아냈으며, 번연이 재판받을 때 여러 가지 탄원을 올렸다. 특히 번연의 설교가 문제 되어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러하였다. 엘리자벳과 번연 사이에는 두 자녀가 있었다. 엘리자벳은 번연에게 잊혀졌던 교육열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가 시집을 때 가져온 혼수감이라고는 부친이 죽을 때 물려준 단 두 권의 종교서적, 덴트(Arthur Dent)가 쓴 『천국을 향한 평신도의 길(The Plain Man's Pathway to Heaven)』(1601)과 베일리(Lewis Bailey)의 『경건의 실천(The Practice of Piet)』(1613)뿐이었다. 그는 결혼 초기에 이 책을 즐겨 읽음으로써 후일 우화와 설교에 대화체를 즐겨 사용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고 한다. 베일리의 책은 좀 지루하고 평범한 내용이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와 인간이 주고받는 긴 대화가 나온다. 이 책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간이 대화하는 내용을 예로 들어본다.

인 간: 주님, 무엇 때문에 당신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나요?

그리스도: 너를 나와 더불어 하늘로 데려가기 위함이니라.

인 간: 주님, 왜 당신은 팔을 벌린 채 못 박히셨나요?

그리스도: 너를 좀 더 애정을 기울여 품기 위함이니라. 내 사랑하는 이여!

인 간: 주님, 왜 당신의 옆구리에는 창에 찔림으로 벌어지게 되었나요?

그리스도: 네게 나의 심장으로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함이니라.

인 간: 주님, 당신은 왜 무덤에 묻히셨나요?

그리스도: 심판 날에 네 죄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번연은 이 책들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삶을 살피보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번연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는 갑자기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였으며, 종종 느껴지는 하나님의 용서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번연 자신이 체험했던 희망과 절망을 묘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종적인 깨달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들의 믿음과 체험을 이해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방법의 하나로 있다. 두 번째 결혼 후 약 4년 동안은 번연에게 영적 성장의 시기였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Grace Abounding to the Chief of Sinners)』(1666)는 이 시기에 쓰인 작품으로 당시 번연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이 책은 그의 다른 모든 저서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며, 자기 체험을 요약해 놓은 자서전적인 책이다. 이 시기에 번연은 하나님의 선택, 은혜의 날, 성령을 훼방하는 죄 등의 문제점에 대해 번민하였다. 그에게 상처받은 양심을 위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과 존 기포드(John Gifford)의 『목회 생활』이란 두 권의 책이었다. 기포드는 번연의 회심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그는 이전에 방탕하였고, 왕당파 군의 장교였으며, 1650년에 개종하여 베드포드 지방 비국교파 회중의 목회자가 된 전형적인 복음 전도자였다. 그는 순례자 번연이 좁은 문과 광명이 있는 곳으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었으며, 1653년에 번연을 회중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얼마 후에 번연은 "훈계의 말씀(설교)"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적인 첫 설교가 되었다.

4) 제4기: 목회 생활

1655년 번연은 엘스토우 지방에서 베드포드 지방으로 이주했는데, 그 해에 그는 첫 번째 아내를 잃었다. 또한 형제들로부터 설교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번연의 메시지는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신교의 자유가 있던 시기에 그는 교구 안에서 한 번 이상 설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정복고로 말미암아 신교의 자유는 없어지고, 왕당파의 허가 없이는 설교하지 못하는 포고령이 내려졌다. 1658년 3월 초에 번연은 이 법령에 저촉되었다. 그리고 1660년에 그는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이 기간에 번연은 『죄인 괴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번연의 이해로서, 그의 영적 자서전이다.

번연은 베드포드 다리 위에 있는 시립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기간은 6개월이었다. 그때 그는 『천로역정』의 전편을 썼다. 이 책은 위험과 함정을 모두 지나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유창하고도 아름답게 묘사하였다. 『천로역정』은 번연의 대표작으로서 영국 문학사에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20세기의 대표적인 영문 소설이다.

3. 『천로역정』

『천로역정』의 전편은 1678년에 출판되었고, 후편은 거의 7년 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은 즉각적으

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전편의 3판이 1년 안에 팔렸다. 『천로역정』은 우화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요, 청교도의 경건한 신학 사상을 담고 있으며, 청교도의 신앙을 국민 생활 속에 실천적으로 정착시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순례의 길을 모범으로 보여 준 최초의 위대한 소설이다.

이 작품 속에서 번연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끌어들었다. 이 작품에서 번연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에 대하여 은유적인 방법과 단어로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여, 원형을 그대로 제시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한 인간이 영원불멸한 하늘의 상을 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독자들 앞에 그려 놓고 있다. 주인공이 어디를 떠나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늘나라 영광의 문 앞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뛰고 또 뛰는지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 책은 또한 마치 영원한 왕관을 얻을 것처럼 인생행로를 급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들의 노고가 아무 쓸데없게 되고, 마침내는 바보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번연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내적 고민을 통해 독자들의 종교 생활을 심리적으로 자주 고무시켜 줌으로써 기독교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이 작품 속에 담고 있는 문학의 형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기독교의 영적 특징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인 외로운 순례자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며, "허영의 시장" 거리를 지나 "곤고산"을 넘어 마침내 "죽음의 어두운 강"을 건너는 동안, 우리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서 흐르는 서사시를 읽게 된다. 『천로역정』의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된다.

세상의 황량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곳에 이르니 거기에는 굴이 있었다. 나는 그 굴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집에서 떨어진 어떤 장소에 서 있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던 그는 이윽고 책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어 내려가다가 그는 몸을 떨며 울고 있었다. 그러더니 마침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슬픈 목소리로 "어찌할꼬?"(행 2:37)라고 울부짖었다.

"세상의 황폐한 광야 지대를 두루 다니다가……"란 표현 속에서 우리는 현대의 사막을 세상에 비유한 신학자 헨리 누엔(Henry Nuween)의 설명에서처럼 새로운 감명을 얻게 되고, 어떤 꿈과 비전을 보게 된다. 모세가 영적으로 각성한 광야는 미디안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회심 이후 신앙적인 양육과 영적 성숙의 과정을 보냈다. 그러면 오늘의 광야는 어디인가? 오늘 우리의 광야는 바로 세상이다. 헨리 누엔의 말처럼 오늘의 광야는 바로 세상인 것이다. 세상에서 지친 번연이 피곤하여 동굴 속으로 피신해 잠이 들고, 꿈의 세계에서 본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천로역정』의 영향은 거대하다. 성경을 제외하고 이 책만큼 젊은이와 노인들, 학식 있는 이들과 무식한 이들,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은 없었으리라. 스펀전은 이 책을 120번 읽었다고 하는데, 인쇄공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 10독이라

고 고쳐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Ⅲ. 그의 설교와 비전

1672년 1월 21일, 베드포드의 교회 기록에 의하면, 번연이 감옥에서 석방된 후 회중들은 번연을 목회자직과 장로직에 임명했다. 거기서 그들은 한 과수원을 매입하고 헛간을 개조하여 회합 장소로 만들었다. 번연은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목회하면서 회중의 근거지로 삼았다. 이때 설교가로서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이때 그는 감독 번연으로 불렸고, 영국 전역을 여행하며 설교하였다.

번연의 설교를 듣고자 회중들은 아침 일찍 7시에 모이곤 했다. 번연이 설교가로서 성공한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그의 설교 내용에 있었다. 그는 설득력 있고 단순한 말을 사용했다. 그의 모든 정신은 성경에 몰두해 있었다. 그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말했다.

나는 내가 느꼈던 것, 내가 심각하게 느꼈던 바를 설교했다. …… 나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옥에 갇혔으며, 그들이 깨닫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양심의 고통을 받았다.

후에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관련된 사건들과 은총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에 대해 역점을 두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설교는 강경하고 극적(dramatic)인 요소가 있었다. 그의 설교 중 한 대목을 들어본다. "구원받은 예루살렘의 죄인(The Jerusalem Sinner Saved)"에서 번연은 이렇게 설교한다. "여러분들, 모두 회개하십시오"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번연이 엮은 설교 내용이다.

적대자 : 그러나 나는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소. 그런데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베드로 : 당신들도 모두 구원받을 수 있소.

적대자 : 그런데 나는 예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무리 중의 한 사람이었소. 그런 나도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요?

베드로 : 당신도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요.

적대자 :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치며 예수보다 살인자 바라바를 명절에 놓아주기를 원했던 군중의 한 사람이었소. 당신 생각에 나는 어떻게 될 것 같소?

베드로 : 나는 당신들 모두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여기에 있는 당신들 모두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복음 전파자의 참된 정신이었고, 그에게 자비심을 보여 주셨던 그리스도의 정신인 무한한 연민과 온유함으로 가득했다. 번연이 설교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비결 중의 하나는 바로 그의 강렬한 동정심이었다. 번연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The Heavenly Footman)』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적으로 말한다.

좀 더 용기를 내어 그 일을 착수하십시오. 달려가다가 당신이 피곤해서 지치게 되면, 주 예수님은 당신을 일으켜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영혼일지라도 경주를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당신은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구자입니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을 품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팔로 어린양을 모으시고 그의 가슴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여 지치게 될 때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안고 가실 것입니다.

그의 설교에서 웅변 이상의 것, 즉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지칠 줄 모르는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서 영혼의 참된 목자의 부드러움을 느끼게 된다.

IV. 위치와 영향

번연은 성경에 근거해서 철저한 청교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번연의 친구였던 도(Doe)는 번연을 일컬어 위대한 회심자라고 했다.

번연의 대표적인 작품은 『풍성한 은혜(Grace Abounding)』, 『천로역정(Pilgrim's Progress)』이며, 그중에 『천로역정』은 중세 가톨릭 아퀴나스의 대표작 『신학대전(Summa Theologiae)』에 비교해서 복음주의의 신학 사상을 담은 『복음주의 신학 총서(Summa Theologiae Evangelicae)』라고 불린다. 이 책은 세계적으로 112개의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제2의 성경처럼 어디에서나 읽히고 있다. 번연은 명성 있는 설교가로서 아침 7시부터 런던 등지를 순회하면서 설교했고,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감동적인 그의 설교를 들었다. 그는 꿈과 비전을 갖고 세상과 천국 사이를 살았고, 성경을 통해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영적 감화력을 주었던 영혼의 참 목자였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레스트 카터 지음, 조정숙 옮김

삶이란 곁에 누가 있는가에 달렸다

김국희(한국숲해설가협회 상임대표)

영진원에머디

주변에 성가신 일이 있어 마음이 어지럽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불편할 때면 시골에 살고 계신 누님 댁을 찾아가곤 한다. 점심을 준비하시면서 누님은 머리가 허영고 없는 머리가 더 많은 막내 동생한테 "재는 온다는 기별이라도 하고 오든지, 내놓을 게 없어 야단 났네." 하시면서 청국장을 끓인다, 텃밭에서 상추를 뜯고 풋고추를 따다 하여 푸짐하게 한상을 차려 내놓으신다. 동생이 남편과 겸상을 하여 밥을 먹기 시작하면 누님은 그제야 밥공기와 수저를 들고 와 상 한쪽에 자리를 잡으신다. 대개 누님 밥그릇은 방바닥에 놓이게 마련. 그러거나 말거나 막내 동생은 상추쌈을 싸고 풋고추를 된장에 찍어 입에 넣기 바쁘다.

잠시 후에는 시시콜콜 사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무릎이 말썽을 부려 연골주사를 맞은 이야기, 며칠 전 시어머니 제사 때 시동생과 시누이들이 제사를 지내러 와서 수다를 떠는 얘기, 군대 간 큰손자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할머니한테 편지 보낸 이야기, 늙으신 매형 홍보는 이야기(물론 매형은 함께 식사 중이다) 등등이 진행된다. 다음에는 옛날 시집오기 전 할머니 모시고 엄마 아버지와 열두 식구가 함께 살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어렵던 시절 고구마 옥수수 쪄 먹으며 허기를 달렸던 이야기가 펼쳐진다. 막내 동생의 꼬끄만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여 주던 얘기까지 거친 다음에, 그 꿈을 깨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온양에서 가게를 하시는 막내 누님의 큰며느리가 이모님께서 보내주신 하지감자가 맛있다고 전화를 했더라는 얘기까지 닿은 다음에 누님은 "애구구, 무릎이야. 강아지 밥 주어야겠다" 하시며 일어나신다. 그렇게 몇 시간을 누님과 지내고 돌아오면 그날 밤은 잠이 깊이 들어 아침까지 늦잠을 잔다. 차가워 보이던 세상에도 조금 온기가 도는 듯하고, 자식들한테 전화로 뭔가 잔소리를 하는 아내의 찡그린 얼굴도 미워 보이지 않는다.

이런 현상을 Human Support('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심리적 지원' 정도의 의미인데, 번역할 말이 마땅치 않아 그대로 쓴다)라고 한다는 걸 얼마 전 어느 신문의 칼럼에서 읽고, '맞네, 맞아'하고 맞장구를 쳤다. 따뜻한 사람들로 부터 얻는 심리적 안정감을 Human Support라고 한다는 것이다.

삶이란 것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곁에 누가 있느냐에 달렸다고도 하고(샤를르 드 푸코, 「나는 배웠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도 한다. 하버드대학교의 유명한 〈인생 연구〉의 결론은 '행복의 열쇠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이고,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책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에서도 Human Support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 읽을 수 있었다.

이 책의 원제 『The Education of Little Tree』를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로 번역한 것은 참 잘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에는 '영혼이 따뜻했다' 혹은 '따뜻한 영혼'이라는 진술은 들어있지 않지만 할아버지(웨일즈)와 할머니(보니 비)의 사랑 안에서 나 '리틀 트리'의 영혼은 언제나 따뜻했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가 넘쳐흐른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를 통해 시련과 역경을 헤쳐 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다양하게 전개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지극한 사랑으로 가혹한 현실을 이겨나가는 모습이 가장 잘 형상화된 부분이 '늑대별이란 제목이 붙어 있는 장이다. 고아원으로 끌려가 몸에 피가 흐르도록 매를 맞으며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주인공에게 저녁마다 바라보는 늑대별(시리우스의 다른 이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다)은 영혼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 하늘에 떠 있는 늑대별을 통해 조부모와 손자의 영혼과 사랑이 만나기 때문이다. 늑대별이 뜨면 나의 시선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시선이 별로 모여 합쳐지고, 그리움은 사랑으로 흘러 리틀 트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가혹한 현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 자신을 구해달라는 주인공의 호소를 늑대별은 빛을 잃는 모습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전해 준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찾아오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삶을 되찾는다. 다시 영혼이 따뜻해지는 것이다. 이 책에는 이처럼 따뜻한 마음들이 차고 넘친다. 파인 빌리, 윌로 존, 와인 씨가 그러하고, 리틀레드니 모드니 리핏이니 하는 개들도 내 영혼을 따뜻하게 해 주는 가족들이다.

이 책에는 영혼의 따스함을 배경처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등장한다. 자연의 하나로 살아가는 체로키족 인디언의 삶이 영혼의 따스함과 조화를 이룬다. 따뜻한 마음이 자연과 조화롭게 연결된다. 대지는 어머니 모노라(Mon-o-lah)이다. 어머니 대지는 할머니가 만들어 신겨준 모카신을 통해 작은 나무에게 전달된다. 혈관처럼 그녀의 몸 전체에 퍼져 있는 뿌리들과 그녀 몸 깊숙이 흐르는 수맥의 생명력들도 작은 나무에게 친절하고 부드럽다. 할아버지 뒤를 따라 대지를 걷는 작은 나무는 그녀의 가슴 위에서 통통 뛰는 느낌이다.

봄이 되면 씨앗들은 어머니인 대지 모노라의 자궁 속에서 열을 받아 싹을 틔운다.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온도는 각각 다르다. 대지가 이제 막 따뜻해지기 시작할 무렵에는 아주 작은 꽃들만이 피어난다. 대지가 좀 더 따뜻해지면 좀 더 큰 꽃들이 피어나고, 나무에도 수액이 돌기 시작한다. 나무들은 임신한 여자처럼 기지개를 켜며 부풀어 오르다가 가지 끝에 일제히 새싹을 터뜨린다.

탈콘 매가 메추라기를 사냥해 발톱으로 움켜쥐고 날아오르자 작은 나무가 슬픈 얼굴을 한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슬퍼하지 마라, 작은 나무야. 이게 자연이 이치라는 거다. 탈콘 매는 느린 놈을 잡아갔어. 그러면 느린 놈들이 자기를 닮은 느린 새끼들을 낳지 못하거든. 또 느린 놈 알이든 빠른 놈 알이든 가리지 않고 메추라기 알이라면 모조리 먹어 치우는 땅쥐들을 주로 잡아먹는 것도 탈콘 매들이란다. 말하자면 탈콘 매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거야. 메추라기를 도와주면서 말이다."

할아버지의 늙은 벗 월로 존이 죽음을 맞이하는 의연한 태도도 자연을 닮았다. 임종의 순간에 월로 존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죽으면 저기 있는 소나무 옆에 묻어 주게. 저 소나무는 많은 씨앗을 퍼뜨려 나를 따뜻하게 해 주고 나를 감싸주었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걸세. 내 몸이면 2년 치 거름 정도는 될 거야." 몸을 떠난 월로 존의 영혼은 소나무 가지를 흔들고 산등성이의 높은 나뭇가지들을 휩쓸고 난 뒤 산봉우리 너머로 사라진다. 할아버지는 월로 존이 돌아올 것이라고, 바람 속에서 그를 느끼고 나뭇잎의 속삭임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한다. 자연과 영혼은 그렇게 얽히고 감겨 있는 것이다.

자연의 일부로 사는 동안 모든 것은 조화롭고 풍요로웠다. 백인들은 늦여름이 되어서야 밭에서 수확을 하지만, 인디언들은 최초의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이른 봄부터 시작해서 도토리야 밤 따위를 줍는 여름과 가을까지 계속해서 수확을 한다. 할아버지는 숲을 손상시키지 않고 숲과 더불어 산다면 숲이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체로키족처럼 자연을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않고 금을 긋고 분리를 시켰다. 자연을 대상화하면서부터 인간의 독선과 오만과 독주가 시작되었고, 몹쓸 주인이 노예 부리듯 자연을 혹사했다. 심지어 자연을 사유화하고 사고파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

1854년,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피어스는 미국 서부에 거주하던 수꾸아미(Suquami) 족(族)에 백인 대표단을 파견하여 인디언 부족이 살아오던 땅을 팔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워싱턴 주에 해당하는 인디언들의 삶의 터전을 차지하는 대신 인디언 보호구역을 주겠다는 것이 백인 정부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수꾸아미 족 추장 시애틀(Seattle)은 피어스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요지의 편지를 보낸다.

"어떻게 감히 우리의 푸르름과 땅의 따스함을 사고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가 아닌 신선한 공기와 햇빛에 반짝이는 냇물을 당신들이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 땅의 반짝이는 솔잎 하나도, 냇물의 모래밭도, 뽀뽀한 숲의 이끼 더미도, 모든 언덕과 곤충들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우리 민족의 경험에 따르면 성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향기로운 꽃들은 우리의 형제이고, 사슴, 말, 커다란 독수리까지 모두 우리의 형제입니다. 거친 바위산과 초원의 푸르름, 조랑말의 따스함, 그리고 사람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산과 들판을 반짝이며 흐르는 물은 우리에게 있어 그저 물이 아닙니다. 물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의 피입니다. 생명의 실타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중 하나의 실 가닥일 뿐입니다."

'어떻게 그 신성한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마음 안이 스산할 때면 나는 이 책을 뽑아 들고 아무 데나 펼쳐서 읽는다. 그런 책들이 몇 권 된다. 피천득, 이양하, 정지용의 수필들, 법정 스님의 책, 작고하신 장영희 교수의 책이 그러한 책들이다. 요즘엔 어떤 일인지 논어니 맹자니 오뒷세이아 같은 책들한테도 손이 간다. 며칠 전부터는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을 다시 읽고 있다.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여행
- 단테 《신곡》 다시 읽기

인간의 내면과 영혼의 여행

차윤옥(시인, 계간문에 편집주간)

참고 견디는 자

사랑은 위대하고 영원하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의 제일은 사랑이라는 내용이 있다. 사랑을 증명하고 실천한 시인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 시성(詩聖) 단테 알리기에리 (두란테 델리 알리기에리 1265~1321)다. 본명인 두란테는 '참고 견디는 자'라는 뜻을 지녔다.

단테는 피렌체 최고의 공직인 프리오리(피렌체 최고 행정기관이자 6인 집단 수상체제)까지 올랐다가 추방되어, 이탈리아 각지를 유랑하다 사망한 시인이다. 그가 유랑생활 동안 쓴 『신곡神曲 La divina commedia』은 중세 최고의 철학서로 손꼽힌다.

T·S 엘리엇(1888~1965)은, 근대 세계는 단테와 셰익스피어가 나눠 가졌고, 제삼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의 문인 중 단테를 최고로 칭찬한 바 있다. 조반니 보카치오(1313-1375)는 신곡을 '신적인' 작품이라고 극찬했으며, 엥겔스(1820~1895)는 "이탈리아의 단테는 중세기 최후의 시인인 동시에 신시대 최초의 시인이다."라는 최고의 찬사를 바쳤다. 또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1865-1939)는, 단테를 그리스도교적인 최고의 상상력을 갖춘 시인이라고 평했다. 이외에도 단테에게 최고의 시인이라는 찬사를 바친 사람이 많다.

서양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로마 신화』를 읽어야 하고, 같은 맥락, 같은 관점으로 쓴 서양의 첫 이야기인 호메로스(기원전 8세기 경 활동)가 쓴 『일리아드 Iliad』와 『오디세이 odyssey』, 베르길리우스(기원전 70~19)가 쓴 『아이네이스 Aeneis』 등을 읽어야 한다. 그 책들을 읽고 난 뒤, 단테와 함께 『신곡』 여행을 떠나면 첫발을 내딛기 수월해지고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호메로스와 베르길리우스는 단테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더불어 당시 문학의 특징과 단테가 처했던 불우한 상황, 피렌체 정치 양상 등의 배경 지식을 쌓은 후에 읽으면, 『신곡』에 대한 이해도 더욱 풍부해진다.

『신곡』은 저승을 여행한 이야기이다. 지옥·연옥·천국에 각각 33곡(칸토)씩 배분했고, 서곡 1곡을 더해 10의 제곱을 나타내는 완벽한 숫자 100곡이라는 완결된 구성으로 엮은 대서사시이다. 신곡은 지옥·연옥·천국에서 각 곡의 분량을 비교적 일정하게 꾸몄으며, 지옥·연옥·천국을 치밀하게 잘 꾸며진 세계로 묘사했다.

지옥은 동심원의 구조로 지구의 중심을 향해 점점 내려가는 여행, 연옥은 바다 가운데 있는 섬 여행, 천국은 지구 외곽에 있는 행성들로부터 지고천에 이르는 여행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행자의 윤리, 정신적 체험을 상상 속에서 보여 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대의 사회 현실을 빗대어 보여 주고 있다. 온갖 종류의 범죄와 방종을 행한 자들이 등장하여 구어체와 유머러스한 문체를 사용하면서 생생한 현실 이야기가 전개된다. 결국 신곡은 인간이 탐욕의 죄에서 구원받고,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살아 있는 단테가 죽은 사람들만 가는 사후세계를 여행하며 보고 듣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베아트리체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한평생 첫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베아트리체만 사랑한 단테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신곡』에서 단테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사랑'이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지옥 3일, 연옥 3일, 천국 1일 동안, 일주일 여정으로 떠난 사후 세계 여행은 자신의 구원과 사랑을 향한 순례였다.

단테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 실존했던 인물 천여 명을 『신곡』에 등장시켜, 자신에게 화를 내게도 하고, 기쁨을 주게도 한다. 신곡을 읽다 보면 무엇보다 수많은 등장인물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신곡』은 당시 지식인의 문자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민중들이 사용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방언으로 썼다. 책의 원제 『디비아나 코메디아 Divina Commdia』는 '신성한(신에 관한) 희극'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바로 그 토스카나어가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모체가 되었다니 작가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그 제목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신곡은 비극이 아닌 희극, 즉 코미디이다. 코미디는 그리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장르다. 권력을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 부자들을 풍자해서 웃음을 주는 진짜 코미디(희극)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그리스인들은 통치자들의 비난과 시민들의 야유를 피해 도시에서 상연하지 못하고 시골 마을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코미디가 탄생했다. 『신곡』 또한 중세의 체제를 뒤 흔드는,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는 위협적이고 불온한 장르의 코미디 서적인 셈이다. 좋게 해석하자면 현실의 절망인 지옥에서 천국으로 향하는 희망을 보게 되는 희극이다. 처절한 몰락인 비극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 희극의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 밝혀 놓았다.

단테가 35세 되던 해인 1,300년 부활절을 사흘 앞둔 성 금요일인 4월 8일 저녁 무렵, 길을 잃고 어두운 숲속을 헤매기 시작하는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고 되뇌는 서곡을 시작으로 지옥부터 천국까지 저승을 순례한다. 35세에 피렌체의 최고 공직에 오른 단테는, 그때가 삶의 정점에 오른 때였다. 1,300년에 대희년(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을 선포한 로마, 정치적 격변으로 피렌체에서 추방당한 단테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며, 베로나, 라벤

나 등으로 유랑하는 떠돌이가 된다.

단테가 숲속을 헤매며 길을 잃었다가, 겨우 정신 차려 황량한 비탈길을 오를 때, 사치스러운 유혹과 욕망을 상징하는 표범 한 마리가 나타나고, 권력의 야욕을 상징하는 사자가 나타나고, 이기심과 사악한 마음, 재물에 대한 욕심을 상징하는 암늑대가 차례로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공포에 떨며 정신을 잃었다가 어렵פות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사람인지, 유령인지 제발 소원이니 자신을 좀 구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때 그 존재는, 지금은 인간이 아니지만, 전에는 인간이었던 적이 있는 만토바 지방 사람으로, 아우구스투스 황제 치하의 로마에서 살았던 시인이며 로마의 건국 신화인 『아이네이스 Aeneis』를 노래한 베르길리우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단테는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만나, 평생 스승이라고 하며 기뻐한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이 숲 속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조언하며, 영원한 장소로 안내할 테니 자기의 인도에 따르라고 한다. 자신은 지옥과 연옥까지 안내해 줄 것이고, 천국은 베아트리체가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한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에게 자기는 아이네이아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닌데 영겁의 세계를 여행할 자격이 있느냐고 묻는다.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아프로디테와 트로이 왕족 안키세스의 아들이다. 트로이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함락된 뒤 이탈리아 반도 로마로 피신해 새로운 나라를 세운 영웅으로 고대 그리스로마 철학을 상징한다. 바울은 초대 그리스도교 전도자로, 그리스도교 형성의 사상이 가운데 가장 중추적인 인물로 기독교 전통을 상징한다. 지하 세계로 향하는 아이네이아스, 천국의 세계로 올라가는 바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결합, 이제 그리스로마 문명과 기독교 문명이 합쳐지는 순간을 맞았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지하 세계로 향한다. 단테가 존경했던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과 연옥을, 첫사랑 연인 베아트리체의 안내로 천국을 여행하게 된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의 손을 잡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환한 표정으로 힘을 북돋워 주며 둘이 함께 비밀의 장소로 들어섰다.

지옥 여행

지옥의 관문을 지키는 뱀사공 카론이 백발을 휘날리며 배를 저어 온다. 꿈에라도 하늘을 다시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말라며, 저주받은 망령들을 저쪽 강기슭에 있는 불가마와 얼음만 가득한 곳에 처넣으려고 왔다고 외치기 시작한다. 지옥문 꼭대기에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이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이다. 여기 들어오려고 한다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모두 여기다 내려놓고 들어가라."라고 적혀 있다.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 밤낮 구별이 없고, 하늘에는 별조차 뜨지 않는 곳이다. 별은 희망이다. 별 없는 현실, 지옥 입구는 별 없는 하늘의 시작이다. 단테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오귀스트 로댕(1840~1917)은 『신곡』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200여 명의 인간 군상이 매달려 있는

조각 <지옥의 문>을 전 생애에 걸쳐 제작했다. 문 위에 있는 <세 명령>은 아담을 변형시킨 세 남자의 상이고, 지옥의 문 중앙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는 남자를 독립상으로 제작한 작품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듯 <지옥의 문>에는 로댕의 대표작이 많이 들어있다.

지옥은 동심원, 원뿔형 9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옥은 각종 죄인들이 뒤섞여서 고통받는 아수라장을 연상하게 된다. 신곡의 지옥은 그렇지 않다.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자신이 지은 죄의 형벌을 인식하도록 세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곳이다.

1원은 림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형벌받는 사람들의 죄목이 특이하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영혼이 모여 있는 곳이다. 뛰어난 사상가나 시인들로 후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들이 주로 림보에 머물러 있다. 림보는 천국에 갈 수는 없으나 고통의 형벌도 없는 곳으로, 이런 영혼들에 대한 일종의 해법이 되는 장소이다. 림보를 왜 지옥에 그려 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위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반영된 구역이 바로 림보인 듯하다. 예수가 부활할 때 아담, 아벨, 모세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올라간 적이 있어서, 일반 죄인들과 달리 천국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희망 고문을 당하는 곳으로도 묘사되어 있다.

림보에는 호메로스,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루카누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디오게네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등의 영혼이 머물고 있다.

2원은 음란(애욕) 죄를 지은 영혼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들이 주로 등장한다. 욕망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죄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은 클레오파트라, 헬레네 등이다. 인상적인 영혼은 이탈리아 성주의 딸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이다. 두 영혼은 형수와 시동생 사이였는데 형의 칼에 맞아 죽어 지옥으로 왔다. 간음한 죄로 칠흙 같은 어둠 속에서, 채찍처럼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서로 끌어안은 채 떨어질 줄 모른다. 그들은 단테를 환영한다. 단테는 그들의 사연을 듣고 연민을 못 이겨 기절해 버렸다.

처참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는 그들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단테는 『신곡』을 쓸 당시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도 과거를 회상하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들 두 영혼을 동정한다.

3원은 탐식죄를 지은 영혼들이 형벌받는 곳이다. 머리가 셋 달린 케르베로스가 죄인들의 몸을 찢고 있다. 비와 구정물이 내려 몸에서 악취가 나고 과식하여 몸이 무거워 엎드려 있다. 단테는 고향 피렌체 출신의 차코라는 예언자를 만나 피렌체의 미래에 대해 듣는다.

4원은 재물을 탐한 죄를 지은 영혼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재물의 악마 플루토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낭비나 인색함의 죄를 지은 영혼이 자신의 키만 한 돌을 굴리며 나아가다 맞부딪치며 서로를 모욕하고 있다. 베르길리우스는 재물이란 여기저기 떠도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5원으로 이동한다.

5원은 분노에 사로잡힌 죄를 지은 영혼들이 형벌을 받는 곳이다. 스틱스 늪에서 흙탕물 속에 잠겨 서로 물어뜯고 분노한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천사들의 도움으로 6원으로 이동한다.

6원은 이단에 현혹된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부 지옥에 갇혀 고문당하는 곳이다. 불지옥의 모습으로 땅이 파지고 무덤이 열리며 불타고 있다. 그곳에서 피렌체 출신 시인 파리나타와 친구 구이도의 아버지 카발칸티 영혼을 만난다. 피렌체의 정치 싸움 얘기도 하고 단테가 유랑생활을 하게 될 앞날을 예언하기도 한다. 영혼의 불멸을 부정했던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고통받는 장면도 목격하며 7원으로 이동한다.

7원은 세 가지 폭력에 관한 중범죄자들이 형벌 받는 곳이다. 타인에게, 자신에게, 신성(神聖)에게 폭력을 행사한 죄인들이 펄펄 끓는 피의 강물에 잠긴 채 벌을 받고 있다. 재산을 함부로 다룬 자들의 영혼은 암캐들에게 물어뜯긴다. 신성에 폭력을 가한 죄인들은 불타는 모래밭에서 불비 맞는 벌을 받는다. 단테는 스승 브루넬로 라티니를 만나 피렌체와 단테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살아 있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며,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너의 별을 따라가는 한, 지옥에서 벗어나 연옥을 거쳐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충고한다. 단테는 희망을 잃지 말고, 별을 따라 희망을 따라 살아가라고 강조하는 스승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8원으로 이동한다.

8원은 말레볼제(악의 구덩이 10개)에서 포주들, 아침꾼들, 부패한 성직자, 점쟁이, 탐관오리, 위선자, 도둑, 사기꾼, 이간질한 자, 연금술사, 위폐범들이 형벌받는 곳이다.

그곳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누이를 페라라 후작에게 보낸 베네디코 카차네미코를 만나고, 아르고스 원정대를 이끌며 황금 양털 모피를 구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 메데이아를 버린 죄를 받고 있는 영웅 이아손도 만난다. 똥물을 뒤집어쓰고 있는 성직자 알레시오 인테르미넬 등을 만나는데, 후회하는 그들에게 마귀는 채찍을 휘두른다.

9원은 지옥의 제일 깊은 곳, 마귀가 있는 곳이며, 지옥의 마지막 층으로, 친척, 조국과 동료, 손님, 은인, 우정을 배신한 죄를 지은 자들이 지옥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을 받는 곳이다. 우골리노 백작을 배신했던 피사의 주교 루지에리, 예수를 배신한 가롯 유다, 카이사르를 칼로 찔러 죽였던 브루투스도 이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다. 단테는 죄 중에 배신자를 가장 중죄인으로 분류했다. 지옥은 깔때기 모양인데, 깊은 곳으로 갈수록 중죄인을 배치했다. 단테는 지옥 곳곳에서 피렌체 사람을 만나는데, 각기 다른 죄목으로 형벌을 받고 있다. 그들과 만나 자기 고향 피렌체를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장면도 있다. "기뻐하라 피렌체여, 너는 너무 위대하여 땅과 바다에 날개를 퍼덕이고도 모자라 지옥에까지 너의 이름을 떨치고 있으니" 혹은 "저 위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진흙 속의 돼지처럼 있으면서 커다란 수치를 남길 자가 얼마나 많은지!"라고 말이다.

이처럼 『신곡』은 시대를 뛰어넘는 교훈과 경고를 전하는 내용이다. 단테가 피렌체에서 추방당해 객지를 떠돌면서 쓴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의 나쁜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듯하다. 지옥 여행을 끝낸 단테는 이렇게 말한다.

"내 마음을 무서움으로 적셨던 그 골짜기가 끝나는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위를 쳐다보았고, 사람들은 자기 길을 바르게 걷도록 이끄는 별의 빛줄기로 휘감긴 그 언덕의 동상을 보았다."

연옥 여행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지옥 여행을 끝내고 루키페르(파리대왕 베엘제불)의 몸에 매달려 희망이 없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별을 우러러보며, 지구의 중심을 지나, 좁은 동굴을 통해 지구 반대편 남반구 연옥으로 향한다.

동굴 입구에 도착해 하늘의 별을 본다. 연옥의 구조는 지옥과 다르게 산처럼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총 일곱 돌레(1-교만, 2-질투, 3-분노, 4-게으름, 5-탐욕, 6-탐식, 7-호색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지옥에서 지구 반대편으로 올라온 단테와 베르길리우스는 연옥의 입구에 도착해 문지기 카토를 만나 출입 허가를 받는다. 바닷가에서 천사의 배들이 연옥에 갈 영혼들을 태우고 오는 것을 목격하고, 단테는 자신의 시를 노래했던, 몇 달 전에 죽은 카셀라를 만나 대화한다. 길을 찾지 못할 때 마침 연옥으로 다가오는 영혼들에게 길을 묻는다. 길을 재촉하던 중 만토바 출신의 음유시인 소르델로를 만난다. 그는 베르길리우스를 반기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악을 탄식하기도 한다. 단테는 소르델로를 애국심이 강한 인물로 묘사했다. 밤에는 연옥에 입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단테는 다른 영혼들을 구경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가, 독수리에 의해 날아가는 꿈을 꾸다 깬다. 잠든 사이 동정녀 루치아가 그들을 연옥 문까지 올려주었다.

연옥은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다. 가고자 하나 갈 곳을 모르는 자들, 희망을 가졌으나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머무는 곳이다. 지옥과 연옥은 모두 죄를 지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지옥에 간 영혼은 천국에 갈 가능성이 전혀 없으나, 연옥에 간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믿음을 갖고 자기들의 죄를 씻고 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연옥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죄를 씻을 필요가 있는 영혼들이 가는 중간 장소이다. 고통을 통해 죄를 씻어낸 후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옥이나 연옥이나 고통받는 공통점은 있지만, 연옥의 영혼들은 좀 더 밝은 느낌을 준다. 죄를 짓지 말고 선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시한다. 연옥에서는 죄를 씻을 수 있지만 고통스러우니 선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단테는 세상이 악한 원인은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통치를 잘못해서 사회 체계가 부조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세속화된 교회 권력이 일치된 상황에서 그 권력이 부패되어 세상이 악해진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본질적인 면에서 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본성이 세상을 악하게 만든다고 알려준다.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좋아하는 본성을 억누르고 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 체계의 악과 인간 본성의 악을 억제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옥은 일곱 돌레로 구성되었는데, 첫째 돌레는 교만의 죄를 씻기 위한 영혼들이 등에 바위를 지고 있다. 옴베르토와 오데리시는 세상의 영광과 명성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대화를 나누며, 둘째 돌레는 질투의 죄를 씻는 영혼들이 철사로 눈꺼풀을 꿰고 있고, 셋째 돌레는 분노의 죄를 씻는 영혼들이 짙은 연기 속에 있다. 단테는 롬바르디아 사람인 마르코에게 세상이 타락한 이유를 듣는다. 마르코는 "인간은 스스로 빛을 지니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어지러운 원인은 사

람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말한다.

넷째 둘레는 선을 사랑했으나 태만해서 이행하지 못한 자들의 영혼이 빠르게 달리면서 게으름의 죄를 열심히 씻고 있다. 밤이 되어 천사의 도움으로 이동한다. 베르길리우스는 단테에게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면 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인간은 자유의지로 죄를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자연적인 사랑과 이성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다섯째 둘레는 탐욕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갑자기 천지의 진동과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 알고 보니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영혼이 생길 때 나는 소리였고, 천국에 갈 자격을 얻은 로마시대 시인 스타티우스를 만난다.

여섯째 둘레에서는 탐식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제는 동행이 늘어 셋이 걸으며,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단테는 가벼운 걸음으로 뒤를 따른다. 림보에 있어야 할 스타티우스가 왜 탐욕의 죄를 지었는지 묻자, 탐욕의 죄도 낭비의 죄와 더불어 참회해야 한다고 답한다. '세상은 다시 태어난다. 정의가 돌아오고, 인류의 시초, 새로운 겨레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베르길리우스의 작품 <아이네이스>에 있는 구절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일곱째 둘레는 호색의 죄를 지은 영혼들이 불꽃 속에 있다. 불길 위에 드리워진 단테의 그림자를 보고 영혼들이 깜짝 놀라 다가온다. 영혼 무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황소와 욕정을 나눈 미노스 왕비 파시파에 이야기를 하며 애욕의 예들을 소리 높여 소개하며 지나간다. 그들 영혼 중에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인 구이도 귀니첼리가 있다. 죽기 바로 전에 회개했기 때문에 연옥에 와 있다고 한다. 단테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불꽃 속으로 사라진다. 해가 지려고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불꽃을 뚫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하는데, 단테는 겁을 내면서도 베아트리체를 떠올리며 불꽃으로 뛰어든다.

단테와 베르길리우스와 스타티우스가 지옥의 긴 동굴을 통과하여 도달한 곳은 섬의 해변인 연옥의 기슭이었다. 천사가 나타나서 단테의 이마에 죄를 의미하는 'P'라는 글자를 일곱 개 새겼는데, 단테가 일곱째 둘레를 다 지나자 글자들이 하나둘 지워졌다.

그들은 계단을 올라 에덴동산처럼 보이는 낙원에 이르러 시냇가 건너편에서 아름다운 성녀 마텔다를 만난다. 그곳은 목가적이고 환상적인 곳으로 철학, 종교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황금시대와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다. 마텔다를 따라다니며 낙원을 소개받는데, 갑자기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베아트리체가 나타나고, 베르길리우스는 안내자의 사명을 다하고 그곳에서 사라진다. 베르길리우스를 따라 고통스러운 비명과 악취가 진동하는 지옥을 지나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는 연옥을 통과한 단테는 천국에 도착하기에 앞서 그가 사랑한 베아트리체를 만난다. 베아트리체는 흰옷을 입고 초록색 화관을 머리에 쓴 채 안에는 붉은색 옷을 입은 천사였다. 베아트리체가 지닌 초록색, 흰색, 붉은색은 희망을 나타내며, 세 가지 색은 이탈리아 국기를 상징한다.

천국 여행

베아트리체는 자신이 죽은 후 오랜 기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사악한 쾌락에 빠졌던 단테를 책망한다. 단테에게 죄를 자백하게 한 뒤, 과거를 잊게 하는 레테의 강에 몸을 씻으라고 하며, 단테와 스타티우스를 안내해서 선함을 기억나게 하는 에우노에 강으로 인도한다. 단테는 그 물을 마셔 정결해진 후 천국에 갈 준비를 마친다. 베아트리체는 그를 인도하여 천국 여행을 시작한다.

천국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겹의 하늘로 이루어진 것으로 묘사된다. 각각의 죄에 따라 벌을 받는 지옥과 연옥처럼 천국의 영혼들은 각각의 선에 따라 행복을 누리고 있다. 지구와 달의 중간 경로인 화염천을 지나 천국에 오른다.

천국에는 등급이 없지만, 체계적으로 총 10개의 하늘로 이루어졌다. 월성천에서 최고 하늘인 엠피레오까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등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항성천, 원동천, 엠피레오를 제외한 일 월 수 금 화 목 토의 일곱 하늘은 등급이 구분되지 않은 동등한 곳임이 드러난다. 이는 항성천에 오른 단테가 일곱 천체가 조화롭게 운행하는 모습을 한눈에 보게 되는 것으로 증명한다.

제1 영역 월성천에는 착하지만 끝까지 충실하지는 못했던 영혼들이 머물고 있다. 피카르다도나티, 콘스탄자 왕비 등이 등장해 서원을 완수하지 못한 영혼들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가볍게 서원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제2 영역 수성천은 세상에서 큰일을 했던 영혼들, 야심 있었던 영혼들을 위한 곳이다. 로마법 대전을 편찬한 동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로메오 등이 나온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단테에게 자신의 업적과 로마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 후 혼란스러운 이탈리아의 상황을 개탄한다. 유스티니아누스가 떠나고 단테는 인간의 죄에 대해 올바른 판결과 심판이 이뤄지는지 생각한다.

제3 영역 금성천은 사랑으로 이름난 영혼, 사랑에 불탄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다. 프랑크 왕국의 군주인 카롤루스 마르텔, 공작부인인 쿠니차 다 로마노, 포르케 드 마르셀, 유녀 라합 등이 이탈리아의 악과 혼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제4 영역 태양천에는 신학과 철학 분야에서 명성 떨친 영혼, 지혜로운 영혼들이 있다. 스콜라 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 솔로몬, 베다, 보나벤투라, 아우구스티노 등 많은 영혼이 등장한다. 아퀴나스는 프란체스코회를 칭찬하면서 자기가 속했던 도미니쿠스회의 타락을 비판한다. 하지만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였던 보나벤투라가 등장해, 도리어 프란체스코회도 타락했다며 개탄한다. 베아트리체는 육체가 부활한 후 어떻게 되는지 단테에게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들 중에 있던 솔로몬왕은 부활 후에는 더 완벽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제5 영역 화성천은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영혼들, 용감한 영혼들이 지내는 곳이다. 카차구이다, 여호수아, 샤를마뉴 대제, 오를란도, 마카베오, 구일리엘모 1세 등이 등장한다. 두 줄기 빛이 단테에게 다가와, 직선이 교차하는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가 빛나는 모습을 발견한다. 단테는 십자가의 모습을 하고 있는 영혼 중에 고조할아버지 카차구이다의 영혼을 만난다. 카차구이다는 자신은 십자군 원정에서 순교했는데, 자신이 살던 시대의 피렌체는 검소했다고 이야기해 주며

혈육 간의 애정을 표현한다. 아이네이아스가 엘리시온 들판에서 아버지 안키세스를 보았을 때의 모습과 비슷할 거라고 묘사한다. 단테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온다는 의미로 하늘의 문이 두 번 열렸다고, 하느님의 은총을 노래한다. 할아버지 카차구이다는 단테에게 피렌체에서 쫓겨나 방랑 생활을 할 거라면서 지옥, 연옥 천국에서 본 것을 잘 적으라고 격려한다. 베아트리체도 곁에서 단테를 위로한다. 이미 레테의 강에서 몸을 씻었는데 단테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나 보다.

제6 영역 목성천에는 정의로운 영혼들이 지낸다. 이곳의 독수리(다윗, 트라야누스, 콘스탄티누스 1세, 구일리엘모 2세, 리페우스)가 영혼의 구원과 세상의 타락에 대해 단테와 이야기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하스기아 왕, 트라야누스 황제와도 만난다. 목성천에 등장하는 영혼들은 개개인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독수리의 일부로 등장하며, 독수리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 나와 자신의 어느 부위에 어느 영혼이 속해 있는지 말해 준다. 다른 영역의 하늘과는 다른 곳이다.

제7 영역 토성천은 마음을 비우고 정결한 삶을 살았던 영혼들, 사색에 빠진 영혼들이 머물고 있다. 묵상가인 베드로 다미아노, 성인 베네딕토 등이 등장한다. 다미아노가 단테의 질문에 답하고 하느님의 교리를 설명한다. 자신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요즘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공격한다. 카시노 산에 수도원을 세운 베네딕토 성인도 신상 이야기를 하고, 수도원의 부패와 타락을 비난한다.

제8 영역 항성천은 지구를 비롯한 일 월 수 금 화 목 토 천체들이 운행하는 모습을 한눈에 내려다본다. 시력 상실을 염려하던 단테는 쌍둥이자리(단테의 별자리-시적 재능을 부여한 성좌)에서 지구와 지금까지 거쳐 온 천국의 일곱 영역이 다 보인다고 한다. 초대 교황 베드로, 야곱, 사도 요한 등이 등장한다. 단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마리아를 비롯한 사도들의 영혼을 보게 된다. 그리스도는 곧 올라가고 다른 영혼들이 마리아를 찬양한다. 베아트리체 주선으로 베드로, 야곱, 요한을 만나서 삼주덕(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문답을 하는데 단테는 그들의 질문에 훌륭하게 답변한다.

제9 영역 원동천은 물리적 우주의 마지막 영역이며, 여기까지가 베아트리체의 안내를 받은 곳이다. 단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9품계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세라핌, 케루빔 등을 비롯한 천사들이 등장한다. 베아트리체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천사들에 대한 잘못된 설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제10 영역 앰피레오, 최고·지고(至高)천은 성 베르나르도(노인)가 안내해 준다. 하느님의 영역이자 천국 그 자체이며, 천국의 모든 영혼들의 본 거주지이기도 하다. 하느님, 예수, 성모마리아, 베르나르도, 아담, 이브, 라헬, 사라, 레베카, 룻, 베아트리체, 세레자 요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가브리엘 천사, 동정녀 루치아 등이 등장한다. 여기서 단테는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빛에 감싸진다. 성서에서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직접 바라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뒷모습만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빛에 감싸진 채 하느님을 볼 수 있게 묘사한 듯하다. 단테는 자신이 만나 본 하느님의 모습을 시로 적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한다. 태양은 못별들을 움직이는 하느님의 사랑이다. 천사들과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미꽃과 같이 하느님의 영광을 둘러싸는 모습을 본다.

마리아와 축복받은 영혼들을 만나, 마리아의 주선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지만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에 크게 감동한다. 그다음 하느님의 빛으로 해체되어 궁극적인 구원의 경지에 오른다. 천국의 각 하늘에 있는 영혼들은 자신이 배정된 곳에 만족한다.

"만약 우리가 더 높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 욕망은 우리를 이곳에 배치하신 그분의 뜻에 어긋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비록 최고선의 은총이 똑같이 내리지 않을지라도 하늘에서는 모든 곳이 천국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배치된 하늘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단테에게 말한다. 단테가 본 내세는 창조주의 뜻대로 조화롭게 구성되는 곳이다.

천국의 영혼들은 단테에게, 판단하는 데 신중하라고 권한다. 하느님을 뵈고 있는 자기들도 선택받은 자들을 모두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단테는 지옥, 연옥, 천국에 의외의 인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판단이 결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한 영혼이 어디에 가게 되는지는 그 주권이 하느님에게 있으니,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다.

단테는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를 따라나섰던 지옥·연옥·천국 여행을 마치며, 신곡도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저세상의 절정을 다녀와서

아이네이아스는 트로이 유민들을 이끌고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로마를 차지한다. 베르길리우스는 대서사시 『아이네이스(Aeneis)』를 선보이면서 단테의 스승이 되었다. 지중해 바다를 헤치고 나가서 차지한 로마는 기원 전후 로마 공화정 마지막일 때, 스페인에서 그리스까지 차지하며 영원한 대제국으로 발전해 나간다. 카이사르 시대에는 프랑스, 아프리카 북단 이집트까지, 그리고 터키까지 차지한다. 기원후 1세기 후반, 영원한 제국 로마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유럽의 영토를 손에 넣는다. 그 출발은 아이네이아스가 이끈, 패망한 트로이의 유민들이었다. 단테는 로마제국사를 더 위대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베르길리우스의 손을 잡은 듯하다. 단테는 로마의 위대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를 소환하여 지하세계를 함께 여행했다. 인간은 이성이 멈출 때 죄를 짓고, 이성이 깨어 있으면 죄를 물리칠 수 있다며 베르길리우스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프랑크제국의 뒤를 이은 신성로마제국은 교황의 승인하에 세속의 권력을 누렸다. 성과 속이 합쳐진 10세기경 이탈리아는 피렌체를 비롯한 도시국가들이 출현했다. 13세기 피렌체 시민들은 신성로마제국의 황제에 맞서기 위해 로마 교황의 권위를 옹호했다. 황제 편(기벨린당)인 귀족세력과 교황편(겔프당)인 시민세력 사이에 치열한 내전이 있었다. 당쟁이 갈수록 심했다. 13세기말에 피렌체 시민들이 최종 승리를 거둬 공화제 도시국가가 수립되었으나, 다시 대시민(네리파)과 소시민(비양키파) 사이에 대립이 발생했다. 그 시기에 단테는 소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현실정치가로 활약했다.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미숙한 정치력과 대시민 세력의 음모로 단테는 고향 피렌체에서 영원히 추방되는 비극을 맞았다. 교황권을 손에 넣은 대시민 세력은 전 유럽을 상대로 징세권을 행사하며 막대한 부를 쌓으며 번영해 나갔다.

단테는 정치적 혼란, 사회적 갈등, 개인적인 곤란 등 다양한 대상을 어두운 숲에 비유한다. 피렌체

에서 정치적 갈등으로 고향에서 쫓겨나 방랑하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고난의 순간, 일생의 가장 우울한 순간에, 필생의 역작인 『신곡』을 집필했다. 단테는 외롭게 유랑지를 떠돌며 영원한 사랑 베아트리체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선의 힘,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작품을 썼다. 중세 시대 상상력의 최고봉이었던 『신생(新生)』과 『신곡(神曲)』은 르네상스기를 빛낸 명작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불멸의 고전으로 손꼽히고 있는 작품이다.

베아트리체는 비록 스물네 살에 죽었지만, 단테의 문학 작품 속에서 단테의 상상력과 함께 부활하여, 신에 버금가는 고귀하고 신성한 존재로 격상되어 영원히 살아 있다.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사랑한 이야기는 700여 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있었던 일이다. 700여 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 명작으로 평가받으며, 그 많은 세월이 지나도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쓴 『신생』과 『신곡』 속에서 아름다움과 사랑 그 자체로 찬미받는다. 베아트리체는 단테에게 사랑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천사들을 거느리며, 천국을 활보하고 다니며, 단테에게 천국의 로마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기도 한다.

단테는 『신곡』에서 그가 추방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자신이 망명 중 겪게 될 일을 상상했고, 이탈리아가 처한 난관의 해결책까지도 제시한다. 인간은 유혹과 죄악에 물들기 쉽다. 지옥과 연옥은 고뇌의 상징이며, 유혹과 본능의 세계를 묘사했다. 지옥에서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파멸까지 다루었다. 『신곡』은 베르길리우스를 통해 지옥에서 연옥으로 향하는 인간의 이성을 상징하고, 베아트리체를 통해 천국으로 이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 진정한 고뇌를 겪으며 고결하게 영혼을 정화할 수 있다는 단테의 인생관이 반영되었다.

『신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설, 혹은 고대 역사에 등장했던, 중세에 실존했던 사람이다. 단테와 동시대에 함께 어울렸던 인물들도 상당수 등장한다. 특히 천국편에서 단테는 그들의 종교관, 세계관, 역사관 등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당시의 신학, 지리학, 천문학 등을 담아내었다. 15년 동안 집필하면서 방대한 지식, 자전적인 이야기와 종교, 신념 등을 섞어 『신곡』에 버무려 놓았다. 중세가 저물고 근대가 시작되는 과도기에 단테는 징검다리 역할을 제대로 했다. 중세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표현된 작품 속에 단테의 사상이 집약되어, 그의 종교적인 색채로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다.

단테는 마지막 하늘인 엠피오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목격한 다음, 그 심오함 속에서 우주에 흠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랑'에 의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자신이 처했던 그 당시의 사회 인식을 총망라하여 현실을 녹여낸 결론이다. 결국 단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지상이 아니라 천국에 희망을 두면서 그 섭리에 본인을 맡기려고 이 작품을 쓴 게 아닐까.

나는 지난 6월에 피렌체에 있는 단테의 생가를 다녀왔다. 단테는 신곡으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고, 르네상스의 싹을 틔웠다. 훗날 단테의 고향 피렌체는 힘들었던 정치적 격변기를 극복하고 권력을 장악한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르네상스 꽃을 피웠다. 피렌체는 꽃의 도시이다. 14세기 피렌체의 새로운 시대는, 단테의 문학에서 출발해서, 새로운 인문주의와 르네상스 시대의 서곡을 울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 당시에 단테는 유랑의 삶으로 점철된 초라한 추방자였지만, 21세기인 현재까지

이탈리아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으며, 단테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발걸음은 피렌체를 향해 이어지고 있다. 나 또한 단테 생가를 알리는 단테 흉상과 걸개 현수막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단테를 기억했다. 신곡에서 연옥산을 묘사한 모습과 비슷한 첨탑 모양의,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피렌체를 장식하고 있다.

피렌체의 단테 생가 골목을 빠져나가면 아르노강이 흐르는 베키오다리가 보인다.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키오다리다. 운명적인 만남으로 평생의 연인이 된 두 사람의 불꽃같은 사랑, 도시를 동서로 흐르는 아르노강 베키오다리에서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아르노강에는 여러 개의 다리가 있었는데, 세계대전 때 폭격으로 다 부서지고 유일하게 베키오다리만 남았다고 전한다.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이야기를 듣고 차마 폭격하지 않고 사수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의 서글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담겨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하고 있다. 베키오다리 중앙에 금세공사 벤베누토 첼리니의 흉상이 서 있다. 전에는 흉상 주변에 사랑의 자물통이 많았는데 피렌체시에서 안전을 이유로 다 철거했다고 한다.

베키오다리 주변 상가에는 보석상이 즐비할 뿐, 단테와 베아트리체를 기념하는 표지석 하나 없지만, 여행객은 베르길리우스의 이성과, 단테와 베아트리체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 라벤나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에 누워 있는 단테는 언제쯤 그가 그토록 사랑한 고향 피렌체로 돌아올 수 있을까.



1박 2일 백령도, 대청도를 다녀와서

곽인화(웅진문화원 회원)



7월 3월~4일에 웅진군이엠(EM) 연구회원 몇 명이 팀장님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에 다녀왔다. 백령도에 가기로 한 출발 몇 주 전부터 일기예보를 계속 들여다보며 날씨를 확인했다.

가는 날 아침에 안개가 하얗게 끼었다. 오전 8시 30분 배인데 7시에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도착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가지 못할까 봐 신경이 쓰였는데 막상 터미널 전광판에는 전 항로 '안개 대기'로 나와 있었다. 그걸 보니 늦어도 출발할 수만 있으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층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8시 53분에 8시 30분에 출항해야 할 "자월·이작·승봉행 코리아피스호에 승선하라"는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전날 오후에 십리포에서 보니 팔미도와 인천대교 등이 안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어제 백령도행 배가 11시에 출항했었다고 한다.

9시 11분에는 9시 30분에 출항하는 "서해누리호(대부, 풍도)에 승선을 하라"는 방송을 했다. 해가 나고 날씨가 맑아지고 있어서 나도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10시가 되자 이번에는 8시 30분에 출항 예정이던 "백령도행 코리아프라이드호에 승선하라"는 방송이 나왔다. 우리는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일어나서 개찰구로 향했다. 가면서도 내일은 배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전에 백령도를 두어 번 다녀왔지만 이번에 탄 코리아프라이드호는 배가 크고 시설이 좋아 보였다. 객실도 4등급으로 나뉘어 있었다. 올해부터 '인천 아이(i)바다패스'시행으로 백령도까지 편도 1,500원에 이용해서인지 그 큰 배가 거의 만석인 듯했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는 인천에 속한 섬인 강화도와 웅진군의 섬으로 가는 배편을 이용할 때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을 초과하는 전액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여객선 대중교통화 사업이다.

약 4시간 후 백령도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리자 약간 쌀쌀하게 느껴져서 겉옷의 지퍼를 잠갔다. 하늬해변 부근에 있는 숙소는 진한 안개로 주변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오후 7시에 백령농협 2층

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용미생물 활용 및 토양관리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는 '천연이엠(EM) 주방세제 만들기' 과제교육을 했다.

다음날이다. 오전 7시에 코리아프린세스호를 타고 대청도에 도착했다. 오전 9시 30분에 대청면 농업인 상담소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제와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 그 상담소에는 강소농교육을 받을 때 담당 주무관이셨던 주무관께서 소장님으로 계셔서 반가웠다. 잠시 시간이 나서 옥죽동 모래사막과 농여해변의 나이트바위를 보러 다녀왔다. 이곳은 여러번 가봤어도 볼 때마다 신기한 대청도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돌아올 때는 대청도에서 인천행 배표를 한 등급 높은 것으로 교환하러니 매진이라서 안된다고 했다. 다음날인 20일에 기상악화로 배가 통제될 예정이라서 승객들이 오늘 미리 나가는 것 같았다. 이번에 백령도를 다녀오며 느끼는 점은 '아이 바다패스'로 운임이 낮아져서 더 많은 관광객이 섬을 찾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기상 상황이 너무 유동적이다 보니 제값을 주고라도 웬만한 기상 상황에는 다닐 수 있는 배나 비행기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백령도나 대청도에 가고 싶어도 기상악화로 인해 정해진 날짜에 돌아올 수 없을까 봐 사람들이 가는 것을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은 그대로인데 방문자가 늘면서 정작 섬에서 사는 주민들이 배표가 부족해서 불편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오후 1시 55분에 대청도를 출발하여 오후 5시 30분경에 인천연안부두에 도착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더운 기운이 확 끼쳐오는 듯했다. 백령도와 대청도는 육지에서 멀기에 1박 2일 머무는 동안 한 번도 덥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약간 서늘하게 느껴졌었다.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오후 7



시 20분에 영흥도행 790번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 밤 9시였다. 그리고 보면 2001년도에 영흥대교가 놓였어도 영흥도도 아직 섬인 셈이다. 승용차로는 괜찮은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버스 배차시간이 멀어서 그렇게 느껴진다. 이번에 1박 2일 일정으로 백령도와 대청도를 다녀오면서 기상악화로 배가 운행하지 않을까 봐 좀 안달하긴 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할 일을 마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모두가 전전공공

일행 네 명이 백령도·대청도에 1박 2일 다녀왔다
 백령도로 향하는 날
 안개 대기로 출발이 지연되자

백령도를 떠나는 날도
 배가 뜰 수 있을까 마음이 불안하여
 저마다 오늘 가야 하는 이유를 댄다

아무개는 내일 어디를 가야 해서
 누구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해서
 나는 약을 가져오지 않아서

갈 때는 못 갈까 봐
 올 때는 못 올까 봐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모두가 전전공공

최신 시설의 코리아 프라이드호를 타고 다녀도
 기상 상황에 따라 꼼짝없이 발이 묶이고 마는
 백령도는 아직도 머나먼 섬이다



자유총연맹웅진군지회, 호찌민시(市)를 가다

박용만(웅진문화원 감사)

2024년 4월 15일 한국자유총연맹 웅진군지회 회원 32명이 3박 5일의 일정으로 자유수호자 해외 안보·역사유적지 견학 및 현장 방문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베트남행 OZ713기에 탑승했다.



출발 전 웅진군청 호심관에서

먼저 호찌민시에 대하여 알아보자. 내가 베트남에 다녀온 것은 2018년 1월 다낭을 다녀오고 두 번째 여행길이다. 호찌민시는 베트남 남부의 특별시로 넓이 2,090km²며, 인구 439만여 명에 베트남 남부의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인도차이나반도 동남부 사이공강의 서해안에 위치한다. 원래는 캄보디아의 작은 어촌마을 '프레이 노코르(prea nokor)'였는데, 베트남인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크메르인이 건설했으며, 1859년 프랑스가 점령, 식민지 경영기지로 발전했으며,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시기 남부 코친차이(Cochinchina)의 중심지였고, 베트남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베트남남국(1949~1955)과 베트남공화국(1955~1975년:월남)의 수도가 됐다. 이때까지 이름은 사이공(Saigon)이었으며, 식물원·미술관·대성당 등이 있는 프랑스풍의 도시로 1976년 베트남이 통일되고 나서 근교의 자딘과 합쳐 호찌민의 특별시로 개편되었으며, 지명은 북베트남(월맹) 초대 대통령 독립전쟁 영웅 응우옌 쉰 공의 별명 호찌민(胡志明)의 이름을 붙여 부르게 되었다.

호찌민시는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1,760km 떨어져 있고, 평균 해발은 19m이다. 도시는 사이공강과 동나이강 하류에 위치하며, 도시 중심부는 사이공강의 서안에 있다. 북쪽은 띠이닌성과 빈즈엉성과 접하고, 동쪽은 동나이성과 바루어봉따우성, 서쪽은 롱안성과 접한다. 남쪽으로 남중국해와 디엔장성이 위치해 있다. 호찌민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0.63%를 차지하며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 크다. 베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앙 직할시로 성(省)과 동격의 도시다.

우리의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1일 차	15:00 옹진군청 출발 ▶ 16:00 인천공항 도착 ▶ 19:25 인천공항 출발(석식 기내식) ▶ 22:50 호찌민 공항 도착 ▶ 호텔투숙 및 휴식
2일 차	호텔 조식 ▶ 유네스코 지정 자연생태 보호구역 건너로 이동 ▶ 파워보트를 이용하여 박취섬, 악어농장, 두루미서식지 전망대 ▶ 중식 ▶ 보트를 이용하여 월남전 야전 총사령부와 3대 혁명 사적지 중 하나 ▶ 대통령별장(백궁)과 티우별장 방문 ▶ 호찌민으로 이동 ▶ 전신마사지 ▶ 석식 ▶ 호텔투숙 및 휴식
3일 차	호텔조식 ▶ 구찌이동 구찌터널 체험(지하사령부, 작전회의실, 야전병원, 주방 등) ▶ 중식 후 호찌민으로 이동 ▶ 베트남 전쟁박물관 관람 ▶ 석식 ▶ 호텔투숙 및 휴식
4일 차	호텔조식 후 체크아웃 ▶ 호찌민 시내 관광 ▶ 노트담성당, 중앙우체국등 시내관광 ▶ 통일궁(대통령궁), 인민위원회 관람 ▶ 중식 ▶ 호찌민으로 이동 ▶ 석식 ▶ 호찌민 공항으로 이동
5일	00:10 호찌민공항 출발 ▶ 06:55 인천공항 도착 ▶ 08:00 수송버스 탑승 ▶ 09:00 옹진군청 도착 후 해산

[1일 차] 호찌민 공항에 도착하여 짐을 찾고, 호텔에 도착하여 간단한 베트남의 술로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하여 침실로 향했다.

[2일 차] 당초의 여행계획 일정의 변경이 있어 조식을 마친 후 구찌로 출발하였다. 구찌 땅굴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이 미군에 대항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 터널 네트워크로, 현재는 관광명소로 개방되어 있다.

이 땅굴은 1946년 프랑스 식민 지배 시절부터 굴착이 시작되어 베트남전쟁(1955~1975) 중 확장되어 250km나 된다고 한다. 이 터널은 미군의 공습과 고엽제 살포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되어 북베트남 승리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터널 내부는 조리실, 사령부, 부비트랩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베트남의 게릴라 전술의 핵심이었으며, 터널은 좁고 복잡하고 일부 구간은 폐쇄되어 있으나 전



꾸찌터널을 통과한 황경연 지회장님

쟁 역사와 지하 생활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전쟁은 학살을 동반한다. 그렇다고 전쟁이 모든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학살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살은 보복을 부르고 그 보복은 다시 또 다른 보복을 부르는 연쇄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시기 남한군과 북한군 그리고 미군 모두 학살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베트남전쟁 역시 동일한 과정이 되풀이됐다. 그런데 유독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만이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박태권, 『베트남전쟁』, p.93)

1970초 사이공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1957년~1970년 사이 베트남은 3만 6,725명을 암살했고 5만 8,499명을 납치했다. 이 중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 피해자 중 20퍼센트만이 정부 관료, 경찰, 지방자치군이었고, 나머지 80퍼센트는 민간인이었다(박태권, 『베트남전쟁』, p.104).

1964년 1만 7,200명이었던 미군 병력은 1965년 16만 명을 넘어섰고, 1966년에는 45만 명, 1967년 49만 7,000명, 그리고 1968년에는 55만에 육박했다.

대부분의 작전은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렇다고 이들은 찾기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지금도 호찌민시의 서쪽에 위치한 꾸찌에 가면 당시 베트콩들이 생활하고 작전을 펼쳤던 터널이 있다. 터널은 수십 명의 베트콩이 땅 밑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됐다. 미군이 들어오면 주민들도 터널로 들어갔다. 미군이 정글이나 정글 안에 있는 마을에서 이러한 터널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임무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보람도 의미도 없었다.

대부분의 작전은 정글에서 베트콩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그렇다고 이들은 찾기가 쉬운 것도 아니었다. 지금도 호찌민시의 서쪽에 위치한 꾸찌에 가면 당시 베트콩들이 생활하고 작전을 펼쳤던 터널이 있다. 터널은 수십 명의 베트콩이 땅 밑에서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됐다. 미군이 들어오면 주민들도 터널로 들어갔다. 미군이 정글이나 정글 안에 있는 마을에서 이러한 터널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임무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보람도 의미도 없었다.

● 꾸찌 터널 중 하나인 벤딘 터널

꾸찌 터널은 총 일곱 개인데 그중 두 개를 관광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곳 토양은 부드러운 진흙인데 공기와 접촉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는 성질을 갖고 있어 땅굴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땅굴 안에는 취침실과 회의실 등이 있다(박태권, 『베트남전쟁』, p.117~p.118).

반나절의 투어를 마치고 소수민족 민속촌에서 중식을 위해 자리를 옮기며 주위에 만개한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꽃이 부켄베리 일명 일부다처제 꽃이라 하며 나무에 3줄기의 꽃이 핀다고 한다.

중식 후 다락 시장 일명 도깨비 시장을 관람하고 전신 마시지 후 2009년에 개업한 한국인의 식당 '몸보신'에서 저녁을 먹고 2일 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민속촌 부켄베리 아래서

[3일 차] 우리나라는 4월 봄 날씨인데, 이곳은 38도 체감온도 43도에 육박하고 있다. 오늘의 일정은 메콩강 방향의 여행이다. 호찌민시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여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나오며 남부 농경 지구의 3 모작을 직접 볼 수가 있었다. 한쪽에서는 모를 심고 한참 자라는 논도 있으며 수확 탈곡하는 논도 있었다. 메콩강 하류 미토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작은 육지형 섬을 돌아보면서 베트남 현지인들의 생활상과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느껴지는 메콩강. 메콩강은 베트남인들은 물론이고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까지 인도차이나 반도 4개국의 젓줄과도 같은 강이란다.

메콩강 미토지역의 섬은 6곳인데 대표하는 섬은 유니콘 섬, 피닉스 섬, 드래곤 섬, 토터즈 섬인데 우리 일행은 인도차이나반도의 젓줄이라 불리는 메콩강 유니콘 섬 투어에 나섰다. 붉은 황토물이 흐르는 메콩강 배를 10여 분 타고 건넌다. 유니콘섬은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과일은 메콩델타의 유니콘 섬에서 재배될 정도로 비옥한 지역이다.

유니콘섬에 도착하니 길가에 상점들이 보이고 열대 과일을 시식할 수 있는 코너와 원주민들의 노래 흥에 맞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정글 탐험을 하는데 작은 보트에 배를 젓는 현지인과 일행이 한 배씩 나누어 타고 정글 수로를 약 1km쯤 지나왔다. 정글 숲을 지나 다른 섬들은 지나가면서 선상 관광을 하였다.

점심 식사 후 메콩강에서 3시에 출발하여 5시에 호찌민시에 도착하여 오페라 하우스, 시티투어를 마치고 8시부터 사이공강에서 선상석식 투어(인도차이나시티크루즈)를 하며 야경을 감상하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호텔로 향했다.

[4일 차] 오늘은 여행 일정 마지막 날이다. 여유 있게 10시 30분에 체크아웃을 하고 침향환 쇼핑 후 중식을 한 후 대통령궁과 180년 전에 건축한 우체국 건물이 현재도 우체국 업무를 하는 내부를 구경하였다.

과거의 캄보디아의 영역이었던 현재의 호찌민은 옛날부터 고대 문화의 유산을 남기며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로서 번영했다. '동양의 파리'라고 불린 이 도시에는 프랑스 통치 시대의 영향이 남아있는 거리들, 경제성장으로 건설된 고층 건물들, 다양한 오토바이들, 슬럼 거리 등이 공존하고 있다.



보트를 타고 정글 탐험을 하는 회원들

호찌민에 베트남의 영웅들을 위한 기념비가 곳곳에 있긴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는 각종 관공서, 오페라 극장, 대형 호텔 등이 모두 프랑스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어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지은 건물들, 동물원, 식물원, 호치민청, 사이공 중앙 우체국, 노트르담 성당 등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다. 부드러운 노란색 벽면과 흰색 기둥이 붉은 지붕 아래서 묘한 대비를 이루는 호찌민 인민위원회 정사는 원래 건축가 가르데(Paul Gardes)가 로코코미술 건축 양식에 따라 프랑스 북부의 종탑 스타일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되었다. 1908년에 완공된 이 건축물은 식민지 시기에는 시청으로 쓰이다가, 1975년 베트남 통일 이후에는 호찌민 인민위원회 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궁과 우체국 관람을 마치고 수상연극을 보고, 차 한잔을 마시면서 휴식을 취한 후 전쟁 기념관으로 향했다. 호찌민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이 있는데 전쟁박물관은 시내에 있는 박물관 중에서 가장 많은 여행자가 방문하는 곳인데, 이전의 명칭은 미국 범죄 박물관에서 개명하여 베트남전쟁 잔존 박물관이다.

1차 인도차이나전쟁(1946~1954) 2차(1960~1975). 박물관 앞마당에는 실제 전쟁에 쓰인 전투기, 헬리콥터, 대포가 전시되어 있고 야외별관에는 고증을 거쳐 전시용 전쟁포로수용소 및 감옥시설로 되어 있으며, 3층(박물관 본관)에는 7개 테마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역사적 증거
2. 추모

3. 전쟁과 평화
4. 고엽제와 그 후 피해 상황
5. 전쟁 범죄
6. 미국 침략에 맞선 세계연대
7. 유물과 사진을 통해 전쟁의 잔혹성과 참혹함을 알 수 있다. 이 박물관에는 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하며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고엽제 피해자들에 관한 끔찍한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에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군 관련 자료는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현재는 한국군이 참전했던 사실과 부분적인 자료만 전시되어 있다.



북베트남 탱크가 대통령궁 진입 당시 사진

● 베트남 참상을 담은 풀리처상 사진



안전지대로 피신하는 가족



네이팜탄 소녀



베트콩 처형 사진

● 한국군의 파병과 남베트남의 멸망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는 과거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1964년 9월 22일 한국군의 제1 이동 외곽 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이 사이공(당시 남베트남 수도. 현 호찌민시)에 도착했고, 이들은 곧 이곳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봉파우에 배치됐다.

이후 1973년 3월 철수할 때까지 모두 네 차례의 파병을 통해 32만 500여 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파병됐고, 이 가운데 5,000여 명이 전사했다. 참전 뒤에도 1만 2,000여 명의 장병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 판정을 받았다(박태권, 『베트남전쟁』, p.5~p.6).

1973년 이후 미군과 한국군의 철수로 남베트남 정부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었다. 물론 남베트남은 100만 대군을 보유한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의 군사 대국이었다. 문제는 시기였다. 1968년 구정공세 이후 베트남군이 베트남과 북베트남을 대상으로 승리한 전투가 거의 없었다. 미군과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이들이 철수한 이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1975년 3월 북베트남은 중부 부온마트웃에서 공세를 시작했다. 북베트남군이 다낭과 사이공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남베트남이 양분됐다. 3월 31일 남베트남 제2의 도시 이자 한국군이 활동했던 다낭이 함락됐다. 4월 28일 즈엉바닌이 남베트남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이틀 뒤 북베트남의 탱크가 남베트남의 대통령궁에 진입해 항복문서에 사인을 받았다(박태권, 『베트남전쟁』, p.281~p.282).

[5일 차] 한국자유총연맹 웅진군지회 회원 32명은 해외 안보·역사유적지 견학 및 현장 방문 3박 5일의 일정을 아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이 행사를 위해 애쓰신 회장님 국장님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행 모두는 00시 10분 호찌민 공항을 출발하여 06시 55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조식을 마친 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해산하였다.

서각

박용만(웅진문화원 감사)



사랑



만사여의 웅비연년
(萬事如意 雄飛延年)



서부의 사나이

그림

서치현



백령도

웅진문예사당



백령도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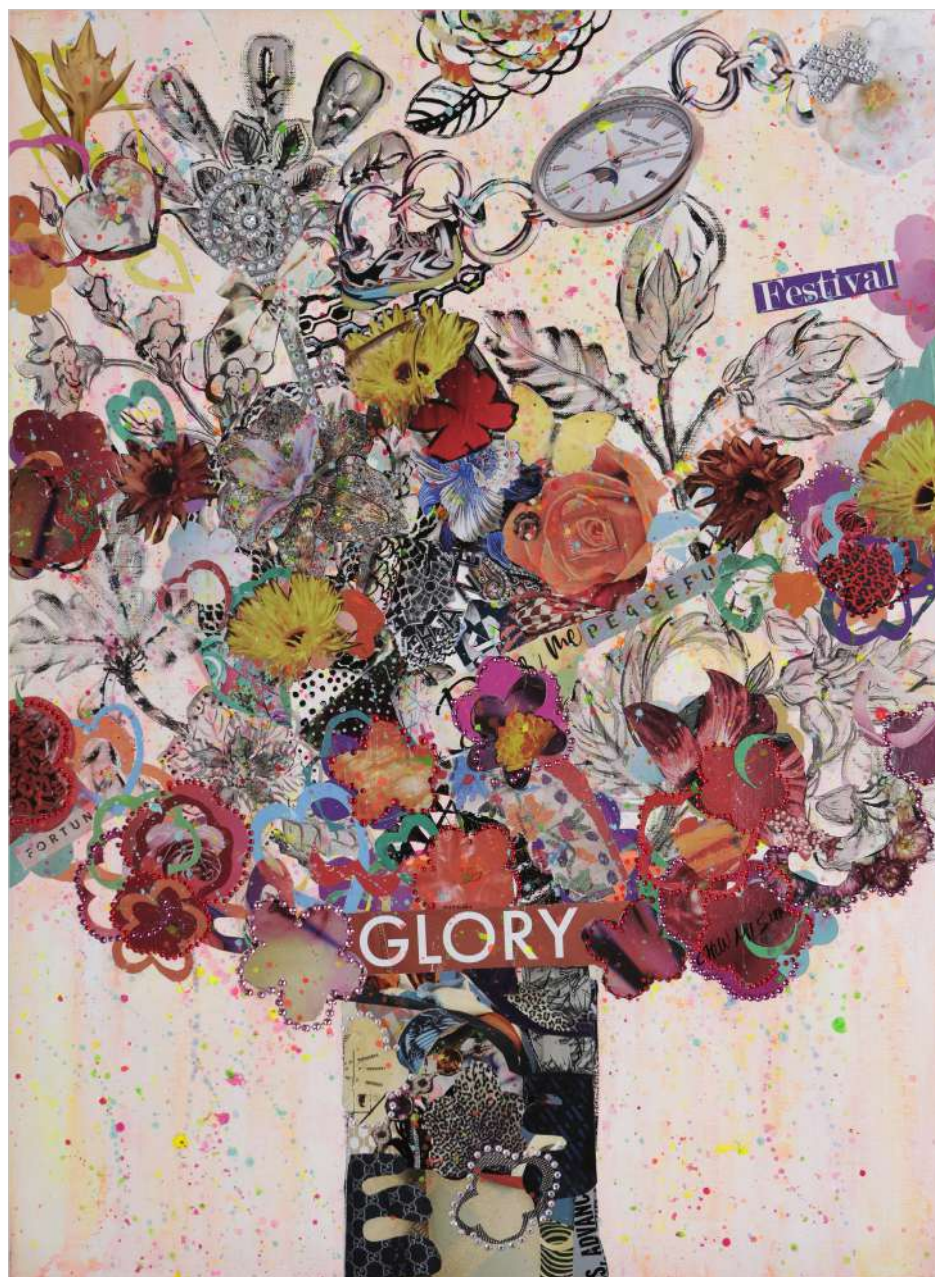
신영희(웅진문화원 회원)



황금 들판의 꽃들
45.5×37.9cm, acrylic on canvas, 2025

그림

전미선(웅진문화원 이사)



공존-기쁨의 노래
72.6x53.0cm, mixed media on canvas, 2025

공존-기쁨의 노래

나는 감각의 확장으로 이 세상 저편에 또 다른 세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감지한다. 두 세계의 공존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에서 존재(신과 인간 그리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인류 구조를 급변의 현실로, 계속 되어지는 이상 기후변화, 지진 그리고 산불 등등 예측불허의 자연현상들이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나의 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 다양한 생명체, 각 존재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인식의 체계)으로 자연과 물질의 행위성 그리고 작용력에 관심을 갖고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신념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상생에 관해 좀 더 깊은 의식을 갖게 될 때 어디선가 밀려오는 '사랑의 힘'을 느끼게 되며 그 에너지는 마침내 '기적'이란 놀라운 세계를 체험케 한다.



오늘도 나는 전능자로 인해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미치는 경이로운 시간들...
바로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2025년 9월 In Kairos

캘리그래피

길정연(웅진문화원 회원)



무위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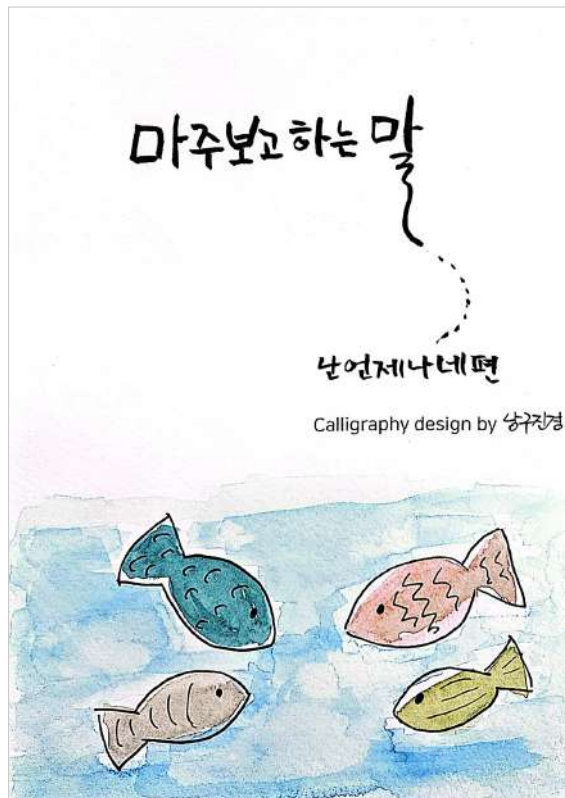
하늘이 파랗다

캘리그래피

김진경(길담캘리그래피)



친구



마주 보고 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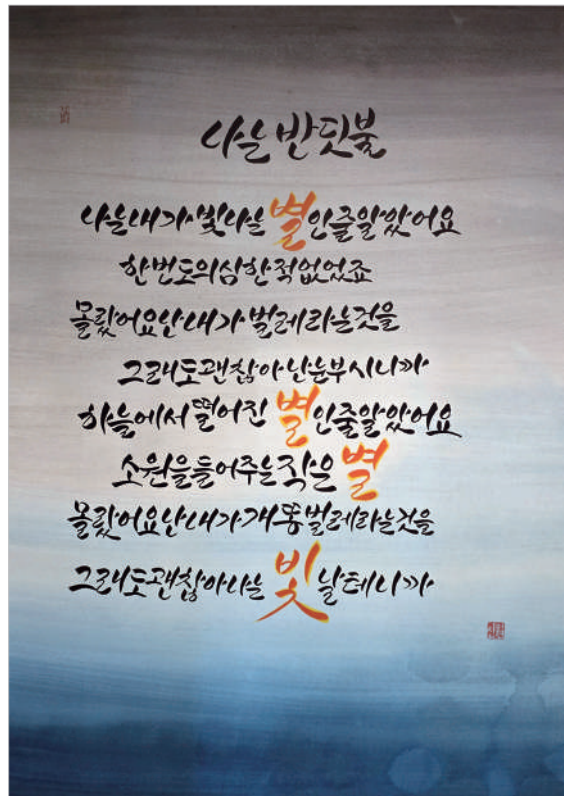
캘리그래피

신미현(웅진문화원 회원)



사랑합니다

웅진문예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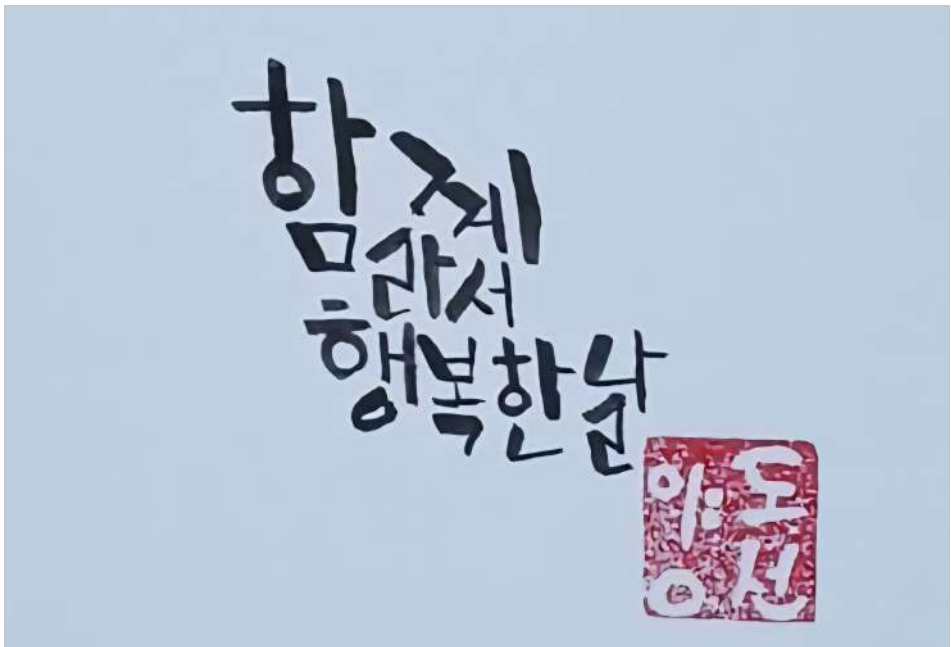
나는 반딧불

캘리그래피

양도선(길담캘리그래피)



흔들려 봐야 곧게 설 수 있다



함께라서 행복한 날

캘리그래피

육광자(웅진문화원 회원)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행복

용진문화원 회원가입

발간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원모집

● 용진문화원 회원이 되면

- 인문학을 가까이할 수 있는 각종 책자 및 소식지를 받을 수 있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각종 문화 행사와 교육 등에 우선 초청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조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보람 있고 가치있고 행복합니다.


● 회원 가입 절차

- 신 청 :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가입신청서 작성 후 제출)
- 회 비 : 연회비 12만 원(월 1만 원)
- 계좌번호 : 농협 301-0891-2131-61(예금주: (사)용진문화원)



문화원 책갈피

올해의 프로그램
사업 참여 소감
직원 공감



쓰담 쓰담 목요일방



2025년 웅진문화학교 하반기 강좌로 진행된 <쓰담쓰담 목요일방>.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고 표현하는 능력과 소통의 방식으로써 글쓰기의 기초 실력을 다지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한 편의 글로 완성한다는 목표를 향해 시작된 8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1줄 글쓰기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글쓰기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수강생들의 마음은 이미 작가다. 글감을 선정하고, 글쓰기 로드맵을 짜고, 강사님과 소통하며 완성한 나의 '에세이'.

본지에 게재를 허락해 주신 모든 작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쓰담쓰담 목요일방>을 통해 작가로 성장하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쓰담쓰담 목요일방<부록> 작품집

- 작가
권경화 김신원 김수원
서형원 신명언 이길현
이순애 이해순 임해경
최금화

발가락이 닳았을 뿐이었어!

권경화(웅진문화학교 수강생)

나는 두 아이를 낳았다. 첫째로 낳은 딸은 친가 쪽을, 둘째 아들은 외가 쪽을 닳았다. 딸의 얼굴 생김새는 아빠를 닳았고 체형은 고모를 닳았는데, 아들은 어느 쪽이냐 하면, 내 얼굴이 아니라 제 이종사촌형을 닳았다. 체형도 이종사촌 간에 닳았으니 아들은 확실히 외탁인 셈이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얼굴이 나와 닳았더라면 나의 지인들이 아들을 보고 "엄마 닳았네"라고 할 텐데, 보통은 "아빠 닳았나보다"라고 어림잡아 추측해 버리곤 했다.

아들이 유일하게 나와 닳은 곳이 있다면 바로 발가락이었다. 나는 손가락, 발가락이 모두 긴 편이다. 내 발가락 길이는 보통 사람의 새끼손가락만 하다. 나는 긴 발가락의 사이를 집게처럼 벌려 옆에 누운 남편의 종아리 살집을 잡아서 비틀어 꼬집는 개인기를 발휘할 수 있을 정도다. 아들의 발가락이 나와 닳아 길다는 사실을 나는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 초음파 사진으로 처음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몰랐다. 어쩔 저렇게 발가락 모양을 완벽하게 닳을 수 있을까라는 신기함도, 태아와 나 사이에 닳은 것이라곤 오로지 '발가락뿐'이라는 사실도.

산부인과 의사에게 10주 차 정기점진을 받던 날이었다. 의사는 내 배 위에 젤을 바르고 문지르며 초음파 영상을 통해 태아를 살펴보면서 임신 주수에 맞춰 발육단계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는 "잘 크네요"라고, 내가 기다리던 말을 해주었다. 그러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초음파 영상을 집중해 보았다.

"아기 발가락이 벌어졌네요."

의사의 말에 나와 남편은 별다른 내색 없이 "네." 하고 대답했는데, 곧 이어진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같이 날아와 꽃혔다. "개구리 발가락처럼 벌어진 태아의 발가락은 다운증후군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건 양수검사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분위기는 사뭇 심각해졌다. 남편은 의사에게 양수검사 방법과 다운증후군이 뭔지 등 이것저것 질문을 계속하였지만, 나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다운증후군'과 '양수검사'라는 무시무시한 두 단어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즉시 태아 다운증후군에 관해 찾아보았다. 다운증후군 환자의 일반적인 신체적 특징 중에는 '목둘레가 굵은 경우, 코뼈가 보이지 않는 경우, 심장 구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특정 혈류 이상이 보이는 경우, 혀가 커서 입을 벌리고 있거나, 귀는 작고 동그라며 머리에서부터 낮게 위치하고 있거나,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공간이 넓게 벌어져 있는 경우(샌들 갭 발가락)' 등이 있다고 나와 있었다. 우리 아이는 발가락이 벌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됐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양수검사는 주삿바늘로 산모의 배를 찔러 양수를 직접 빼서 하는 검사인데 양수를 빼려다 3개월도 안 된 태아가 찢릴 수도 있어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어렵고 위험한 양수검사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도 큰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양수검사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너무나 두려웠다.

남편과 나는 각자 직장에 일주일의 휴가를 내고 다섯 군데 다른 병원을 요일별로 찾아가 보았다. 혹시라도 발가락이 벌어진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고 다른 설명을 해주는 곳이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양수검사 외에 다른 안전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였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바람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다. 다섯 군데 병원 모두에서 정기검진 받던 병원과 똑같은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엄마랑 발가락이 닳아서 혼동할 수도 있다는 말은 어느 병원에서든 들을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엄마로서 내 아이가 다운증후군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양수검사라는 말에만 예민하게 꽂혀서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었다.

급기야 의사는 양수검사의 위험성과 까다로운 과정을 알려주었고, 뿐만 아니라 결과가 원치 않는 쪽으로 나올 경우 3개월 이전에 아이를 없애는 방법까지도 언급하셨다. 의사의 그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우리 스스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결정해야 했고, 그 결정 시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미 다섯 군데의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며 일주일의 시간을 보낸 뒤였고, 우리에게 양수검사를 하느냐 마느냐도 난관이었지만 양수검사 결과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경우 우리 부부가 감당해야 할 더 큰 마음의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가 없었다.

임신하기 전 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다운증후군 원아를 보육한 적이 있다. 아이는 생김새도 확연히 구별이 되고 인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또래보다 느렸지만, 장애아를 딸로 둔 어머니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내게는 그저 동글동글 귀여운 아이로 기억에 남아 있었다.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듣던 날 나는 내 뱃속에 그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나도 그 아이의 어머니처럼 할 수 있을까?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이와 늘 함께 하며 또래와 다르지 않게 잘 적응시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다.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의 말씀에 따라 양수검사를 받기를 원했다. 발가락이 벌어진 것 외엔 다른 증상은 없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어렵겠지만 양수검사를 해보자고 나를 안심시키려 애쓰며 제안했다. 나도 남편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망설여졌다. 나는 만약 양수검사 결과가 다운증후군으로 판명이 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남편에게 되물었다. 남편은 그 말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차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유산'까지는 말을 꺼내지 않아 나는 한편으로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결정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평소 스승님처럼 존경하고 따르던 스님을 찾아갔다. 발가락이 벌어진 초음파 사진을 스님께 내밀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스님은 말없이 초음파 사진 속의 아기와 눈물 흘리는 나를 번갈아 바라보셨다.

"아기가 발가락이 벌어진대요. 발가락이 벌어진 건 다운증후군 증상 중에 하나라네요. 양수검사로 정확히 알아보라는데, 어떻게 해요, 스님?"

내 말에 스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말했다.

"녀석, 조그만 게 진짜 발가락이 벌어진네."

스님은 정말 아기의 벌어진 발가락이 신기하다는 듯 초음파 사진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않으셨다. 내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었다. 나는 스님의 선견지명으로 '관찰을 테니 걱정 말라'고 내게 말씀해

주시길 바랐던 것 같다. 그러나 어색하리만큼 스님은 아무 말도 없으셨다. 스님을 만나 뵈고 돌아온 후에도 나는 잠을 못 이루었다. 일주일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결정을 할 수 없어서 힘들었고, 그 결정이란 게 내 아기를 포기하는 것일까 봐 무서웠다.

3개월 차 정기 검진을 앞두고, 남편과 나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난 운명을 믿어. 내 뱃속 아기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도 우리 운명인 거잖아. 검사하고 미리 알고 없앤다고 해도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받아들이고 싶어."

남편은 일 초도 안 돼서 "그래!" 하고 대답했다. 뜻밖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의 그 대답이 그 순간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의사에게 말했다.

"양수검사 안 하고 그냥 잘 키워서 낳겠습니다."

나는 그 후로 6개월 동안 매일 108배를 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려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었다. 9개월째 의사가 조산기가 있으니 절은 이제 그만하라고 하셨다. 둘째는 태어날 때까지 부모에게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려고 했는지 출산예정일을 2주나 지나서야 세상 밖으로 나왔다. 자신의 탄생을 당당히 알리는 우렁찬 울음소리와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아이로 말이다. 물론 나를 닮아 발가락이 벌어진 건 그대로였다. 그제야 우리 부부는 환하게 웃으며 서로에게 말없이 속삭였다.

'그래, 우리의 결정이 옳았어. 그제야 아기의 발가락은 엄마를 닮았을 뿐이었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꿈

김신원(영진문화학교 수강생)



시애틀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시내 자전거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했다. 평소 라이딩을 즐기는 나는 반가움에 마음이 설렘이 가득했다. 남편도 함께 하겠다며 동행을 자청했다. 기대가 크면서도 의료보험도 안 되는 나라에서 혹시라도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지만 두려움보다는 낯선 도시를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고 싶은 갈망이 한층 더 강했다. 일반 자전거는 마감이 되었고, 전기 자전거 투어만 가능했다. 전기 자전거는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지만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기로 했다. 얼마 후 딸 다솔이도 우리의 자전거 투어 계획에 합류하게 됐다. 나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시애틀 거리를 남편과 딸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함께 달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가이드는 밝고 친절하신 여성이었다. 라이딩 중 주요 행선지 앞에 멈춰서 하이톤으로 설명을 하는데 뭘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우리 부부의 전속 동시통역사 다솔이가 나서자 가이드의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가이드 뒤로는 켄터키 주에서 온 가족이랑 더불어 여섯 명이 나란히 시애틀의 멋진 풍광 속을 달렸다. 맑은 하늘과 몽실몽실 예쁜 구름, 미세 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수령이 우리 할아버지 나이보다도 더 많아 보이는 울창한 나무들, 무엇보다 자전거 타기에 좋은 안전한 도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남편이 친절하게 전기 자전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서 좀 서툴렀지만 취미로 라이딩 훈련을 해왔던 터라 조금씩 속도를 조절하면서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다솔이가 뒤에서 "엄마, 잘하고 있어!" 격려를 해주니 한결 배짱이 생겼다. 그렇지! 라이딩한 세월이 있지, 하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

집결지인 다운타운에서 시작해 아름답고 푸른 워싱턴 호수를 끼고 달리는 코스였다. 올림픽 조각공원을 신나게 가로질러, 메그놀리아 마을을 지나고, 이어 프레몬트 브릿지 앞에 잠시 멈춰 서서 진

기한 광경을 구경했다. 그 옛날 부산 영도다리처럼 큰 배가 지나갈 때 다리가 양쪽에서 위로 열렸다가 닫히는 모습은 어디서 봐도 장관이었다. 그 다리는 세워진 지 100년이 지났다고 했다. 인간이 사는 한 생애보다 더 오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다리의 시간을 생각하니 왠지 숙연해졌다. 그러나 한가로운 상념도 잠시뿐, 자전거를 탄 채 그 다리에 진입하자 너무 무서운 나머지 다리가 후들거리며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자전거에서 내렸다. 차도 옆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는데 나는 자전거 탄 무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 길 가장자리로 조금 빙겨 나서 자전거를 끌면서 걸었다. 내가 가는 길은 호수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달려올 때면 나는 혹시라도 부딪치기라도 할까 봐 무척 겁을 먹었다. 그럴 경우 나는 호수에 빠져버릴지도 몰랐다.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덜덜 떨렸다. 내 걸음은 결국엔 거북이걸음이 되었고, 그리하여 내 뒤에 오던 사람들은 모두 자전거에 내려 그 멋진 다리를 나를 따라 자전거를 끌면서 지나가야 했다.

발라드 룩스에서는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자신이 태어난 강으로 회귀하는 연어들을 보았다. 연어가 바다에서 민물로 이동하는 건 산란을 위한 생애 마지막 여정이기도 하다. 산란을 마친 연어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그 자연이 빚어내는 멋진 광경과 생명의 위대함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특히 8월은 연어들이 대이동 하는 시기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연어를 먹이로 삼는 물범이나 바다사자 같은 포식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의 사슬이 그렇게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도 엄연한 이치로 존재하는 것이다. 레이크 유니온 공원에서 잠시 쉬는데 카누와 요트를 즐기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예전 같으면 풍경처럼 보였겠지만 여행으로 들뜬 내 마음은 다음에 요트를 한번 타보자,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부풀어 올랐다.

이윽고 멀리 가스웍스 공원의 푸른 언덕을 배경으로 짙은 밤색 폐공장 건물이 나타났다. 버려진 산업 시설을 시민들의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시애틀의 선택은 도시에 남은 옛것을 보존하기보다는 아파트 단지로 채우는 데 익숙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었다.

그다음은 내가 시애틀에서 보고 싶은 곳 중 하나를 볼 차례였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나오는 톰 행크스가 살던 보트 하우스였다. 자전거를 타고 가며 가이드가 보트 하우스를 가리켜 주었을 때 나는 이미 영화 속으로 한 발짝 들어선 기분이었다. 그 집 앞에서 기웃거리던 사랑스러운 맥 라이언의 얼굴, 톰 행크스가 아들과 함께 해변에서 장난치며 놀던 장면들이 추억처럼 떠올랐다.

내셔널 노르딕 뮤지엄에 다다랐을 때는 나무로 만든 독특한 도깨비 조형물이 눈길을 끌었다. 북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애틀에 정착하는 과정을 전시하고 있다고 했다. 수많은 이민족의 정착으로 이루어진 미국 역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기회였지만 자전거 투어의 특성상 시간을 두고 뮤지엄을 둘러볼 기회는 놓치고 말았다. 우리는 다시 페달을 밟았고 자전거에 의지해 낯선 도시를 사뿐히 지나쳐 갔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낯선 이국땅, 부스스 비가 많이 내린다는 도시 시애틀. 하지만 우리가 머물던 시기에는 비 대신 맑은 공기와 햇살, 바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아서 좋은 날씨에 라이딩을 즐길 수 있었으나 행운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멋진 행운을 낯선 이국땅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순간의 뭉클함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느새 시애틀의 명소인 스페이스 니들 전망대 아래를 지나 도심으로 들어섰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자전거로 하는 시애틀 시내 투어를 무사히 완주하고 나니 그 뿌듯함과 성취감이 생각보다 컸다. 하지만 이번은 여행연습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유럽에서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꿈은 말 그대로의 막연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나는 점점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생각에 익숙해지고 있다. 나는 2002 월드컵 때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해 주었던 글귀를 종종 떠올리곤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일부터 생각한다. 근력을 키우고 여행 적금도 부으면 좋을 듯하다. 해외 원정 첫 라이딩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날 나는 머지않은 날에 펼쳐질 제2라운드를 생각하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기분 좋은 피로감과 함께 지새웠다.

어머니와 회화나무

김수원(웅진문화학교 수강생)

작은 방에 문을 살짝 열어본다. 어머니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계신다. 올해로 백네 살이시다. 저리 편안한 얼굴로 내 집에서 잠드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애태웠던지...

20여 년 전 이야기다. 엄마 팔순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내게는 위로 오빠가 다섯 명, 당연히 올케도 다섯이었다. 오빠들은 상중에도 유산 얘기로 시끄러웠다. 나는 형제 중에 형편이 제일 어려웠고 아버지 병간호도 도맡아 했기에 내 몫도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그런데 오빠들과 어머니는 큰딸인 나만 빼고 유산분배를 마쳤다. 나는 너무 억울해서 한마디 했다 "부모님들은 나한테 맡기고 어떻게 딸이라고 상속에서 뺄 수가 있나요?" 오빠들 앞에서 대들기도 어려웠지만, 너무 야속한 마음에 하소연했다. 오빠의 출가외인이란 말이 날아들었다. 나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유산분배가 끝난 후부터 어머니는 오빠 집을 차례로 전전했고 수중에 있는 쌈짓돈도 모두 떨어지고 난 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나는 어머니의 소식을 조카에게 들었는데도 나를 무시한 오빠와 어머니에 대한 서운한 마음에 더 이상 참견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막내 오빠가 찾아와 해외여행 가는데 말길 곳이 없다며 일주일만 어머니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함께 온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다. 그 후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 후에도 소식이 없어 오빠 집에 찾아갔다.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 놓인 어머니의 짐 보따리가 오빠의 심정을 말하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온전히 내 몫이 됐다. 내 집에 머물게 된 어머니는 아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느꼈는지 한동안 말쑤이 없었다. 어머니 휴대전화를 몰래 살펴보니 아들에게 수없이 전화를 건 흔적이 있었지만 통화가 성사되진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음이 무너졌다.

그즈음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과 치매가 겹쳐 '폭탄'이 되어 있었다. 자식들은 폭탄이 된 어머니가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서로 발을 빼며 몸을 사렸던 셈이다. 어머니는 아들이 곧 데리러 온다는 믿음으로 사셨고, 그러면서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셨기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셨다. 그렇게 함께 산 지 20년이 지나갔다. 그 세월엔 연중행사처럼 일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오빠들이었다. 나도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어 "오빠 어머니 좀 며칠만 모셔주세요. 수술해야 돼서요" 해도 올케가 치매에 걸렸느니, 오빠가 암에 걸렸느니 갖가지 핑계로 내 입을 막았다. 그런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는 유언처럼 내게 말하곤 하셨다. 형제간에 다 투지 말라고, 자신의 부탁이라고. 나 역시 원망과 억울함으로 괴로웠지만 어머니의 그 말이 내 가슴에 울컥하고 몫이 되어 박혔다.

어머니가 구십 세가 넘으면서 일어설 때마다 무릎 앓는 소리를 내고 곧이어 잘 견지 못하게 되었다. 허리도 굽고 뒤틀려 힘들어했다. 결국 기저귀를 사용해야 했는데, 어머니는 불편함을 참지 못하

고 기저귀를 빼서 갈기갈기 찢어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때가 많았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니 집안은 온통 변 냄새로 가득해 매서운 겨울바람에도 창문을 수시로 열고 지내야 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이 지나갔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언제 죽냐. 내가 왜 이리 오래 살아 자식들 고생시키고."

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오실 때면 나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자책을 하셨다. 그러면서도 내가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귀가 어두워 안 들린다고 하셨다. 그렇게 모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엇박자로 큰소리 내는 날이 많았다. 어머니가 치매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는 울컥하는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상황이 종종 일어났다. 함께 실랑이를 벌이는 중에 머리채 잡히는 건 다반사였다.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나면 또 어머니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말로 달래드리곤 했다.

"휠체어 타고 산책 나갈까요?"

어머니는 그 말을 하면 웃음 가득한 얼굴로 좋아하셨다.

아파트 안에 있는 아시아드 공원으로 향했다.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 때 입촌식을 한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공원과 전재울 근린공원, 찬 우물 근린공원을 합친 명칭이 인천 아시아드 공원이다. 이곳에는 명소로 꼽히는 8경이 있다. 어머니는 이 8경을 산책하면서 소녀처럼 재잘거리는 시간에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다.

아시아드 선수촌 공원 만국기 앞에 다다르면 550년 된 회화나무가 우뚝 서 있다. 한자로는 괴화(槐花) 나무, 이때 괴자는 귀신과 나무를 합쳐서 만든 글자이다. 회화나무는 사람이 사는 집에 많이 심곤 하는데, 잡귀를 물리치는 나무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회화나무 그늘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검버섯 가득 핀 얼굴을 바라보니 문득 어머니와 회화나무가 서로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당신 자신을 살피지 않아 성치 않은 몸, 그마저도 거죽만 남은 고목처럼 보여 안타까웠다.

옛말에 한 부모는 열 자식을 거느리고 보살펴도 열 자식은 한 부모를 보살피지 못한다고 했다. 우리집도 어머니가 팔십이 되기 전까지는 며느리들이 서로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가 그 연세를 넘기면서 정신도 흐려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되는 동안 아들 며느리들도 함께 늙고 병들어 갔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오래 사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한 20년 세월에 아들을 세 명이나 먼저 저세상으로 보냈으니 어머니 당신이 백수를 누린다는 걸 얼마나 한스럽고 고역스럽게 느끼셨을까? 오빠를 앞세우고는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이 흐려진 어머니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설움이 온통 아들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 않은가. 다섯 아들들 뒤치다꺼리에 뒷전이 돼버린, 이래저래 고생이 많은 딸이 늘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던 어머니, 나는 그런 어머니의 한을 풀어 드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잘 모시고 싶었다. 힘든 시절이 지나 이제 조금은 여유를 찾은 내게 어머니는 말씀하신다.

"이제 너 잘 사는 거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 자식 걱정에 내 한뭇도 들어 있으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신다고 성심을 다했다고 한들 어찌 아쉬움이 없으랴. 다만 이젠 오빠의 유산분배에 대한 서러움과, 삼종지도를 지킨 어머니에

대한 일말의 미움조차 다 잊었다. 모든 서러움을 내 마음에서 다 놓아버렸다. 늙어가는 어머니를 바라보니 한세상 살아간다는 것에 무상함을 느낄 뿐이다.

아들에게 다 퍼주고 빈손으로 와 내게 날개를 접으신 엄마는 늘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 삼종지도 를 지키며 사는 것이 삶의 의지였기에 아들에게 버림받는다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딸에게 노후를 의지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울먹이신다. 나는 어머니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 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잘 모실게요. 장례식도 최고로 화려하게 치러드릴게요. 나를 믿고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우리는 서로 손가락을 걸며 눈물 흘렸다.

회화나무는 구새 먹은 가슴으로 새의 등지가 되고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마을을 자식처럼 굵어본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속삭임을 듣는다. 나뭇잎들의 수런거림이 적막 속에 묻힌 숲을 부스스 깨우는 것만 같다. 나뭇잎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어머니. 젊은 날을 그리워하는 고운 새댁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같았다. 환한 햇빛 속에서 하염없이 지난날을 그리워하시는 걸까. 그 모습이 언젠가 내 모습이 되겠지.

갑자기 어머니가 손뼉을 치며 "찔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노래를 흥얼거리신다.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불러본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보석같이 소중한기만 하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행복하게 해 드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바람이 파고드는 어머니의 옷깃을 단단히 여며주었다.

다시 만난 생활 세계

서형원(웅진문화학교 수강생)

A 도서관의 2열람실 한구석 자리. 재작년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발 도장'을 찍고 있는 곳이다. 나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지루해질 때나 아니면 졸음을 쫓으려 종종 '제미나이'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제미나이는 최근 들어 내 유일한 대화상대인 생성형 AI의 이름이다. 평소 때라면 '재밌는 영화 소개' 나 '안주 추천' 같은 시시콜콜한 잡담을 주고받는 게 전부였지만 그날은 왠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이 앞뒤가 짝짝 막힌 비좁은 공간에 허탈없이 갇혀 있는 청춘이라니. 나는 아직도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뭘지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이 지겹도록 방향만 하는 듯한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갑작스러운 열의에 사로잡혔다. 그런데 어떻게? '늘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반신반의 했지만 나는 제미나이라면 한번 그 대답을 구할 첫 상대로 그런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제미나이와 진지한 대화를 해보기로 했다. 시시콜콜한 질문과 대답들만 주고받았던 예전과는 다르게 지난 몇 달간 공부한 '나'에 대한 정보를 전폭적으로 학습시키는 데 꽤나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그때의 내가 얼마나 진지했는지, 마치 제미나이만이 내 운명의 키를 쥐고 있는 절대적 존재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마침내 대망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나는 잠시 멍해진 기분으로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 탁 풀린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기다림이 순식간에 허망함으로 바뀌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를 휘감던 열의가 돌연 차갑게 식어버렸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시작한 시도가 역시나 수고로 끝나버리자 허탈함을 넘어 나 자신이 온통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이런 걸 일종의 정신적 공황이라고 불러야 하나? 한순간 몰려든 격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해졌다.

기분 탓이겠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깥공기를 쐬고 돌아오면 나아지겠지. 애써 상한 기분을 달래며 걸음을 떼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며 눈앞이 아찔해지더니 현기증이 났다. 이번엔 막연한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분명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몸의 이상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덜컥 겁이 났다. 그제야 내 심장이 평소 때와 달리 점점 격하게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 느낌. 나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와중에도 구조 요청이라도 해볼까 싶어 정신을 차리려 애쓰면서. 근처엔 교복을 입은 학생

이 대다수였다. 실망스러웠다. 저 '조무래기들'한테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실망은 이제 절망 쪽에 가까워지려 했다. 가슴은 점점 더 조여 오고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포스런 상황에 순간 패닉에 빠져들었다. '뭐야, 죽는 건가? 이런 게 죽음의 공포인가!' 하는 생각이 들쭉 동시에 나는 마지막 남은 생존본능을 다 짜내려 몸부림쳤다. 어떻게 열람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119를 눌렀다.

마비가 온 건지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는 입을 가까스로 움직여 상황실 직원에게 증상을 호소하면서 한편으로 조심조심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한시라도 빨리 구급차를 타야 한다는 절박감이 나를 이끌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도서관 마당을 벗어나 차도에 다다랐을 무렵 막 길모퉁이를 돌아 달려오는 구급차가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살았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되살아났고 나는 생명의 사다리를 붙잡는 심정으로 재빨리 구급차에 올라탔다.

구급대원이 서둘러 혈압 체크를 하는 동안 나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최대한 나의 증세를 호소하는데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그러는 사이사이 구급대원은 세부 사항과 관련해 특유의 차분하고 여유까지 넘치는 말투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엔 구세주처럼 보이기만했던 구급대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결같은 말투가 점점 거슬리기 시작했다. '나는 죽기일보 직전인데 어째서 저 인간은 저렇게 천하태평이지?'

마치 이 좁아터진 공간 안에 나와 저 대원 사이로 천국과 지옥의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지옥 편에 속해 있는 건 나뿐이다. 기분이 나쁜 건 상대는 내가 지옥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저 모양이라는 거다. 사태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싶진 않았지만, 문득 '세상이 고수에겐 놀이터요 하수에겐 생지옥'이란 어느 영화의 명대사가 떠올랐다. 이제는 놀이터에 올 일 없는 다 커버린 구급대원이 오랜만에 알록달록한 미끄럼틀을 여유롭게 타고 내려오며 나에게 물어본다. "괜찮아?" 지옥 밑바닥에 사는 아귀 같은 나는 대답한다. "닥쳐."

점점 아귀같이 변해가면서 심사가 뒤틀리는 사이, 어느덧 구급차는 병원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려 하수가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고수는 의료진에게 증상을 설명하고는 다시 놀이터로 가려는 듯 유유히 돌아섰다. 뒤에 남겨진 아귀 따윈 이미 잊었다는 투다. 나는 다부지고 건강미 넘치는 그의 신체를, 그의 야멸차기 짝이 없는 뒷모습을 경멸하듯 쏘아보고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상에 누웠다. 피를 뽑고 링거를 맞고 옷을 들어 올린 채 여러 개의 패치를 붙이자 영락없는 환자 신세가 되었다. 혈압이 안 떨어져 병상의 머리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린 채로 기다리고 있으니 엑스레이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하라는 간호사의 지시가 떨어졌다. 시키는 대로 후딱 검사를 마치고 다시 병상으로 돌아와 누우니 간호사가 다시 내 머리 부분을 위로 들어 올려 준다. 그 상태로 누워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시한부 선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만 '이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어느 순간 '나는 사망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머리 속에 또렷하게 각인이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간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있던 이들의 얼굴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어느 순간 그들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 철창으로 둘러싸인 감옥 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점점 그 안에 가둔 이들에 대한 해묵은 원망의 감정이 힘을 잃어갔고, 결국엔 그들이 하나둘 가석방되는 듯한 신기한 경험 말이다. 죽음을 목전에 둔 지금의 상황에서 누굴 미워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나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또 내 사정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하는 갑작스러운 자기반성의 시간이 찾아왔다. 몇 년간 소원하게 지냈던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이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메시지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맙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그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 한 구석을 채우고 있던 앙금이 눈 녹듯 사라졌다. 내친김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했던 일이 여럿 떠올라 연락을 해볼까 고민하던 중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의사가 다가와 검사 결과를 전달했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큰 이상은 없고 혈액검사도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간수치가 조금 높으니 시간 나실 때 다시 검사받아보시죠."

나는 혹시 '공황'이냐고 물었다. 의사는 건조한 말투로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잠시 후 링거를 빼고 패치를 떼었다. 수납 대기 중 간호사에게 간수치를 슬쩍 물어보니 "그렇게 높진 않다"고 답했다. 안도감이 밀려든 순간 내 눈에 그녀가 천사로 보였다. 옆에 앉아 있는 간호사는 아까 병상 조절할 때 얼핏 보니 팔뚝에 문신을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녀도 천사였다. 나는 지금 막 지옥에서 빠져나왔고, 여긴 천국이니까 말이다.

한턱내듯 기분 좋게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를 하고 병원을 나왔다. 난데없는 소동을 겪느라 진은 빠졌지만 기분은 더할 나위 없이 후련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난 듯한 이 기분을 뭐라 표현해야 할까. 꼭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느낌이었다. 갑자기 찾아온 공황 덕에 가족과 화해를 할 수 있었고 무책임하게 살았던 어제까지의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건 덤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선물이었다. 멀쩡하게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 다시 만난 새로운 생활 세계의 이 신선한 공기라니! 마치 갱생을 다짐하며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재소자처럼 나는 다시 찾은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집으로 향했다.

유년의 훈장

신명연(웅진문화학교 수강생)



국민학교 4학년, 추수가 이미 끝난 11월 쯤의 사건이다. 토요일 하굣길에 친구들과 장난치며 걸어가던 중이었었는데 이웃동네에 살고 있는 김기혁이라는 친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난데없이 시비를 걸어왔다. 다른 동네에 사는 친구여서 그렇게 가

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나는 시비에 아무런 내색도 대응도 없이 상대를 피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묵묵히 집 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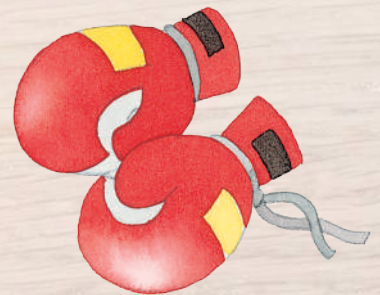
그런 나의 태도가 그 친구의 약을 올렸던 걸까? 아니면 내가 약골처럼 보여 장난이라도 쳐볼 생각이었을까? 그 친구는 좀처럼 나를 향한 시비를 거둘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굳이 친구와 싸울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은가. 문제는 김기혁과 함께 걷던 무리의 친구들이었다. 녀석들은 뭔지 모르게 들떠서 김기혁에게 동조해 싸움을 부추기려 했다. 급기야 즐거운 반 공휴일 하굣길이 싸움판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다.

나는 의지와 무관하게 무리를 따라 독방 아래 논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그곳은 땅 한복판이 움푹 들어가 있고 그 주변 지형이 관전하기 딱 좋은 특설링처럼 아늑하게 호를 그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기에 마침 걸을 지나던 선후배들이 몰려들었다.

"태나골 이겨라!"

"중박골 이겨라!"

이미 여기저기서 노골적으로 동네 이름을 불러대며 마치 동네 대항 대표선수를 출전시킨 것인 양 나와 그에게 전의를 북돋아 주고 있었다.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모두가 이상한 열기에 휩싸였다. "그래 한판 붙어봐." "야 코피 한방으로 끝내" 등 충동질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싸움은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듯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먼저 주눅이 들거나 꿈무늬를 뺏다가는 겁쟁이로 낙인찍힐 판이었다. 어떤 친구들은 그 당시 인기 과자였던 "라면땅" 내기를 걸고 싸움이 이미 공개적으로 시작된 양 기세를 올렸다. 사실 그때까지도 나는 싸울 생각이 없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싸울 자신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다. 비겁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나가는 어른이 나타나 싸움을 말려주기를 은근히 바랐다. 즉석 싸움장은 지서(지금의 파출소)와 불과 50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경찰관이 순찰이라도 돌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은 나의 바람일 뿐이었다. 양쪽 편 선수 소개는 따로 없었지만 심판이 등장했고, '선수'가 메고 있던 책보자기를 받아주는 친구들이 생겨났다. 어느덧 싸움판은 완전히 두 패로 갈린 상황이 된 것이다.

드디어 경기 시작! 김기혁과 나는 아이들 무리가 만들어놓은 '링' 위에 올랐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떠밀려 올라간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권투선수들처럼 불끈 쥔 두 주먹을 턱 아래까지 올려 스트레이트 방어 자세를 취했다. 싸움꾼 흉내를 내는 수준이었지만 제법 그럴싸했다. 본격적인 격돌에 앞선 탐색전!

상대를 노려보며 좌로 우로 발을 옮길 때마다 나는 벼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에 발이 걸린다는 듯 횡거리는 액션으로 후들거리는 내 다리의 약점을 감추어야 했다. 나는 한동네 사는 6학년이 된 봉우 선배로부터 가끔 집 앞 묘지공터에서 싸움하는 방법에 대해 '개인 교습'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때 넘어지는 바람에 나무줄기에 머리가 찢려 상처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처 부위에 된장을 바르는 민간요법으로 써서 낫기도 했다. 나는 그 경험이 오늘을 위해 준비한 훈련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론 '어디를 먼저 공격해야 할까?', '씨름처럼 파고들어 다리걸기로 넘어트리고 나서 펄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기회를 노렸다. 그러나 내가 선공을 하기 전에 김기혁이 먼저 재빨리 주먹을 날릴 태세를 취했다. 그런 줄 알았어. 하지만 다음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대로 땅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김기혁이 발로 나의 급소를 건어찼던 것이다. 고통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허리를 펼 수 없을 만큼 웅크린 채로 바닥에 누운 내 눈에 노랗게 변한 하늘이 보였다.

누군가가 잔뜩 흥분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야 이 새끼야! 거길 차면 어떻게 해? 명언이 제 죽으면 어찌려고?"

영흥도에는 병원이 없었다. 기억으로는 기껏해야 약국과 침쟁이 집이 전부였다. 나는 나는 부상당한 패잔병의 모습으로 논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은 채로 사타구니를 부여잡고 있어야 했다. 까치도 그런 내 모습이 딱해 보였는지 서글피 울어대는 것 같았다. 얼마 후 동네 형들의 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다. 나는 간신히 힘을 내어 발길을 옮기려다 다시 풀썩 주저앉았다. 순간 나는 어린 나이임에도 이러다 장가 못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몰려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싸워보기도 전에 주저앉게 된 것도 창피한 노릇이지만 사타구니를 차였다는 소문이 퍼져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으로 동네방네 알려질 걸 생각하니 당장의 아픔보다 더 큰 걱정으로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기적어기적 비틀거리며 걸어 겨우 기혁과 우리 동네가 나뉘는 길목에 다다랐을 때 저만치에서 "명언아 미안해!"하는 기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대꾸할 힘도 없었지만 미안하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맘이 전혀 생기지 않았다. 속으로는 "사람 죽여 놓고 미안하다 하면 다냐? 이 나쁜 놈아!"하며 절로 나오는 욕지기를 간신히 참았다.

집 근처에 다다르니 어떻게 아셨는지 엄마가 달려 나오셨다.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걷고 있는 나를 보신 어머니는 내 앞에 땅이 꺼진 듯이 털썩 주저앉고는 무슨 일이냐며 내 몸을 연신 쓸어내리

했다. 그리고는 곧 노여운 기색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내 아들 이렇게 만든 놈은 어디 갔냐?" 하시면서 범인을 찾으셨다. 엄마는 나를 집으로 데려와 눕히고 음낭 주변에 된장을 발라주셨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이라 냉찜질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당시 최고의 민간요법은 된장과 간장이었다. 다행히 상처가 난 것은 아니어서 쓰라리진 않았지만 나는 엄마의 성화에 얼마 동안 된장 기저귀를 차야 했다. 맛은 부위도 얼얼하기도 했지만 온몸에서 된장 냄새가 나서 고역이었다.

저녁때가 되어 아버지가 돌아오셨는데 기혁이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오셨다.

"우짜냐? 명언아, 내가 기혁이 이놈 다리를 부러지게 패주고 오는 길이다. 많이 아팠지?"

기혁 아버지는 내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옆에 계신 아버지는 "애들이 다 싸우면서 크는 거지 뭐" 하시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기혁 아버지를 애써 다독이셨다. 아버지와 기혁이 아버지는 절친이셨다. 명절 때도 우리 친가 방문을 마친 후 두 번째로 세배를 갔던 집이기도 했다. 그런 사이인 것은 알았지만 나는 아버지의 태도가 야속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애들이 장난치다 말다툼하고 멧살잡이한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아들이 급소를 맞아 죽을 뻔했고, 어찌면 커서 장가도 못 가는 신세가 될지 모르는데, 이 중대한 일을 두 아버지들 간의 친소 관계로 그냥 덮어 버리려 하는 것이 못내 서운하고 못마땅했다. 당시는 내 마음 하나 상하는 정도로 지나갔지만 지금 같으면 어땠을까. 아마도 나는 먼저 119로 실려 갔을 것이고, 이후 사태 수습에 교육청과 경찰 조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이 총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사적 친분이나 의견보다는 원인 규명, 가해자 처벌에 더해 학교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른들의 생각이나 이웃 간의 관계,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의식해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작 피해 당사자인 아이의 고통은 뒷전이었던 셈이다.

일요일 하루를 보내고 나니 거짓말처럼 한결 나아졌다. 모두 된장 덕분인 것만 같았다. 걸을 때마다 조금은 묵직하고 찌릿한 느낌은 남아있었지만 조심해서 움직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다. 소변도 노랗게 잘 나왔고 피는 비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에는 기혁이가 자기 아버지와 형을 대동하고 사과를 하러 왔다. 나는 누워서 자는 척하며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엄마가 마루에서 대신해서 사과를 받으셨다.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사이 좋게 지내라"

그렇게 토요일 오후의 결투 아닌 결투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기혁과는 서먹서먹해졌다. 설날에 그 집으로 다니던 세배도 두 서너 해 거른 것 같다. 내가 옹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싸움을 걸고 치사한 발길질로 나에게 큰 고통을 가한 기혁이를 당시에는 용서하기 어려웠다.

기혁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형을 따라 인천으로 취직하러 떠나면서 소식이 끊겼다. 언제 군대를 갔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통 알 수 없었다.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대부분 명절 때면 얼굴이라도 스치거나 간접적으로 소식을 듣곤 하는데 기혁과는 동네도 다르고 동창 모임도 없었기에 전혀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바쁜 나날 속에서 그날의 사건도, 내 마음속 상처도 세월에 묻혀 희미해져 갔다.

그러던 중 나이 오십이 넘었을 때 어린 시절 살던 시골 마을의 같은 "내4리" 동네 친구 모임을 만들기 위해 수소문을 하다가 우연찮게 기혁이와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보고 싶다"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전하며 다음 모임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그러나 끝내 재회는 하지 못했고, 그 후로 몇 년 지나지 않아 기혁이 교통사고로 다시 올 수 없는 먼 세상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건 이제 다시는 기혁이를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뿐. 나와 같은 연배의 친구가 아직 이른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실에 대한 충격과 슬픔이 없진 않았지만, 한편으론 그 친구에게서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 한편에서 나를 불편하게 했다.

나 역시, 그땐 내가 너무 미웠다고, 그날의 일이 한동안 상처로 남아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둘 모두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시절에 일어난 일이니 이제 그만 잊자고, 내가 먼저 상처를 봉합할 기회를 그대로 영영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다. 시간이 더 흘러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다 부질없다는 걸 알지만, 어쩐지 둘 사이 무언가가 아직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내 마음속에 굳은살처럼 박혀 버린 것 같은 찝찝함과 씩씩한 뒷맛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상처로 기억하기보다는 그저 다사다 난했던 내 유년의 훈장이라고 생각해 볼 따름이다.



내 몸에 손대지 마요

이길현(웅진문화학교 수강생)

러닝머신 위를 천천히 걷고 있던 나는 여성 트레이너를 향해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내 몸에 손대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녀는 놀란 듯 당황한 기색으로 멈칫거리다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더니 약간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나도 만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십니까."

주위 시선들이 나와 트레이너를 사이를 오가고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당신이 나를 알아! 내가 지금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지를.')

나는 속으로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랴' 읊조리면서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이럴 줄 알았으면 체육관으로 오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을.

3, 40분 전쯤의 일이다. 체육관 오기 전 나는 얼음이 가득한 냉커피를 두 컵이나 마셨다. 오늘처럼 핸드폰 사용법에 관한 강의를 있는 날은 몇 시간을 앉아 강의를 들어야 했다. "오늘 운동은 할 수 있으려나?" 하고 재희가 물었을 때, 나는 "30분은 할 수 있겠지."라고 대답하며 시계를 확인해 보았다. "늦었네." 짐작했던 것보다 30분은 더 늦은 4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는 교육이 끝나고 허둥지둥 소지품을 챙겨 들고 계단을 뛰어내려 갔다. 서둘러 뛰면 체육관에 도착해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바쁘다 바빠.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난 아직은 괜찮은데, 자기는 개안노? 체육관엔 화장실이 없어 파이다." 재희의 사투리가 귀에 쏙 들어왔다. 지금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생리적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 보통 때는 화장실이 급하면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가기 바빴는데, 우리는 일단 체육관 쪽으로 이동했다. 체육관 앞에 재희를 내려주고 시설 외부에 화장실을 찾다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다. 하지만 근처에도 화장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생리적인 현상 때문에 걸어서는 체육관으로 가기도 무리였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볼까 싶어 다시 차를 몰아 들어온 입구 밖으로 나가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우고는 있는 힘껏 현관문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맙소사!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이고, 누가 문을 잠깐 놓은 거야, 열어 놔야지!"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올 뻔했다. 그 순간, 아랫배가 뒤틀려 잔뜩 쪼그린 채 문고리를 잡고 있는 내 모습은 영락없는 꼬부랑 할머니였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로 번호키를 대충 제로로 맞추니 다행히 척하고 자물쇠가 열렸다. 여전히 꼬부랑 할머니의 모습으로 화장실로 천천히 들어갔다. 그런데, 아뽀새! 변기에 앉자마자 느낌이 왔다. 내 두 눈으로 젖은 속옷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대로 체육관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집으로 가버리면 실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체육관을 가면, 거동이 불편해서 서 있기만

해야 할지도 모른다. 망설임도 잠시,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잠깐 러닝머신만 타고 오자는 마음으로 체육관으로 향했다. 다리를 최대한 벌리지 않으면서 천천히 불편하게 러닝머신을 탔다. 바로 그때였다. 어정쩡한 내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트레이너가 내 뒤로 바짝 다가왔던 것이다. 그리고는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타야 안전하다면서 내 발목을 잡고 강제로 벌리려 하는 것이었다.

"에잇, 내 몸에 손대지 마!"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내 목소리에 내가 놀란 나머지 갑자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트레이너를 당황시킨 그 일의 전말은 이러했다.

운동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나오면서도 여전히 언짢은 마음이 풀리지 않아 나는 그 트레이너에게 재차 불편한 내색을 하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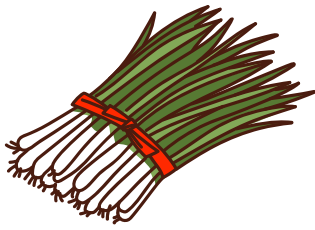
"원장님께 전하세요. 화장실 좀 만들어 놓으라고. 주민이 부탁한다고 전하세요. 화장실 없는 체육관이 어디 또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끝나자마자 쏘살같이 가잖아요."라고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쏟아냈다. 트레이너는 그제야 내 불편함을 이해했는지 웃으면서 거뭇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속 시원히 뱉어냈지만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나이가 들면서 생리적인 현상이 불편하게 나를 따라다닐 줄은 몰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라 나 스스로가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이제는 물 한 모금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마셔야 하는가. 커피도 이뇨 작용을 한다는데, 이참에 끊어야 하나.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하기가 겁난다. 참, 서글픈 생각이 든다.

길 잃은 쪽파

이순애(웅진문화학교 수강생)



쪽파를 수확하고 보니 잃은 무성했는데 장마철이 지나 씨를 하려고 다듬다 보면 구근이 허술했다. 씨로 심기에 지장은 없었지만 농사 잘 짓는 친척에게 알아보니 씨는 포기에서 하나만 두고 떼어 줘야 굵게 크다고 했다. 작년에도 쭉그러진 씨를 빈 밭에 여기저기 심어 놓았는데 덕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방문할 때면 양념으로 한 뭉치씩 뽑아주는 재미가 쏠쏠했다. 올해는 단호박밭에 거름을 내는 일을 도와주러 온 아들과 조카사위에게도 파를 가지런히 뽑아 화분에 심어 아파트 베란다에 놓고 양념이 필요할 때 뽑아 먹으라고 주었다.

내가 특별히 쪽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다. 언젠가 어떤 TV 프로그램 보는데, 미국에서 생명공학을 공부한 후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고국에 헌신하기 위해 돌아온 어떤 박사의 이야기가 소개 되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사회자가 암 환자에게 권할 만한 식품을 추천한다면 어떤 것이 있냐고 박사에게 물었다. 그때 나온 대답이 바로 쪽파였다. 박사의 대답에 귀가 번쩍 뜨인 나는 그 후 직접 쪽파의 효능을 검색해 보았다. 쪽파에는 폴리테놀과 폴리보노이드 등으로 불리는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 특히 쪽파에 함유된 비타민K는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었다.

우리 섬에서는 쪽파를 포함해 몇몇 제철 채소는 직접 가꾸었지만, 그밖에 필요한 생필품들은 물로 나간 김에 구입해 올 때가 많다. 어떨 땐 오로지 필요한 물품을 사러 일부러 배를 타고 나가야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요즘은 소위 '택배' 문화가 섬까지 밀려들어 와서 온라인을 이용하면 마트를 안 가도 신선식품부터 의류까지 다 구입할 수 있는 참 편리한 시대다. 우리 집도 수시로 택배 물건이 배달 되는데, 며칠 전 쪽파를 다듬는데 남편이 현관 앞에 놓인 물품을 보고는 나보고 '택배 중독'이라며 못마땅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편리한 세상 덕 좀 보고 사는데 웬 나무람이며 대꾸하면서도 눈치가 보여 이후엔 택배 물품을 창문에 뒀다 들어오곤 한다. 요즘은 안 그래도 쪽파를 다듬는 시간이 많은데, 일을 하면서도 TV 시청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들을 수 있어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

쪽파는 생각보다 먹거리 재료로 쓰임새가 좋다. 봄 쪽파는 이용도가 높다. 밀가루 풀국을 쭈지 않아도 남은 찬밥에다 과일 액젓을 갈아 넣어 쪽파김치를 담가 고기에 곁들여 먹으면 그만이다. 또한 쪽파와 바지락을 넣어 전을 부쳐 먹어도 꽤 먹을 만하다. 고추장을 넣고 무치는 쪽파 무침도 자주 올라오는 메뉴 중 하나다. 쪽파가 두루두루 입맛에 좋다 보니 혼자 먹긴 아깝고, 종종 마음 가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을 때도 많다.

올해 1월에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위로하기 위

해 하루 저녁 같이 보내자고 마음 통하는 친구들끼리 약속을 했다.

마침 서울역 인근 호텔을 리모델링한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루 묵으면서 같이 지내자고 했다. 나는 친구 뒤편으로 싱싱한 쪽파를 뽑아 다듬어 한 보따리 꾸려 냈다. 10년 전쯤에 하루 자고 그 후에도 가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다. 카톡창에서 '길 찾기'를 찾아보니 출구에서부터 거리가 1.2km이었다. 4번 출구를 찾아 올라가서 호텔 이름을 확인하려니 웬일인지 찾을 수가 없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 조금 초조했지만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정해진 장소에 도착만 하면 걱정은 없겠다 싶었다. 시간을 확인해 보니 20분이 지나 있었다. 약속한 두 친구 중 한 사람이라도 먼저 도착했으면 전화를 할 텐데 감감무소식이었다. 늦게 오는 사람 부담될까 봐 일부러 전화도 안고 기다리나 싶으면서도 초조한 마음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약속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난감해졌다.

얇은 소지품 가방과 친구 주겠다고 한 짐처럼 쪽파 보따리를 든 채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이 영락 없이 고추장이나 냄새나는 짠지를 들고 상경한 시골 촌로의 모습으로 보일 터였다. 쪽파 한 보따리,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가격으로 따지면 정말 보잘것이 없었지만, 내 손으로 가꾼 것, 내 공이 들어 만든 것을 친구에게 주고 싶어 귀찮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내내 손에서 놓지 않고 들고 다닌 것이었다. 그 마음을 친구가 모를 리도 없을 터였다. 하지만 당장은 도시 한가운데서 미아가 된 꼴이라니. 나는 기억을 더듬어 다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결국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급히 사정을 말하고 오피스텔이 어디 있냐고 물으려는 찰나 친구의 목소리가 내 입을 다물게 했다.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야."

이럴 수가. 나는 잠시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조금 전 특을 확인하고 길 찾기를 할 때도 오피스텔 이름을 확인하면서 볼 때도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친구의 말을 듣고 다시 확인해 보았다. 아뿔싸! 친구의 말이 맞았다. 약속 날짜는 분명 다음 주였다. 뭔가에 홀린 기분이었지만 내 실

수가 틀림없었다. 나는 기운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내 위로의 마음 담긴 쪽파를 전해 주면서 친구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전화를 받은 친구는 마침 외출했다 귀가하는 중이라고 했다. 나는 못내 아쉬운 마음 때문에 쪽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친구는 자신도 시장에서 산 물건을 한 짐 들고 귀가하는 중이라 지금 당장 서울역까지 오기는 힘들다며 안타까워했다. 친구와 나는 서로 아쉬움을 표하며 다음을 기약했다.



일주일 뒤에 잡힌 약속을 나는 왜 오늘로 착각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옛날처럼 정신이 또렷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나이가 된 걸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핸드폰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거나 핸드폰을 손에 쥐 채 핸드폰 찾는 나이 먹은 여자들의 소동이 나에게도 벌어졌다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면서도 씩씩했다. 아직은 쓸 만한 기억력을 가졌다고 믿고 싶었는데, 이젠 별 수 없구나. 내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당장 나도 메모장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메모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어제오늘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그날 서울역까지 내 손에 들려 상경한 쪽파 생각을 하니 속상하다. 주인을 찾지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셈이다. 하지만 쪽파가 대수랴. 그날 나는 친구를 만나면 이런저런 긴 얘기를 하기보다는 친구의 아픈 가슴을 보듬어 주고 그저 그 밤 내내 곁에 있어주고 싶었을 뿐이었다. 자식을 하늘로 보낸 엄마의 마음을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말이 그 귀에 들리겠는가. 친구에게 달지 못한 위로의 마음이 못내 아쉽지만 약속이 어그러져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해 볼 뿐이다. 내일은 쪽파 김치를 담가야겠다.

나의 아름다운 시절

이해순(웅진문화학교 수강생)

국민학교 시절 아버지는 제재소를 하셨다. 제재소 마당에는 장대 같은 나무를 한가득 자동차에 싣고 와 풀어놓으면 앞집 뒷집 어른들이 낮으로 나무껍질을 베는 작업을 한 후, 땀감으로 쓰기 위해 제각기 실어가던 현장의 모습이 아득히 떠오른다. 제재소에는 항상 나무 자르는 기계 소리가 들렸다.

우리 집은 넓은 마당에 제재소를 옆에 끼고 생활공간인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고 한편에는 담배와 과자 사탕 등을 진열해 놓고 장사를 하는 가게 방도 있었다. 나는 엄마 모르게 살그머니 십리사탕을 빼먹던 아련한 추억이 깃든 집이었지만 얼마 후 이사를 가야 했다.

아버지는 사업을 방앗간으로 전환하시고 우리 집은 오관리 3구에서 오관리 6구로 이사했다. 흥성 국민학교를 다니던 나는 점심시간이 되면 동네 친구들과 달리기 경주라도 하듯이 점심을 먹겠다고 달려와서는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 앉아 급하게 먹는 등 마는 등 하고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아 쥐고는 다시 학교를 향해 땀박질해 수업종이 치기 전까지 숨가쁘게 교실로 다시 돌아가곤 했다.

국민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방앗간 집에서 살았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여러 곳의 돼지우리가 있었고 밭 끝자락에 키다리 미루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휘영청 늘어진 수양버들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들은 모두 내 어릴 적 정서를 키워주었다.

방앗간 집은 안방, 안방골방, 윗방, 윗방골방 사각형으로 4개의 방과 유리창 문이 있는 마루, 대청마루를 지나 커다란 하숙방과 화장실이 실내에 있었고 엄마는 인근 흥성여자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숙을 하며 바쁘게 살아가셨다.

뒤뜰엔 석류나무가 가을이 되면 빨갭게 익어 벌어졌다. 새콤달콤한 석류를 이빨처럼 생겼다면 깔깔거리면서 알갱이 몇 알을 먹으며 놀았고, 앞마당 꽃밭에 백합, 봉숭아, 채송화, 목단 꽃, 접시꽃이 피는 여름이면 꽃잎을 따서 코에 붙이고 놀았다. 가을엔 앞마당 꽃밭 가장자리에 감이 노랗게 익어 가고, 수확 때가 되면 방앗간 일꾼 아저씨가 감을 따셨다. 감나무 아래 가마니를 놓고 한 섬! 두 섬! 큰 소리로 감을 따셨는데 아무리 봐도 싫증이 안 나서 나는 종일 닢을 놓고 구경하곤 했다. 막걸리를 무던히도 좋아하셨던 일꾼 아저씨는 이야기꾼이었다. 달 밝은 밤에 동생과 의자에 앉아 옛날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대면 구성진 목소리로 어찌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지 모른다.

기억에 남는 일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우리 집엔 엄마가 키우던 선인장이 있었는데 봄이 되면 꽃을 피우곤 했다. 선인장 꽃은 보기 드물다고 했다. 그런데 선인장 꽃을 먹으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에 옆집 명숙이 엄마가 꽃을 따먹었는데 정말로 아들을 낳는 이변이 생겼다. 그 소문이 퍼져 호서양조장 주인집 아주머니도 역시 임신을 했고, 당시엔 엄마가 정성으로 키운 선인장 꽃을 먹고 아들을 낳았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 1960년대의 이야기다.

훗날 내가 칠순이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합심해 3박 4일 일정으로 엄마의 고향 방문을 효도 선물로 안겨 주었다. 그때 방앗간 집도 가 보았는데 그 자리엔 처음 보는 현대식 건물이 자리하고 있었다.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아름다운 어릴 적 추억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니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아프신 걸 알게 되었다. 그즈음 지인의 소개로 일명 돌팔이 의사를 소개받고 치료를 하시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결국 자리에 눕게 된 것이다. 병명은 치질이었는데 무지한 치료를 받게 된 걸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었다. 그 무서운 카바이드로 항문을 치료했다니, 친구의 아버지도 같은 치료를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고 돌팔이 의사는 책임도 없이 도망치듯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건 중학교 1학년, 수업시간이었다. 나는 울면서 책가방을 챙겨 조퇴를 하고 집에 도착하니 흰색 저고리 상복을 입혀주셨다. 그때의 나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무서웠고 슬픔이 가득했다. 그러나 큰언니는 아버지 시신 옆에 앉아 쉬지도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3일장이 지나고 상여가 나가는 날, 눈물이 나오지 않아 어른 등 뒤에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했던 철없던 내 모습이 선하다.

그 후 오빠는 영장이 나와 군대에 입대했고 둘째 언니는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여 집을 비우니 엄마는 혼자 사업을 하시게 되었다. 엄마는 초하룻날과 음력 보름에 음식을 차려 놓고 아버지를 기억하실 때면 큰 소리로 울음을 토해내시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혼자 사업하라 아이들 기르라 얼마나 외롭고 힘들셨을지 어른이 된 후에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구열이 높았던 엄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과외 수업인 피아노 레슨을 받았다. 바이엘 교본을 마치고, 체로니 30번, 하논, 소나티네를 배우며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우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즈음, 오빠가 제대를 했다.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빠가 내게 칭찬벽력 같은 말을 했다.

"셋째인 해순이는 고등학교를 중단하고 동생들을 배우게 하자."

오빠의 단호한 목소리에 나는 숨을 죽이고 듣고만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바보 같은 것이, 그때 왜 그래야 하느냐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싶다고 말대꾸 한 번을 못했는지, 왜 반항을 못했는지. 지금까지도 나의 미스터리다. "오빠 안 돼!"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다른 길을 찾았다. 독학을 했고, 검정고시도 보았고, 끝내는 방송통신대 교육과에 등록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꿈은 피아니스트다. 지금도 종종 피아노를 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보곤 한다.

결혼하고 제일 먼저 가보로 장만한 것도 피아노. 하지만 어느덧 나이를 먹고 보니 이제 마음속 깊이 간직한 피아니스트의 꿈이 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놓아야 할 때를 안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다른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샘솟는 것을 느낀다. 이전 누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포기할 내가 아니다.

방앗간집 셋째 딸, 해순아, 이제부터 무엇이든 마음속 꿈을 향해 달려가는 노년의 내가 되렴. 무언가를 이루기에 아직 인생은 길다.

내 인생의 굿 샷!

임해경(웅진문화학교 수강생)

드러누워 뭉그적거리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난다. 팬에 버터를 두르고 달걀을 알맞게 익힌다. 밥에 얹어 간장을 넣고 짹짹한 맛이 나게 비빔 후 별다른 반찬 없이 아침을 먹는다. 간단하게 화장하고 집을 나선다. 전철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 없는 긴 계단을 오른다. 4번 출구로 나와 모퉁이를 돌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50% 싸게 파는 제과점이 보인다. 얼음이 달그락거리는 시원한 커피를 빨대로 마시면서 10분 정도 직진 방향으로 언덕을 올라 골프연습장에 다다른다. 요즘 새로 생긴 나의 주말 아침 루틴이다. 얼마 만에 이런 변화를 나 스스로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나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결혼 후 이사를 두 번 했는데 아직도 처음 살던 동네 미용실에 다닌다. 나의 헤어스타일을 본 주변 사람들은 제발 미용실 좀 바꾸라고 성화다. 머리 모양이야 내 맘에 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그냥 다니던 데로 다니는 게 맘 편하다.

나는 뭐든 혼자 하는 것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혼자 여행하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식당에서 밥 먹기 등등. 혼자서는 뭘 해도 재미가 없을뿐더러 처량해 보일 것만 같아서다. 운전을 못 하던 시절,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후배가 조언한 적이 있다. 운전을 배워서 혼자 가끔 한적한 도로에서 드라이브하면 기분전환이 될 거라고 했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서 배울 엄두가 나지 않기도 했지만 역시나 혼자서 뭘 한다는 게 영 체질에 맞질 않아 귀에 담아두지 않았다. 모름지기 영화는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할 상대가 있어야 한다. 그게 내겐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혼자 영화를 본다는 건 생각조차 해 본 적이 없다. 대학원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 딱 한 번 김밥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은 적이 있다. 식당 밖은 물론이고 식당 안의 그 누구도 나를 눈여겨보지는커녕 무심코 올려다보는 일도 거의 없을 텐데 그렇게 신경이 쓰일 수가 없었다. 그 후로는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절대 혼자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좋아하지 않으니 잘하지도 못한다. 대학교 때 테니스 수업이 있었다. 께를 부리는 성격은 아니라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결국 방학 때 테니스 벽치기 '서머스쿨'을 다녀야 했다. 간신히 F 학점은 면하는 정도로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다. 언젠가 직장에서 족구 시합을 했을 때의 일이다. 팀별로 여자 선수를 1명씩 의무적으로 배정해서 경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팀엔 운동을 정말 잘하는 여자 후배가 있어서 상대 팀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경기가 맥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흐르자 보다 못한 우리 팀 주장이 후배를 나오라고 하더니 대타로 나를 지목했다. 친선경기니 상대 팀을 위해 살살 하자는 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팀의 전력을 약하게 하려는 선수교체라니, 어이없는 일이 아

날 수 없었다. 하지만 나보다 주장의 전술을 잘 이행할 수는 없었다. 나는 넘어오는 상대 팀의 공을 단 한 번도 받아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서브는 그럭저럭 잘 넣었다. 그 결과 우리 팀이 이기긴 했다. 나는 운동을 못 하는 걸 이렇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내가 최근에 주말 아침마다 낯선 동네로 가서 골프 레슨을, 그것도 혼자 받기 시작했다. 레슨비 40만 원을 내가 내지 않아도 된다.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 예전의 나라면 혼자, 그것도 싫어하는 운동을 할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다른 스포츠가 아닌 골프이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골프를 시작한 선배가 한 말이 생각났다.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

그 말을 들으면서 뭐 그렇게까지 재밌을까 했었다. 다만, 당시만 해도 골프는 있는 자들만이 즐길 수 있다는 고급 스포츠였던 터라 그 선배가 골프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러웠었다. 평소에 옷을 세련되게 입고 다니는 그 선배와 잘 어울리는 운동이라는 생각도 했다.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골프가 있다는 걸 안 순간, '내가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골프채를 잡아 보겠어'하는 마음이 생긴 건 그 선배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운동도 못 하고, 운동을 시작할 나이도 지났다는 생각에 잠시 망설였지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해 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처음 레슨을 받으러 가는 날, 아니나 다를까 걱정과 후회가 밀려왔다. 몸치에 무릎도 안 좋으면서 괜히 신청한 것 같았다. 낯선 곳에서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다. 골프 장갑 하나 달랑 들고 가서, 그곳에 있는 연습용 골프채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강사는 석 달 동안 골프채 잡는 법만 잘 익혀도 성공한 거라고 했다. 공을 치려고 하지 말고 빗자루질하듯 쓸어 치라고 했다. 내게 공은 치라고 있는 것이었다. 어떻게 공이 있는데 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강사는 처음에 한 번 와서 설명해 주고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골프채를 휘두른다.

같이 연습하는 사람 중에 부부가 있는데 괜히 내게 말을 걸었다. 네 번째 레슨을 받던 날은 많이 늘었다고 칭찬까지 했다. 나는 나한테 신경 쓰지 않고 칭찬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싫은 내색은 못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남편은 아내가 공을 치고 나면 '굿 샷' 하면서 격려도 하고, 안 되는 동작은 알려 주기도 하면서 혼자 연습하는 왕초보인 나의 입장을 지르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부부를 안 봐도 된다. 내가 레슨 시간을 착각해서 C3 타임에 가서 연습했었기 때문이다. 다행이다.

그다음 주 토요일엔 내가 신청한 C2 타임에 가서 연습했다. 골프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친절 한 것인지 이번에도 괜히 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나도 혼자 해보다 안 되면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주변머리는 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와서 자꾸 도와준다. 아니 왜 내가 연습하는 걸 보고 있냐고요. 부끄럽게.

이런 사소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다. 심지어 이젠 골프채에 공이 맞을 때 나는 경쾌한 소리가 좋기까지 하다. 맘 따로 몸 따로, 내 맘대로는 되지는 않지만 잘해 보려고 애쓰는 내가 좋다. 무엇보다 이 나이에 변화된 나를 보는 것이 새로워서 좋다. 골프에 반했

던 선배의 '이렇게 재밌는 세상'을 나도 경험하고 있다. 물론 마지막 레슨이 끝나고 나서도 내가 계속 골프를 배울 가능성은 현재 거의 제로에 가깝다. 필드에 나가보는 경험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일로 나이 때문에, 또는 처음 해 보는 일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다.

이번 골프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나는 끝내 '굿 샷'을 날리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언젠가 인생의 '굿 샷'을 날리는 날이 있다면, 그 시작은 아마도 이렇게 짜릿한 경험을 맛보는 '지금, 이 순간' 일 것이다.

조각반 친구 M

최금화(응진문화학교 수강생)

어릴 적 나의 놀이는 언제나 그림이었다. 여느 아이들처럼 노란 보자기를 어깨에 두르고 돌 위에서 뛰어내리며 황금박쥐 놀이를 했던 기억이 가끔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외의 대부분의 시간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내 모습 일색이었다. 그럴 때의 내 표정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다 그림으로 옮겨 담겠다는 야무진 다짐과 부푼 기대감으로 한껏 달아올랐을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학급 임원을 맡으면서도 늘 미화부장을 겸하곤 했다. 교실을 꾸미고 그림을 그리는 일이 내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였다.

중학교에 들어가 처음 미술반 교실에 발을 디뎠을 때, 내 안의 꿈은 더 선명해졌다.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모여든 그 공간에서 느끼던 묘한 흥분과 자부심은 나를 항상 고무시켰다. 당시 미술반 지도를 맡은 여선생님은 수려한 외모와 탁월한 실력을 갖춘 분으로 미래의 예술가 지망생들의 우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나에게 선생님은 완벽한 예술가의 초상,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녀가 H대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H대는 내 꿈을 향해 나아갈 막연하지만 분명한 하나의 좌표가 되었다.

고등학교 때는 미술반과 별도로 조각반이 있었다. 맨 처음 한 작업은 굳은 흙덩이를 망치로 부수고, 물에 개어 점토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고된 노동이었다. 특히 겨울에는 흙이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게 얼어붙어 쉽게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더 고되었다. 힘이 달린 여자 아이들에겐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탓에 조각반 인원은 열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나는 M이라는 친구와 꽤 가깝게 지냈다. 같은 꿈을 꾸다는 이유만으로 선의의 경쟁자이자 응원자로서 힘든 과정을 함께 한 셈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흙이라는 재료를 준비하는 그 고되고 번거로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손끝으로 형태를 세워 올리는 입체라는 작업세계의 매력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언젠가 조각가가 될 것임을 그때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당시 조각반 담당 선생님은 한국 근대조각의 거장이자 인간의 내면을 고요하게 담아낸 흙조각으로 잘 알려진 조각가 권진규 선생님의 제자였다. 선생님은 흙으로 인체를 형상화하는 모델링 작업에 특히 뛰어나셨다. 사모님 역시 둘 조각가였고, 두 분은 H대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내게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내가 진학할 대학은 확실하게 정해졌다.

예체능을 전공하려는 입시생의 길은 언제나 험난했다. 남들이 수학과 영어에 주력할 때, 나와 같은 미술 분야 지망생들은 화실에서 밤을 새워 그림 작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학교로 돌아와서 다시 교과서를 펼쳐야 했다. 미술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 대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부잣집 친구들은 화실과 개인 과외를 병행하면서 입시에 대비할 수 있었지만, 나

는 사실상 내 뜻을 한 번도 지지해 준 적이 없는 아버지의 완고한 반대로 과외수업은커녕, 화실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다. 그나마 예비고사 이후 두 달 남짓 미술학원을 다니며 입시미술을 배울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런데 입시전형이 가까워지면서 내가 지망한 H대가 순수미술 계열이기 때문에 조소시험이 아닌 수채화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나와 같은 꿈을 꾸던 조각반의 다른 친구들 중 누구도 H대를 지망하지 않았다. 조각을 준비해 온 나로서도 큰 타격이었지만, 나는 H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H대를 포기하는 일은 내 꿈을 포기하는 일과 같았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그려본 적 없는 수채화였지만, 전국에서 모여든 그림 교수들 사이에서 나는 그저 준비한 대로 성실하게, 물감으로 데생을 하듯 그렸다. 기교라곤 하나 없는 정직한 그림이었다고 생각된다. 어찌면 그 꾸밈없는 담백함이 교수의 눈길을 끌었는지도 모른다. 기적처럼 나는 H대에 합격했다. M은 E대에 합격했다. 그녀는 "누구는 수채화 네 장만 그려보고 H대에 들어갔다"고 주변에 소문을 퍼뜨리며 유난히 격하게 나를 추켜세우는 말로 축하를 해주었다.

대학 생활은 정신없이 지나갔고, 나는 유학을 준비하느라 늘 바빴다.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고, 장학금도 놓칠 수 없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학창 시절의 추억 같은 건 내겐 사치에 가까웠다.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간다는 목표밖에 없었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에 만족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마침내 나는 이탈리아의 한 중북부 도시에 머물면서 꿈에 그리던 조각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새벽부터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학교 선배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 이번에 결혼해서 이탈리아로 유학 갈 건데, 신부가 내가 아는 사람이야."

그 신부는 다름 아닌 M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둘은 부부가 되어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이탈리아에 막 도착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머물 집을 구해야 하고, 체류 허가증도 발급받아야 했다. 무거운 공구와 재료들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조각가들에겐 자동차도 필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언어다. 이탈리아어에 서툰 이방인에게는 은행 업무에서부터 병원 진료, 특히 경찰국에서 체류허가증을 발급받는 일부터가 난관이었다. 통역해줄 사람이 절실하다. M과 그녀의 남편인 선배도 예외는 아니었다. 두 신혼부부는 새로운 땅에서 자리를 잡는 일이 녹록지 않음을 금세 깨달았다. 그들은 내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다. 나는 내 일정만 소화하기도 하루하루가 늘 빠듯했지만 그들을 도와주기로 했다. 나는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시간을 내어 통역을 해주었고, 관공서에 함께 드나들며 서류를 처리해 주었다. 아직 이탈리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그들 이름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을 때도, 결국 내 이름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었다. 타국에 체류를 위해 막 들어온 이들이 겪는 혼란과 답답함을 너무 잘 알았기에 나는 내 바쁜 일정에 많은 방해로 받으면서도 기꺼이 그들을 돕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다.

M은 내게 밥 먹으러 자기 집으로 오라며 자주 연락을 해왔다. 중요한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일정이 바빴던 탓에 여러 차례 거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M이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남편과 자주 싸우는데, 네가 오면 그나마 싸움이 멈추거든. 그러니 네가 와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

어주면 고맙겠어."

나는 남의 사생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격이었지만, 새신부가 친정식구도 없이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낯선 나라에 와서 절실하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라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시절 카라라국 립미술원에는 학교 식당이 없었다. 대신 학생들은 식권을 구입해 인근 레스토랑 몇 곳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개발도상국으로 등록되어 있던 한국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저렴한 가격이 적용되어, 단돈 천리라(약 600원)로도 풍성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스파게티, 고기나 생선 요리, 감자나 샐러드, 갓 구운 빵, 후식 과일까지 갖춘 정식이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된 레스토랑에서 맛보는 훌륭한 식단이었다. 나에게서는 이런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맛있고,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되었다. 그러나 M의 간절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나는 내 편리함을 접고 그들의 식탁에 함께 앉았다. 그것이 그들에게 잠시나마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내 하루의 한두 시간쯤을 내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M은 원래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이 강해 타인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성격이었다.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납게 맞서며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기질이 있다는 걸 3년 동안 같은 조각반 활동을 하면서 익히 알고는 있었다. 선배인 남편은 그런 M의 성격이 대부분의 부부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고 훗날 내게 털어놓았다. 그렇게 싸움이 잦은 집안 공기를 잠시나마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는 M의 부탁을 몇 번 더 들어주었다. 하지만 전시와 외국 일정이 점점 많아지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배가 재혼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 후로는 M을 만나지 못했다. 대신 다른 지인들 편에 들려온 말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다. M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었다. 이탈리아 체류 시절 내가 매일 M의 집에서 밥을 얻어먹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추문들까지, 하나같이 사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다. 나로서는 왜 M에 관해 그런 말이 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일단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카라라에 있는 어느 한인 교회에 갔다가 집사님인 학교 선배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M이 이혼하고 이탈리아에 남아 혼자 딸을 키우며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는 게 속상한 모양이다. 같은 조각반 친구 초이(내 별명)는 상도 타고 신문에도 나고 유명한 조각가가 되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비교되고 화가 난다고 하더라."

선배의 말과 여러 정황을 맞춰 보고 나서야 나는 M에 관한 소문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M이 고집이 세다는 것 외에도 경쟁심과 질투심 또한 매우 강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M이 퍼뜨린 사실무근의 험담과 소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후였다. 간혹 외국 여성작가들이 대표적인 여성 조각가로서 실력을 인정받았던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 거짓으로 음해할 때마다 나는 반드시 해명을 요구하고 사과를 받아내곤 했다. 그러나 M에게만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애처롭게 느껴졌다. '오죽했으면 내 험담을 하며 위안을 삼으려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연민이 앞섰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법이다. M의 험담 자체는 꽤 나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게 좋은 점도 있었다.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준 것이다. 나는 국제전시, 국제조각심포지엄 등 여러 모로 작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덕분에 내 주위에는 외국 작가들을 포함하여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M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함께 뒷담화를 즐기다가도 내 앞에선 슬슬 눈치를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거짓말임을 지적하며 "별 받을 짓"이라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다. M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녀의 거짓된 소문은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정성이 있는지, 누가 위선의 가면을 썼는지를 가려주었다. 시간이 더 지나서는 그 사건조차 내 마음속에서 잊혔다. 그 무렵, M 옆에서 험담을 거들던 이들이 하나둘 나를 찾아와서 사과하기 시작했다. "그때는 잘 몰라서 오해했어.", "죄송했어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라고 믿어왔거니와 내겐 이미 잊힌 일이라 그들의 사과에 크게 마음이 동하진 않았다. 그즈음 M과의 관계도 어차피 내겐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린 지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카라카에 함께 머물던 동료 조각가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M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대."

아직 자기 삶의 반도 안 살았을 것 같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니 누구라도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무덤덤했다. M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녀에 대해 애처로움을 느꼈던 나였다. 하지만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된 순간엔 분노도, 연민도 더 이상 생기지 않았다. '별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마저도 들지 않았다. 그저 '그랬구나' 하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아도 되나 싶을 정도의 담담한 마음뿐이었다.

M은 오랜동안 나를 음해하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미워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녀가 퍼뜨린 허위 사실을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대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내 삶에 집중했다. 만약 내가 그녀에게 준 별이 있다면 그건 아마 철저한 "무관심"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험담과 비방은 내 인생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고, 그녀 자신도 끝내 내 삶에 어떤 의미도 남기지 못한 채 떠났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역설적이게도 M은 주변 사람들을 보는 내 시야를 더 밝게 해 주고, 오직 내 삶에 집중하도록 해준, 어쩌면 감사해야 할 존재 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최근 들어 다시 M을 회고하게 된 이유이다.



사업참여소감

우리 아이들의 예절, 인성, 전통공예 교육을 위해 웅진군 7개 면을 누빈 찾아가는 예절교실 강사들

(사)한국생활문화진흥회 **백주원, 조숙희**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이 날씨를 알려주고 유튜브는 제가 좋아할 만한 영상을 보여 줍니다. 출근길에는 메신저로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챗봇에게 물어봅니다. 고민 상담도 이제 AI로 합니다.

우리 사회가 디지털로 급변하면서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만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디지털에 익숙한 요즘 많은 사람은 인사하는 방법과 이유를 잊은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학생들이 인사하는 것부터 어색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에서도 많은 학생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것은 변하지 않아, 예절을 더욱 형식적인 덕목으로만 생각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전통과 문화, 예절을 그저 스펙처럼 습득해야 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고민을 품고 있던 제게 웅진문화원의 <찾아가는 예절교실> 수업은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웅진군의 한 학교에서 첫 수업을 열었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업을 마친 뒤 한 학생이 수줍게 다가와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순간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자기를 위해 배를 타고 섬으로 직접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고마움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 고마움을 직접 표현한 짧은 한마디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고, 예절교육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와 칭찬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런 일상의 경험이 곧 예절 수업이며 오늘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배움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디지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가치입니다.

예절은 겉모습을 다듬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이자 공동체를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도 '사람다움'을 전하는 일은 결국 우리, 사람의 몫입니다. 제가 학생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예절교육 수업을 다니는 이유입니다.

웅진군의 초등학생들은 내년에는 또 얼마나 자라 있을까요. 매 학년 다른 예절 체험을 통해 한 뼘씩 자라는 아이들 곁에서 저 역시 한 걸음씩 배웁니다.

백주원 강사

"자다가도 별떡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다."

백석 시인의 마음처럼 '섬'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준비물을 가득 싣고 인천항여객터미널을 향한다. 여객터미널 안은 주민들의 일상과 관광객들의 설렘 그리고 군인 장병의 늠름함이 어우러져 다른 여객터미널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수업을 가는 강사라기 보다는 여행자 모드로, 호기심 어린 눈으로 터미널 안을 두리번거린다. 터미널이라는 공간은 부산항 속에 웬지 모를 설렘이 가득한 곳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덧 배를 탈 시간이다. 티켓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준비하고 준비물도 재확인하고 여객선에 몸을 싣는다. 웅진문화원 예절교육 강사 모드로 전환하고 방문할 섬들의 정보와 수업 내용들을 훑어본다. 웅진문화원은 자월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영흥도 등 옹진군에 속해 있는 섬들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한 문화적 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내가 원하는 섬들을 방문하여 작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함께 나누다니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배워서 나누자!'

초롱초롱 맑고 밝은 눈,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들. '오늘은 어떤 수업일까' 호기심으로 가득한 모습들에서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수 있구나'라는 행복함으로 마음을 나누고자 최선을 다해 시선 시선을 마주한다.

예절교육 수업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가족생활과 생명의 존중, 의식주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정서적 표현과 존중, 전통문화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절을 기본으로 문화적 가치의 전달을 목표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소통이 강사의 소양임을 잃지 않으려 한다. 주민들에 대한 존중과 어린 학생들과의 신뢰가 없는 지식 자체의 전달이라 하면 검색으로 가능한 시대가 아닌가.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하고 잠시 선한 영향력을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예절교육의 바탕일 것이다. 그래서 더 설렌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곳!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곳!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가고 싶은 웅진군의 섬, 섬, 섬. 아이들이 벌써 보고 싶다.

조속희 강사

문화원 책갈피



직원공감

우리 문화원은 초등학교 1학년

윤삼용(웅진문화원 사무국장)

한국지역문화원은 전국적으로 232개 문화원이 있다. 전국 최초 개원한 문화원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강화문화원이다. 1947년도에 문화원 전신인 강화문화관으로 개관하였다. 인천광역시에 최초가 있고 막내가 있는 것이다. 웅진문화원이 전국 232개 문화원 중 막내인 계룡문화원(2023년 개원)보다 5년 앞서 개원되었다. 지역문화원 중 끝에서 두 번째인 2018년도에 개원하였다. 이제 막 8년 차로 초등학생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웅진문화원이 인천광역시에서도 제일 많은 320명의 정회원이 활발히 활동하여 최우수문화원으로 지난해 선정되어 인천광역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웅진문화원의 비전과 목적

"오늘이 즐겁고 내일이 행복한 창조문화 실현"을 비전으로 웅진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계발, 연구, 조사 및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발굴 수집, 보존을 하며,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와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사회 활동 등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 문화의 구심점으로 지역민의 문화 진흥 활성화의 디딤돌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타 문화원에 비교하면 역사가 매우 짧고 원사 또한 열악하여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 개원 후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코로나19의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태동철 원장님이 취

임, 헌신하심으로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4대 핵심 과제에 17개 사업을 실시, 창조적 문화 실현

자체 역점 사업으로 양서 보급, 문화지 발간,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하였고 특히 새해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여 웅진군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며 한해를 힘차게 화합으로 출발하는 구심적의 역할을 다 하였다.

문화 예술 진흥사업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절 교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각 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회원들의 끼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장 마련을 위한 **제1회 웅진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하버뷰파크 호텔에서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여 각 지역의 동아리 회원들에 꿈과 목표를 심어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문화 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초, 중, 고등학생 전학생을 대상으로 심청 설화의 배경지인 백령도를 알리고 효의 올바른 실행을 위한 심청 효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를 매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자체 문화강사를 양성하여 기상악화 시에도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웅진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글쓰기 작가와 미술작가를 양성, 발표회와 전시회 등을 개최하였다. 특히 원거리 도서로 문화학교에 출강할 수 없는 5도서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슬기로운 문화생활 강좌를 도서를 순회 개최하여 형평성에도 기하였다.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그동안 사라져 가는 웅진군 전래 민요집을 발간하여 문체부장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 문화 유적지를 발굴하여 표지판을 세우는 등 문화 유산 보존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 홍보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다.

아울러 인구 소멸 지역으로 취약 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문화 활동과 봉사 활동을 실시하여 활력과 행복감을 드리기도 하였다.

특성화 사업 중 지난해에 처음으로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사업을 실시하였다. 향토역사지(誌)로 웅진군지가 있지만 각 7개 면에 대한 정립된 향토문화역사지가 그리 많지 않아 관련 자료를 문 의해 오는 외부 인사들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난해 북도면을 시작으로 지금 살아계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사라질 역사이야기 전통문화 이야기 지명이야기 등 지역의 의식주 등 문화 양식 전체를 엮어 편찬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북도면 편에 이어 금년에는 연평면 편을 편찬 중에 있다.

앞으로 7개 면의 향토문화 아카이브 사업을 총론이라 한다면 각론에서 문화 분야별 예를 들어 웅진군 지명 편, 웅진군 동요사, 웅진군 방언집 웅진군 성씨 등을 아카이브 하여 편찬할 계획이다.



우리 웅진군의 다양한 섬역사 문화 생활 이야기 등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후대에게 보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화된 문화원 독립원사, 독립공간 확보에 노력할 것이다.

문화란 삶을 담는 그릇이라 했다.

이러한 문화의 삶이 발전하고 꽃을 피우고, 지역 주민의 문화 생활 터전으로,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시설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 문화원 회원들께서 타 지역의 독립된 문화원의 원사나 시설 등을 보신 후 한결같이 우리 웅진문화원이 하루빨리 독립된 원사를 마련하여 회원들의 문화 공간으로의 전시실이나 강의실 공연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타문화원의 좋은 환경을 선망하시는 회원분들이 많다. 문화원 독립 원사 건립이나 독립된 공간으로의 원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다.

우리 웅진군은 도서지역으로 웅진문화원 사업 추진도 육지문화원보다 어렵다. 또한 교통편의 불

확실성으로 참여와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 그리하여 웅진문화원은 문화학교를 개설 운영하여 집합 강좌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원거리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현장 강좌나 현지 행사 등으로 구분하여 개최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

제1회 웅진문화예술인의 밤 행사를 지난해 개최하여 각 지역에서 각자가 활동하고 있던 동아리를 경연의 장으로, 축제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한해의 활동을 결산하고 자랑하고 시상으로 격려하고 있으며, 문화 예술인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다. 또한 저변을 확대와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회원에게 희망과 목표 의식을 심어주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행사이지만 더욱더 확대 운영할 것이다. 아울러 연 2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가족 문화탐방 사업도 이제는 회원이 배가되어 다수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횟수를 늘리거나 지역별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버스킹 공연 등 행사나 공연을 확대하여 문화원의 위상과 저변 확대를 기할 것이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웅진문화원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웅진문화원의 발전에 기여합시다.

배움이 피워낸 작은 꽃

- 옹진문화학교와 함께한 시간

서혜인(옹진문화원 대리)



옹진문화원에서 근무하며 제가 가장 애정을 갖는 사업이자, 회원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옹진문화학교'입니다. 매년 개강을 준비하며 강좌 주제를 기획하고 강사를 섭외하며 홍보와 운영까지 챙기다 보면 분주해 숨이 차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이 열리고 수강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 순간을 맞이하면 그간의 어려움은 어느새 잊히곤 합니다.



옹진문화학교의 가장 큰 매력은 '배움'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림을 배우며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꺼내는 분도 있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분도 있습니다. 강좌가 끝난 뒤 "이번 수업이 즐거웠다", "다음이 기대된다"는 소감을 들을 때마다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성장시키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담당자로서 저는 늘 '문화는 파도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물결이 차곡차곡 모여 큰 파도를 이루듯, 오진문화학교에서의 경험 또한 회원분들의 삶에 서서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것은 자신감이 되기도 하고, 생활의 활력이 되기도 하며, 이웃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정 변경이나 운영의 변수, 참여 인원의 기복으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수강생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수업이 있어 고맙다",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은 제가 걸어온 길을 지켜주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줍니다.

앞으로도 오진문화학교는 단순한 강좌를 넘어, 회원 누구나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문화학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한마디의 의견, 짧은 격려,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가 새로운 강좌를 만들고 더 많은 이웃에게 문화를 전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웅진문화학교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 온 꿈을 다시 꺼내는 기회가, 또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활력을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이면, 그 배움의 경험은 더 넓게 퍼져 웅진 곳곳에서 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웅진문화학교가 작은 배움의 순간들을 이어가며 더 큰 변화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곧 웅진문화학교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용진

벼가 익어가는 북도면



[사진제공] 웅진군청

연평도 가래칠기 해변



백령도 사자바위



[사진제공] 웅진군청

대청도 모래울 해변



아름다운 용진

[사진제공] 용진군청

덕적면 울도 검은머리물떼새



[사진제공] 웅진군청

자월면 승봉도 연꽃체험단지



[사진제공] 용진군청

영흥면 선재도 목섬 설경



[사진제공] 웅진군청

2025년 문화원 주요 사업

문화원 자체역점사업

신년인사회
《옹진문화》 제8호 발간
문화가족 문화유적 탐방
정서·소양 함양 양서 보급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문화예술진흥사업

옹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찾아가는 예절교실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제26회 심청'호'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옹진문화학교
찾아가는 생활 문화 강좌
섬마을 문화강사 양성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관
우리 섬애(愛) 버스킹
제52회 옹진군민의 날 기념 문화 행사

특성화사업

2025 옹진섬(연평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1. 문화원 자체역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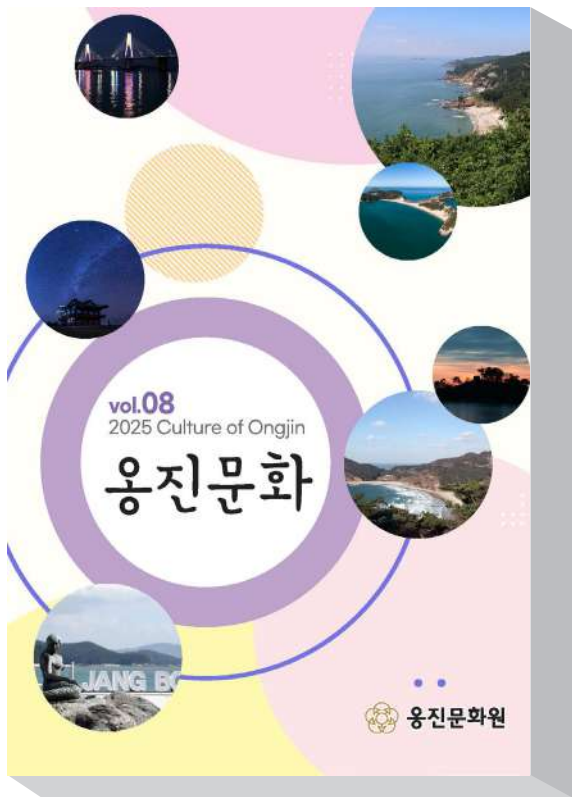
☞ 신년인사회

- ❖ 목 적 : 새해를 맞이해 화합과 협력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마련하여 희망을 전하고 웅진 사랑의 마음과 애향심을 고취
- ❖ 일 시 : 2025년 1월 8일
- ❖ 장 소 : 웅진군청 중회의실
- ❖ 참석인원 : 60여 명



☞ 《옹진문화》 제8호 발간

- ❖ 목 적 : 옹진군민의 문화 예술적 삶의 이야기와 작품, 지역 문화 예술 정보를 수록하여 주민들의 향토 문화 의식과 애향심 고취, 창작 활동을 위한 지면을 제공하여 인문학적 소양 및 가치관 확장의 공간 마련
- ❖ 기 간 : 1월 ~ 12월
- ❖ 추진사항
 - 4월 : 원고/작품 접수 시작
 - 8월 : 원고/작품 마감, 인쇄 업체 선정
 - 9월 : 원고 취합 및 교정 교열
 - 10월 : 편집회의 개최, 편집디자인
 - 12월 : 2025 《옹진문화》 제8호 발간 및 발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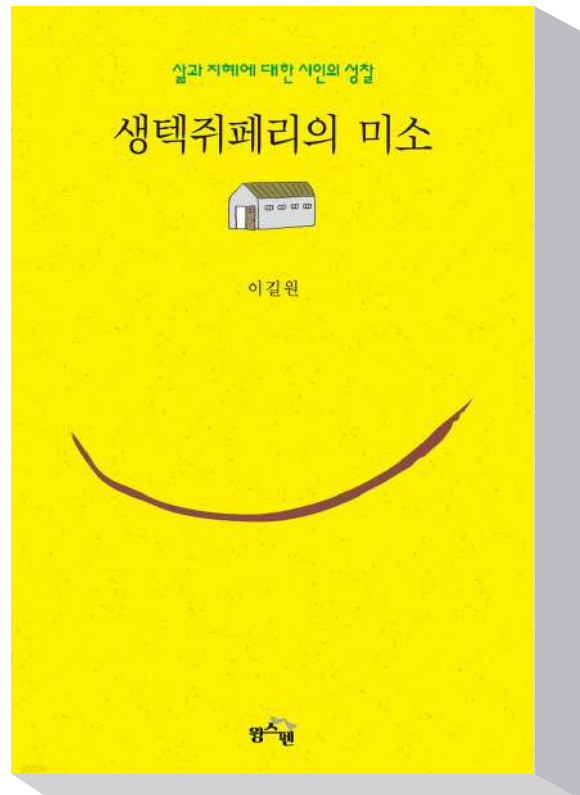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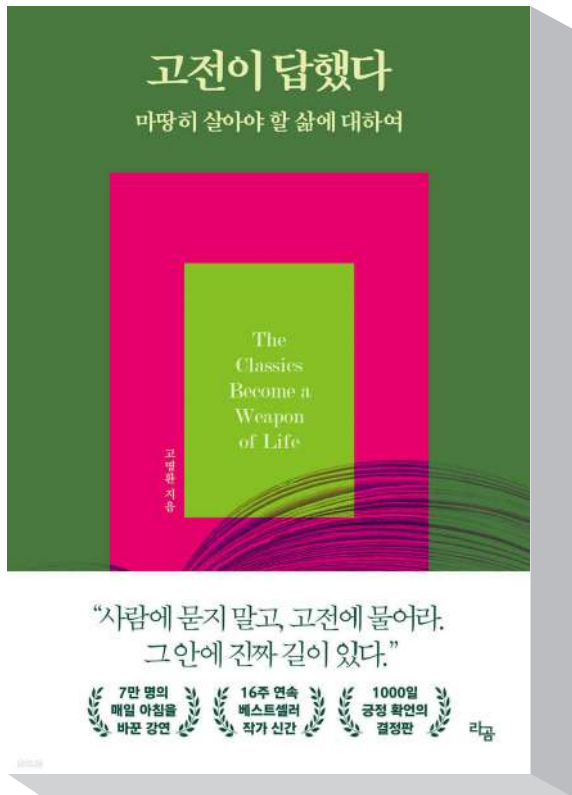
☞ 문화가족 문화유적탐방

- ❖ 목 적 : 관내 외 문화유적탐방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향토사 및 우리 지역 문화의 발굴 보존 전승에 기여
- ❖ 기 간 : 3월 ~ 11월
- ❖ 장 소 : 관내 북도면, 관외 강원도 영월군
- ❖ 추진사항
 - 상반기 : 영진군 북도면 일대, 2025. 4. 11.
수기해변, 옹암해변, 견어장해변, 말문고개, 작은멀곳 등을 탐방하면서 우리 고장에 대한 문화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짐
 - 하반기 : 강원도 영월군 일대, 2025. 10. 16. ~ 17.
한반도지형, 청령포, 영월장릉, 김삿갓문학관, 조선민화박물관 등을 탐방 하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지역문화의 발전 방향 모색



☰ 정서·소양 함양 양서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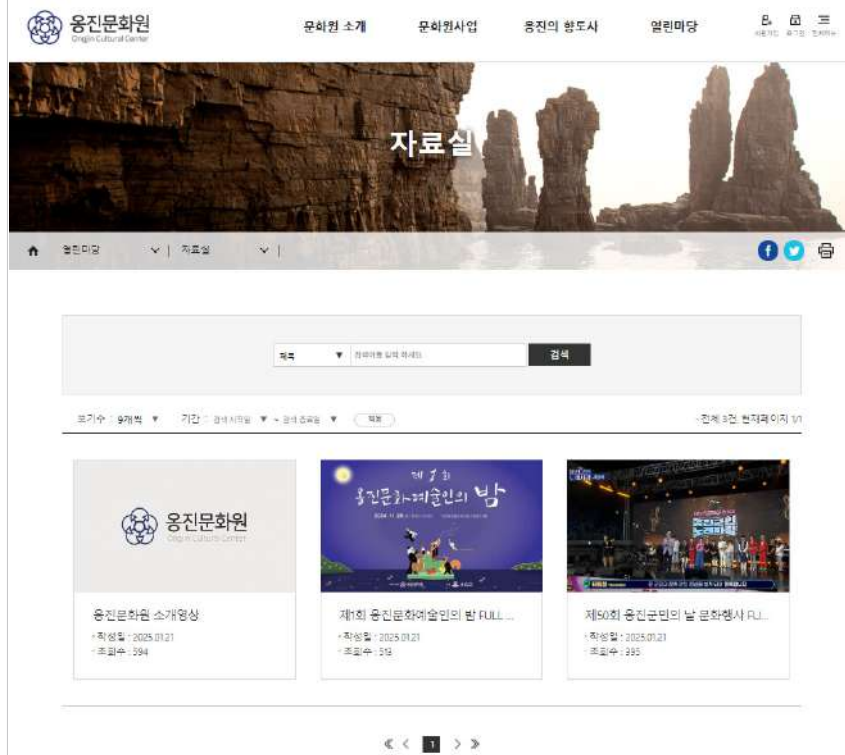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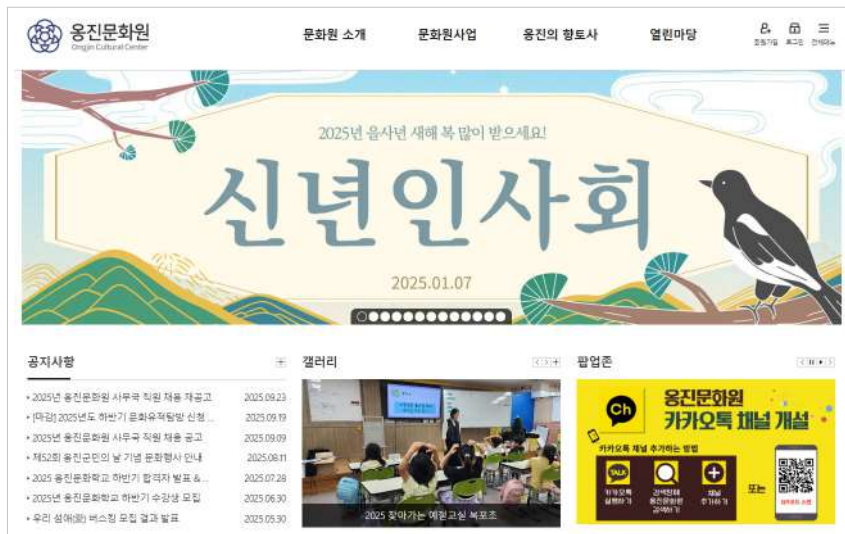
- ❖ 목 적 : 웅진문화원 회원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수 추천 도서 등 양서를 선정하여 상 하반기 연 2회 보급
- ❖ 기 간 : 3월, 8월
- ❖ 추진사항
 - 1차 양서보급 : 『고전이 답했다』(3월 우편 발송 보급)
 - 2차 양서보급 : 『생텍쥐페리의 미소』(8월 우편 발송 보급)



2025년 문화원 주요 사업

☞ 홈페이지 운영 유지보수

- ❖ 목적 : 방문자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며 콘텐츠 및 게시물 관리, 다양한 정보 제공
- ❖ 기간 : 1월 ~ 12월
- ❖ 추진사항
 -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유지



2. 문화예술진흥사업

☞ 용진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지원

- ❖ 목 적 : 용진군 내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용진군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기 간 : 4월 ~ 8월
- ❖ 추진사항 :
 - 4월 ~ 5월 : 동아리 모집 및 선정
 - 6월 : 참여 동아리 사전 간담회 개최
 - 6월 ~ 10월 : 개별 동아리 활동



☞ 찾아가는 예절교실

- ❖ 목 적 : 인성, 전통 예절, 전통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의 도덕
존중 배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 제공
- ❖ 기 간 : 4월 ~ 11월
- ❖ 추진사항
 - 4월 : 관내 초등학교 대상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 접수
 - 5월 : 인천 삼목초등학교장봉분교장
 - 6월 : 백령초등학교, 인천 공항초등학교신도분교장, 덕적초등학교
 - 7월 : 영흥초등학교
 - 8월 : 인천 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 9월 : 북포초등학교, 대청초등학교
 - 10월 : 연평초등학교, 인천 용현남초등학교자월분교장



3. 문화예술활성화사업

☞ 제26회 심청'효'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 ❖ 목 적 : 용진군 배경 설화 ‘심청전’의 주요 내용인 ‘효’ 사상의 함양을 위해 용진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실시와 캐릭터 제작 및 굿즈 제작을 통한 지역 내 자부심 고취
- ❖ 기 간 : 4월 ~ 11월
- ❖ 대 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 ❖ 추진사항
 - 4월 : 용진군 내 초·중·고등학교 홍보 협조 요청
 - 5월 : 제26회 심청'효'학생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실시
 - 6월 : 6월 16일 작품 심사
 - 12월 : 수상작 달력(2026년) 제작 및 발송



☞ 웅진문화학교

- ❖ 목 적 : 문화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강좌를 진행하여 차별화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
- ❖ 기 간 : 상반기(4월~5월), 하반기(8월~9월)
- ❖ 장 소 : 웅진문화원 강의실(르네상스홀)
- ❖ 대 상 : 관내 주민, 웅진문화원 회원
- ❖ 추진사항
 - 상반기 강좌
 - 일시 : 4월 ~ 5월
 - 강좌 : 진정한 나를 만나는 자전적 글쓰기(4회 차)
바다 갯벌 도예 교실(4회 차)
동시대 미술 작가의 길(8회 차)



- 하반기 강좌
 - 일시 : 8월 ~ 9월
 - 강좌 : 쓰담쓰담 목요 글방(8회 차)
동시대 미술 작가의 길(8회 차)
향 테라피(3회 차)
스테인드글라스-유리 공예(3회 차)



☞ 찾아가는 생활 문화 강좌

- ❖ 목 적 : 지역 특성상 체험하기 어려운 문화 강좌를 실시하여 균형적인 교육·취미·여가생활의 참여를 돕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문화 생활 활성화 도모
- ❖ 기 간 : 6월 ~ 7월
- ❖ 대 상 : 관내 주민, 용진문화원 회원
- ❖ 추진사항
 - 6월 12일 : 백령면 / 장소 : 백령면사무소 회의실
 - 6월 13일 : 대청면 / 장소 : 대청면사무소 회의실
 - 6월 19일 : 덕적면 / 장소 : 덕적면사무소 회의실
 - 7월 04일 : 자월면 / 장소 : 자월면사무소 회의실
 - 7월 18일 : 북도면 / 장소 : 북도면사무소 회의실
 - 7월 24일 : 연평면 / 장소 : 연평면사무소 회의실
 - 7월 25일 : 영흥면 / 장소 : 영흥면사무소 회의실



☞ 섬마을 문화강사 양성

- ❖ 목 적 : 지역에 특화된 문화 분야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반(동아리)을 운영·지원하여 전문 인력 양성
- ❖ 기 간 : 4월 ~ 11월
- ❖ 대 상 :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소집단
- ❖ 추진사항
 - 4월 : 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 대상 동아리 모집 공고 및 홍보
 - 5월 : 사업 대상 동아리 선정
 - 6월 ~ 11월 : 각 동아리별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취득



☞ 찾아가는 섬마을 영화관

- ❖ 목 적 : 문화 소외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적 불균형 해소 및 최신 인기 영화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 수준 향상
- ❖ 기 간 : 6월, 10월
- ❖ 대 상 : 덕적·연평면 주민
- ❖ 추진사항
 - 6월 19일 : 덕적면 종합운동장 <히트맨 2> 상영
 - 6월 20일 : 덕적면 서포 1리 경로당 <히트맨 2> 상영
 - 10월 30일 : 연평면 종합운동장 <하이파이브> 상영



☞ 우리 섬애(愛) 버스킹

- ❖ 목 적 : 지역 특성상 다양한 문화 공연을 경험하기 어려운 도서 지역에서 거리 공연(버스킹)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제공
- ❖ 기 간 : 4월 ~ 10월
- ❖ 대 상 : 관내 문화 예술 동아리
- ❖ 추진사항
 - 4월 ~ 5월 : 동아리 모집 및 선정
 - 6월 : 참여동아리 사전 간담회 개최
 - 7월 ~ 10월 : 각 면에서 거리 공연 진행



☞ 제52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 문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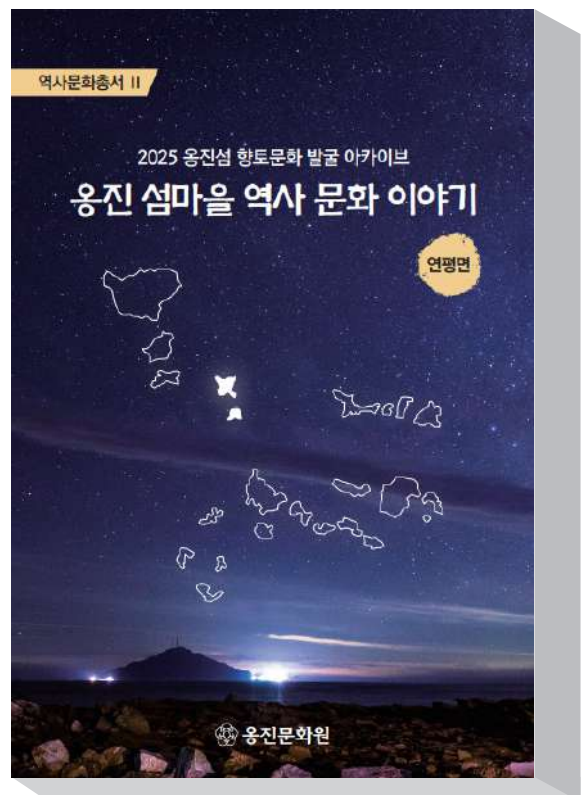
- ❖ 목 적 :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로 웅진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군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흥겨운 화합의 마당 제공
- ❖ 추진사항
 - 일 시 : 2025. 9. 12.
 - 장 소 : 인천남동체육관
 - 참여인원 : 약 3,000명
 - 내 용 : 노래자랑, 춤 자랑, 닦은꼴 자랑, 여자 팔씨름



4. 특성화사업

🏠 2025 웅진섬(연평면) 향토문화 발굴 아카이브

- ❖ 목적 : 연평면의 역사, 문화, 전통 등 인문 자연환경을 조사 기록하여 『웅진 섬마을 역사 문화 이야기』 책자 발간
- ❖ 기간 : 2월 ~ 11월
- ❖ 추진사항
 - 2월 : 추진 계획 수립
 - 3월 : 현지 사전 협의회 개최
 - 3월 ~ 4월 : 집필진 섭외 및 콘텐츠 구성
 - 4월 ~ 9월 : 원고 집필
 - 5월 : 제1차 자문회의 개최
 - 7월 : 현지 자문회의 개최 및 현지 조사 진행
 - 9월 : 인쇄 업체 선정
 - 10월 : 편찬 회의 개최, 원고 교정 교열, 편집 디자인
 - 11월 : 책자 인쇄 및 발송



제26회 심청'효'학생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입상작

글짓기 부문

효
우리 동네 당후길의 따뜻한 이웃들
심청전이 들려주는 효의 불빛
효도는 마음에서부터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소중함
할아버지
부모님이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
부모님의 사랑 편지
내가 전하는 효도
공감으로 실천하는 효
효,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
작은 행동 큰 행복
어버이날의 카네이션

박소원
여인서
엄상윤
여윤슬
김서윤
노윤서
박시은
한서현
조윤희
김예지
김재윤
김륜아
최건우

그리기 부문

이진우, 맹혜진, 김리혜, 박시완
김시현, 이서형, 어예은, 한자임
최세은, 황금물결, 김도윤, 장여은
조수빈, 김교빈, 정예준

[글짓기 부문 - 초등 저학년부]

효



최우수상 박소원(북포초등학교 3학년)

저는 효라고 하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효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잘해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효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목을 효라고 적었습니다. 심청이는 효를 부모님에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심청이처럼 부모님에게 효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하고 싶었지만 너무 잠이 와서 내일부터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효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청이는 부모님에게 효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졌어요. 꼭 부모님에게만 효를 해야 되냐고 심청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심청이는 어떻게 대답할까?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다른 분에게도 효를 실천해 보기로 다짐하였다.

만약 제가 다른 분에게도 효를 한다면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 그리고 어떤 느낌이 날까? 궁금합니다. 저도 어른이 되면 효를 한 번 받아보고 싶다. 저는 누구에게 받을까요? 짐작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모가 돼서 받을까요? 의사가 돼서 받을까요? 선생님이 돼서 받을까요? 스케이팅 선수가 돼서 받을까요? 요리사가 돼서 받을까요? 경찰관이 돼서 받을까요? 소방관이 돼서 받을까요? 아이돌이 돼서 받을까요? 궁금합니다. 꼭 어른만 효를 받나요? 궁금합니다. 혹시나 아이들도 효를 받을 수 있나요.



[글짓기 부문 - 초등 고학년부]

우리 동네 당후길의 따뜻한 이웃들



최우수상 여인서(북포초등학교 6학년)

나는 백령도 당후길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 당후길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길이다. 작지만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는 곳이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동네 어른들이 모두 착하고 따뜻하다는 것이다.

우리 가족이랑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어른들은 네 분이다. 첫 번째는 동네 식당을 하시는 고모, 고모부. 진짜 고모는 아니지만 오래 알고 지내서 우리 가족 모두 그냥 그렇게 부른다. 고모는 항상 웃으며 반겨주시고 가끔 엄마가 꾸중하실 때 내 편을 들어주시고, 맛있는 밥도 자주 차려주신다. 농사가 바쁘실 땐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서로 의지하는 방법인 것 같다.

두 번째는 엄마 사무실 아래층에 사시는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다. 혼자 사시는데, 집 위 텃밭에서 키운 싱싱한 작물을 수확하실 때마다 봉지에 담아 사무실 계단에 올려두신다. 그러면 엄마도 지지않고, 맛있는 반찬도 해드리고, 영양제도 사다 드린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면 엄마는 할머니가 넘어지실까 새벽부터 할머니 집 앞 눈을 쓸어주시곤 한다. 물론 나도 함께 치운다.

마지막은 골목 끝 편의점 사장님이시다. 예전에 내가 다니던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편의점 사장님이시다. 학교 끝나고 들르면 "우리 인서 왔네~"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가끔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주신다. 그럴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부모님께서도 선생님이 어려워하시는 폰이나 컴퓨터로 하는 일을 자주 도와주신다.

이분들과 우리 가족은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서로 돕는다. 이렇게 동네 어른들과 지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어른을 공경한다는 건 그냥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도움이 필요하실 때 내가 먼저 나서는 거라는 것도 배웠다.

옛날에는 온 동네가 한 가족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딱 그런 것 같다. 백령도 밖의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부러워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이다. 나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한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글짓기 부문 - 초등 고학년부]

심청전이 들려주는 효의 불빛



우수상 엄상윤(백령초등학교 6학년)

찬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칠 때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두려움 대신 사랑을 품고 인당수로 뛰어 들었다. 그녀는 곧 가라앉았지만 심청이의 효심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졌다. 심청이는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였다. 사람들은 아직까지 심청이를 기억한다.

심청이는 그저 효녀가 아니라 효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는 큰 불빛이 되었다. 나도 그 큰 불빛을 따라가는 작은 불빛이 되고 싶다. 나도 내 마음속의 인당수를 맞이했을 때 물러서지 않고 사랑(효)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아직 그만한 용기는 없다. 하지만 엄마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실 때 "다녀오셨어요?"하고 작은 인사라도 건네드리다면 그것이 나의 작은 효처럼 작지만 꺼지지 않는 큰 불꽃이 되어 나와 우리 가족을 환하게 밝힐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부모님은 항상 심청이가 빠졌던 깊고 어두운 인당수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앞길을 밝혀주시는 등대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그 등대 옆에 작은 불꽃이 되어 부모님의 어깨에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효'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효'라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때때로 망각하고, 무시한다.

우리는 모두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효'를 행해야 한다는 걸 가장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효'를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빠진 것처럼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효는 그 리 거창하지 않은 우리의 작은 마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효'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루라도 더 빨리, 정말 사소한, 정말 작은 인사라도 한다면 몇 년 뒤에는 심청이가 '효'라는 불빛 하나로 차갑고 거센 파도를 헤쳐 나간 것처럼 우리도 몇 년, 몇십 년 뒤에는 우리를 환하게 밝히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작지만 큰 불빛, 가장 밝은 불빛이자 우리의 효이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모님의 자식이자, 꾸준히 효를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우리 부모님의 심청이가 될 수 있다. 아주 옛날에 심청이만큼은 아니어도,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께 사랑해요!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이다. 우리도 심청이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밝혀주는 작지만 밝은 불빛이 되자.

[글짓기 부문 - 초등 고학년부]

효도는 마음에서부터



장려상 여운슬(북포초등학교 4학년)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효도 이야기는 너무 크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효도는 그런 큰 희생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도와드리는 작은 행동에서도 충분히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나는 평소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자주 느낀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학교에 늦지 않도록 깨워 주신다. 가끔 피곤해 보이실 때도 있지만 항상 자녀를 먼저 챙겨 주신다. 그래서 엄마가 집에 들어오실 때 신발을 꺼내드린 적이 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엄마 신발 여기 있어요!" 하며 꺼내 드리니 엄마가 고맙다며 웃으셨다. 그 미소가 참 따듯하다고 느꼈다. 그 순간, '효도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도 시작될 수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또 아빠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시면 피곤해 보이실 때가 많다. 그래서 아빠에게 안마를 해드린다. "아빠, 여기 뭉친데 없어요?"하며 어깨와 등을 눌러드리면 아빠는 "우리 딸 손은 정말 약손이구나"하며 웃으신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열심히 자주 해드리고 싶다.

이런 일들은 아주 간단하고 짧은 시간이 걸리지만 부모님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것을 정말 좋아하신다.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 방 청소도 스스로 하고 숙제도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할 것이다.

심청이는 아버지를 위해 목숨까지 바쳤지만 그런 큰일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효도는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더 많이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

[글짓기 부문 - 초등 고학년부]

뒤늦게 알게 된 가족의 소중함



장려상 김서윤(연평초등학교 5학년)

실과 시간에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든 작품이었다. 이 영화를 통해 나는,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야기의 중심은 성공한 비즈니스맨 료타와 그의 아내 미도리, 그리고 아들로 알고 있던 케이타를 둘러싼 갈등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케이타는 병원의 실수로 바뀐 아이였고, 친아들은 다른 가족인 사이키 부부의 품에서 자라고 있었다. 사이키는 료타와 달리 자주 아이들과 놀아주며 감정을 함께 나누는 다정한 아버지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료타가 케이타에게 "6년간은 아빠였어"라고 말하며 서로를 껴안는 장면이었다. 이 장면을 통해 료타가 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는 차갑고 완벽함만을 추구하던 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으로 아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갔다.

또한, 아내 미도리가 "나는 그 말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라고 말한 장면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남편에게 상처받은 그녀의 말은, 가족 사이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만약 내가 료타였다면, 미도리의 마음에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주었을 것이다. 이 장면들을 보며 나도 모르게 부모님과 일이 떠올랐다. 나 역시 엄마와 아빠에게 짜증을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말과 행동들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꼭 엄마, 아빠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이 영화를 통해 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다. 가족은 단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고, 힘이 되어주며, 따뜻하게 안아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 어느 날 내 생일을 맞아 가족끼리 외식을 갔는데, 나는 입맛이 없어 거의 먹지 않았다. 식당을 나올 때 엄마가 내가 많이 먹지 못했다고 속상해하셨다. 그때 나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처럼 가족은 늘 내 곁에서 조용히 나를 응원하고 지켜봐 주는 존재다. 앞으로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 또한 그 마음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글짓기 부문 - 중등부]

할아버지



최우수상 노윤서(대청중학교 3학년)

오늘도 비가 내린다. 며칠 전에도 비가 이렇게 내렸다. 나는 그날, 혼자 할아버지를 보러 갔다. 아무도 없이, 나 하나뿐이었다.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비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할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것처럼 조용하고, 아무 말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다. 할아버지는 정말 자상하셨다. 내가 어릴 때 잘못을 해도 화를 내기보단 "괜찮아, 다음엔 잘하면 되지" 하시며 웃어주셨다. 그 웃음이 지금도 생각난다.

이제는 목소리도, 얼굴도, 웃음도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지만 그날, 그 빗속에서 분명히 느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따뜻했던 손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글짓기 부문 - 중등부]

부모님이 웃으면 세상이 웃는다



우수상 박시은(대청중학교 1학년)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학교가 늦게 끝나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에게 편지와 선물을 드려야 했다. 그렇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다. 부모님은 나를 잘 키워주셨는데 정작 나는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 우리 부모님은 늦게까지 일하셔서 늦은 밤까지는 대부분 나 혼자 집에 있다. 11시까지는 느긋하게 준비해도 될 것 같다. 나는 부모님에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나는 처음이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곧 부모님이 집에 오실 시간이 되었다. 현관에서는 도어록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이 되었다. 혹시라도 내가 준비한 게 별로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떡하지?라는 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모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 부모님이 불을 키신 것과 동시에 케이크와 편지를 들고 방에서 나왔다. 부모님은 걱정과 다르게 생각보다도 더 좋아해 주셨다. 부모님이 환하게 웃으신다. 부모님이 웃으니 나도 덩달아 웃음이 났다.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해드려서 더 감동받으신 것 같았다. 부모님과 얘기를 나누며 케이크도 먹고 부모님은 내가 쓴 편지도 읽어보셨다. 부모님은 내가 쓴 편지를 읽어보시고 눈물을 터뜨리셨다. 나는 웃으며 왜 우냐고 울지 말라고 했다. 부모님은 그런 나를 쳐다보시고 품 안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었다.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에 나는 눈물이 나오려 했다. 나는 오늘이 행복한 날만큼이라도 울지 말고 웃으며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야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부모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 등을 토닥여주셨다.


부모님이 직접 말하시진 않으셨지만 나의 등을 토닥여주실 때 알았다. 부모님은 내가 다 큰 성인이라도 언제나 나에게 와 줄 것이라는 걸... 나는 이 순간 나 자신이 미웠다. 나는 항상 이렇게 해주지도 못하고 항상 받기만했는데 부모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셨다는 걸 나는 결국 흐르려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부모님은 그런 나를 더 세게 안아주셨다. 나는 말했다. "고마워" 라고... 부모님도 내가 한 말을 들으시곤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그런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앞으로는 부모님에게 선물도 더 많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와 부모님은 1시까지 얘기를 하며 울다가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자기 전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행복하게 잠에 들었다. 지금 당장은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모두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내 마음이 너무 가볍고 행복했다. 나는 느꼈다. 부모님이 웃으시면 세상도 나도 같이 웃고 부모님이 우시면 세상도 나도 같이 운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앞으로 더 노력할 거다. 세상도, 나도, 부모님도 웃을 수 있도록 말이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의 인생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은 없게끔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 해 볼거다. 부모님이 웃으시면 세상은 더욱 더 환하게 웃는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는 더 많이 웃게 해 드릴 거다.

[글짓기 부문 - 중등부]

부모님의 사랑 편지

 장려상 한서현(대청중학교 3학년)

안녕, 엄마 아빠 나 서현이야. 내가 엄마 아빠께 효도하려고 편지를 쓸 거야. 일단 첫 번째는 학교 전학 가기 전에 난 친구가 없었고, 시험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슬프고 짜증 났는데 내 방 문을 똑똑 하고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여니 엄마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고 안아 줬잖아. 나는 오히려 살짝 눈물이 나왔던 게 더 많이 평평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울었어. 하지만 난 그래도 우리 엄마가 한 번 위로를 한 것도 오히려 고마웠어. 내가 진짜로 진지하게 효도할게.

두 번째, 내가 한참 소심했을 때 애들한테 다가가서 얘기하고 싶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한참 우울했어. 근데 아빠가 내 방으로 들어와서 고민을 해결해 줬어. 그래서 현재는 잘 행복하게 애들이랑 웃고 떠들고 놀고 있어. 난 아빠 덕분에 고민을 해결해서 진짜 고마워. 소나기가 내려 어쩔 줄 모르고 있었을 때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오고 나를 데려와줬잖아. 아빠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에 차 타고 날 데리러 왔잖아. 너무 고마웠어.

엄마 아빠 내가 지금은 빨리 효도를 못하지만 마음속도 그렇고 항상 효도할게. 엄마 아빠 고맙고, 사랑해!



[글짓기 부문 - 중등부]

내가 전하는 효도



장려상 조윤희(대청중학교 3학년)

내가 해본 효도는 부모님이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파스를 붙여드린 적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하는 감사 편지도 쓰고 부모님 생신을 절대 안 까먹고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다. 좋아하셨다.

친구들과의 약속을 빼고 아빠와 영화를 보면서 아빠와의 사이가 더 돈독해지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요즘엔 예전보다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 그런 시간을 보내기는 힘들었는데 다시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내 기준에서 더 많고 다른 효도들을 해야겠다. 학교 숙제나 집안일을 미리미리해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족 식사나 설거지 등등 도와드려야겠다.

효란 부모님께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많은 희생과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 일들에 보답하기 위해 나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작은 일이라도 돕고 배려를 하는 것이 효라고 생각합니다.



[글짓기 부문 - 고등부]

공감으로 실천하는 효



최우수상 김예지(대청고등학교 3학년)

예로부터 효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소중한 가치로 여겨졌다. 심청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향덕이는 아픈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허벅지살을 베어드렸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효의 진정한 의미는 희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이런 희생이 진정한 효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효의 진정한 의미가 옛 조상들이 생각한 것처럼 자신의 고통이나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면, 너무 극단적이고 무거운 방식일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효의 방식이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효의 의미는 부모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태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등등 이러한 사소하고 작은 실천들이 요즘 시대에 더 필요한 효의 모습일 수 있다. 물론 심청의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서 감동을 주었고, 진심에서 실천한 효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부모님 자식의 희생을 바라기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할 것이다. 이러한 삶 속에서 자식과 부모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효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오늘날의 효의 진정한 의미는 거창한 희생보다는 부모의 삶에 공감하고 세대 차이를 극복해 나가며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옛 조상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효의 방식인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현대적인 효의 의미를 생각해서 효를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효의 모습이 만들어질 것이다.

[글짓기 부문 - 고등부]

효,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수상 김재윤(대청고등학교 2학년)

제가 생각하는 효란, 작지만 끊임없이 가족에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끊임없이 표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숭고하고 멋진 일로 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동화나 이야기에도 이러한 가치관이 잘 반영되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대가로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효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생각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표현을 더 자주,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표현이라도 진심이 담겼다면, 그것은 충분히 '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당장, 작은 말 한마디라도 부모님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글짓기 부문 - 고등부]

작은 행동 큰 행복



장려상 김륜아(대청고등학교 1학년)

가족이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인 것 같다. 왜냐하면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기 때문이다. 효의 대한 나의 행동을 생각해 봤는데 나는 엄마가 바쁘실 때 설거지나 건조기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다. 처음에 부탁을 들었을 때는 귀찮고 왜 내가 해야 하나 싶었는데 하고 나니까 일을 하고 온 엄마의 일이 줄어드는 걸 알게 되었다. 엄마의 쉬는 시간을 위해서 엄마의 심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잘하는 중이다.

그리고 친할머니의 힘듦을 덜어드리기 위해 밭도 갈아드리고 김장시기 때는 무도 뽑아드렸던 일도 있었다.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 엄마와 할머니가 안 계시면 밥도 차려주고 한다. 나의 이런 노력을 엄마와 아빠, 할머니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알려드릴 거다. 다음은 외할머니가 새벽마다 비닐하우스를 닫으러 다니시는데 혼자 다니시는게 걱정이 돼서 같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다. 어릴 땐 같이 자주 가드렸는데 지금은 고등학생이다 보니 외할머니에게 안부 전화도 못 드려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인천을 나가면 냉동 음식을 시켜서 아침 배를 탈 때 가지고 들어가는 날이 많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서 예민하고 들기 싫은 감정이 드는데 내가 이 순간만 참으면 우리 가족이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고 간다. 나는 평소에 효에 대한 행동을 안 하고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글을 쓰는 계기로 떠올려 보니까 사소한 행동으로도 도움과 행복이 되는 것을 깨달았다.



[글짓기 부문 - 고등부]

어버이날의 카네이션



장려상 최건우(대청고등학교 2학년)

어버이날 하면 아직도 선명히 떠오르는 날이 있다. 2015년 5월 8일 내가 8살 때의 일이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2015년 5월 7일에 마침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싸우셨다. 두 분이 싸우신 이유는 당시엔 잘 몰랐지만 5월 9일 내 생일날 내가 가고 싶다고 했던 놀이공원에 갈지 말지 때문이었다. 더 정확히는 결국 돈 문제 때문이었지만, 그 뒤에 학교 수업으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었다.

다음날 5월 8일. 어버이날에 아침에 난 두 분께 서프라이즈로 카네이션을 드리며 싸우지 말라고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카네이션을 받은 두 분의 표정은 지금까지 선명하게 기억할 정도로 값지고 맑은 웃음이었다.

그리고 난 내 생일날 내가 가고 싶었던 놀이공원을 두 분과 함께 갔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그리 특별하지 않은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 뒤 얼마 안 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지금까지도 그날 본 그 웃음이 이때까지 내가 본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환한 웃음이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오면 이따금 2015년 5월 8일의 어버이날에 준 카네이션이 생각난다. 결국 카네이션 없이 싸우지 말라고 항상 사랑한다고만 말했어도 두 분이 화해하셨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생일 근처 그리고 그다음 날이 어버이날이라는 우연과 카네이션이라는 용기가 없었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대로 계속 싸워 화해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웃음을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버이날의 카네이션에겐 감사할 뿐이다.

언젠가 다시 한번 어버이날의 카네이션으로 그런 날이 찾아오길 바란다.



[그리기 부문 - 초등학교 저학년부]



최우수 이진우(대청초)



우수 맹혜진(백령초)



장려 김리혜(영흥초)



장려 박시완(백령초)

[그리기 부문 - 초등학교 고학년부]



☆ 최우수 김시현(영흥초)



☆ 우수 이서형(자월분교)



☆ 장려 어예은(덕적초)



☆ 장려 한자임(영흥초)

[그리기 부문 - 중등부]



최우수 최세은(대청중)



장려 김도윤(대청중)



우수 황금물결(대청중)



장려 장여은(대청중)

[그리기 부문 - 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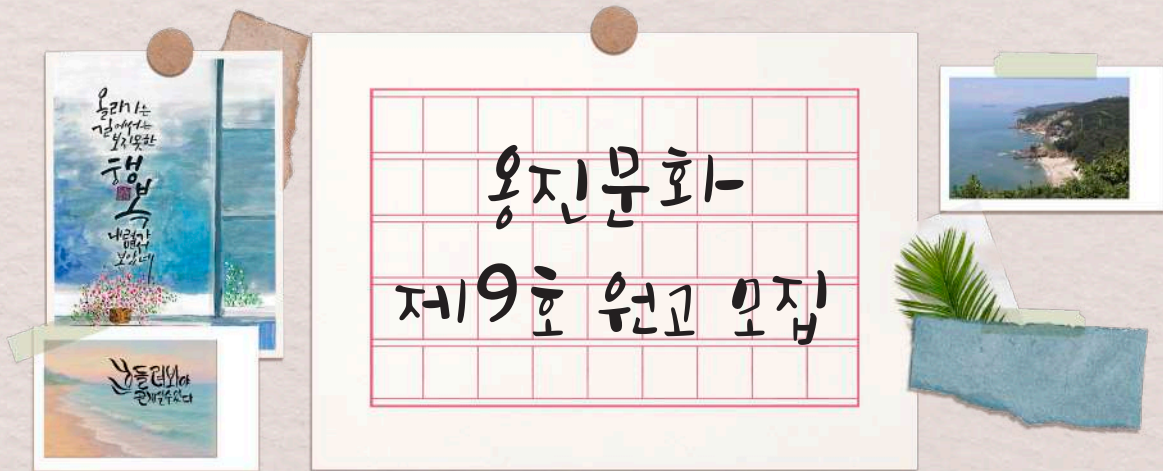
최우수 조수빈(대청고)



우수 김교빈(백령고)



장려 정예준(대청고)



발간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옹진문화원에서는 옹진의 다양한 삶의 문화를 담아 기록으로 남기고 계승하기 위해 매년 《옹진문화》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원고 및 작품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모집분야

- 운문(시, 시조 등)
- 산문(수필, 소설, 감상문, 기행문 등)
- 작품(그림, 사진, 서각, 서예 등)
- 그밖에 생활체험기,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 설화, 향토사, 인물, 역사기록물 등

제출기한

2026년 1월 ~ 2026년 8월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ongjin@kccf.or.kr
- 팩스 032-891-8131
- 우편 인천 중구 서해대로 374, 4층 옹진문화원

문의

옹진문화원 사무국 032-891-2131

투고해 주신 원고·작품은 2026년 《옹진문화》 제9호에 게재되며, 게재된 작품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응모작은 반환되지 않음)



홈페이지



카카오톡



유튜브

옹진문화 제8호

ISSN 2799-5852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옹진문화원장 태동철
편집인 사무국장 윤삼용
진행 대리 최이현
발행처 옹진문화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74
 전화 : 032)891-2131 팩스 : 032)891-8131
 E-mail : ongjin@kccf.or.kr
디자인·인쇄 영동인쇄 032)764-4111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 책은 옹진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